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영감정계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2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9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무너지는 계율

전북 모종단의 비구니 스님은 종단의 회의에 나가기를 꺼린다. 이유는 스님들의 모임이 일반음식점에서 버젓히 이루어지는데다 더구나 속세사람과 다를바 없이 행동하는 스님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요즘 스님들은 음식점 이용을 당연시 한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반인과 신도들 시각은 곱지 않다.

파계사 율원장 철우스님은 "스님들이 계율을 모르는 것은 물론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다"며 "소소한 예절계율부터 못지키기 때문에 파계하다보니 자꾸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부도덕한 일들이 생긴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범망경을 설하며 보살계를 지키라지만, 정작 스님들 자신은 사분율계 지킬 것을 서원하는 법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승가의 계율은 목숨과도 같다"

부처님은 계율을 강조했다. 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승가의 계율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름마다 포살법회를 하라고 했다.

포살법회는 계율을 잊지말고 잘 지키도록 율장을 반복하여 들려주는데 초점을 둔다. 이와 겹들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는 승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해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포살법회를 하는 대중처소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또 종단에서도 계율을 듣는 승려계율교육은 조계종계단위원회 주최로 94년에 곡성 태안사에서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계정혜 3학중 계가 가장 기초적이며 비구 2백50계를 수지하겠다는 것은 수계의 기본이다.

또 현대사회에서 지킬 수 없는 계율은 종헌종법을 개정해 일정정도 예외규정을 두는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승가에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킬때 지계정신이 투철한 스님들을 배출할 수 있고,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종단 운영방침대로 순응"

월하스님, 총무원에 친필서명 전달
"종단 안정 바람 종도들과 똑같아"

그동안 조계종 정화개혁회의를 이끌었던 월하스님이 종단 운영 방침에 순응하기로 밝힘에 따라 조계종사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하스님은 1월 26일 친필로 작성한 편지지 반장 분량의 '금반 종단분규에 대하여'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송월주 3선 출마에 다수 승려가 제지하여도 제지가 안되어서 본인도 3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뗐던 바 3선을 막게 되었으면 족하게 생각할텐데 본의 아니게 확대되어 유감천만스럽습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월하스님은 또 "종단 운영 방침대로 순응하기로 통도사 전원 대중이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호법국장 지견스님을 통해 월하스님의 친필 성명서를 28일 총무원 호법부장 종고스님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영축총림 임회의원 및 종무직원들은 '통도사 대중의 입장'을 발표하고 "새 총무원 출범 후 종단이 안정 화합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은 다른 종도들과 다를 바 없다"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각오로 불교중흥을 위하여 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하스님의 성명에 대해 정화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은 "제2정화를 성취한다는 정화회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영스님은 "월하스님께서 '사중에서 (성명발표를) 요청하니까 냈지만,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우리한테는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정영스님은 29일 성명을 통해 "월하종정의 성명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월하스님의 성명 발표에 대해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화회의가 완전 해체된 것이 아니어서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군 훼불현장에 새 법당 세운다

육군특수전학교 법당 백마호국사(지도법사 노도영) 기공식이 1월 27일 조계종포교원 포교국장 성수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학교장 최재환대령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법당 62평과 대중방 등 모두 1백15평 규모로 5월 부처님오신날 전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수전학교 법당은 97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신교사병들이 가건물이던 법당 앞에 오물을 뿌려 법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성운 기자

올 예산 220억 원안대로 승인

포교원장 정련스님 임명동의…해종특위법 제정

조계종 138회 종회

조계종 제138회 임시중앙종회가 포교원장에 정련스님을 임명동의하고 올 예산 220여억원을 승인한가운데 28일 폐회됐다.

종회는 총무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나 특별분담금 사찰과 직역사찰 분담금 수입과 관련 '분담금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조정키로 했다. 중앙종회는 23일 해종행위자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법종, 위원:원행 진만광조 도각 대원 수완 정각 종고 명진 지현)와 법인대책특위(위원장 영담, 위원:지우 설송 지홍 운달 종삼 법성)를 구성했다. 또 종립학교관리위원과 재심호계위원 보궐, 화엄사 입대진상 조사특위 구성등을 다루고 25일과 26일 휴회했다.

27일 속개한 종회는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해종특위법)을 제정했다. 해종특위법은 정화개혁회의 관련 스님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위한 한시적인 법으로 해종특위의 구성과 권한, 조사및 활동 범위, 제소권의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종회는 승려법개정안도 의결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제45조 제2항인 제적 조항과 관련, 복적은 징계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가능케(현행 5년)했으며 복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종회의원과 종무원의 자격을 부여토록(현행 2년)했다. 특히 개정된 승려법은 공권정지의 기간을 대폭 늘려 현행 '최하3개월에서 최고 5년'까지를 '최하 3개월에서 최고 10년'으로 고쳤다. 제47조 공권정지 5년 이상을 규정하는 조목에도 '도당을 형성하여 종단의 법통과 교권을 문란케 하거나 종단 질서를 위태롭게 한 자' 조항을 제1항으로 신설했다. 또 부칙제7조를 신설 "99년 1월 27일 제정된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회법에 의해 호계원으로 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징계내용은 사면 복권, 경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도 종회는 기초선원운영위원에 정찬(마곡사선원장) 성덕(동화사주지)스님을 선출하는등 안건들을 처리했다. <예산 관련기사 2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정화회의 참여했던 재가종무원 탈퇴선언

조계종 정화회의에 참여했던 재가종무원들이 정화회의 탈퇴를 선언했다. 정화회의 재가종무원 18명은 1일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2정화불사는 세속법에 의한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정화개혁법우회'를 결성해 건전한 비판세력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회의 재가종무원들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종 구도는 자칫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2정화불사의 참 뜻마저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2월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혜초스님의 달'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구법승으로 중국밀교의 정통 맥을 이은 혜초스님(704~787)은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면서도 그동안 스님의 구법행적과 사상이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월 혜초스님의 달을 맞아 본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밀교종단 진각종과 공동주최로 오천축국을 여행하면서 부처님의 자취와 그곳의 역사 풍물 등을 기록으로 남긴 위대한 한국인 혜초스님의 발걸을 창작국악교성곡으로 찾아나서려 합니다. 시인 장지현정사의 가사에 음악계의 기린아 김희경씨가 작곡한 국악교성곡 '혜초'는 불교계 연합합창단 250명과 남성합창단 30명,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혜초스님을 기리는 음악회에 사부대중과 음악애호가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혜초스님 구법의 생애 그린 감동의 무대

27일 오후7시 문예회관 대극장

△일시: 2월 27일 오후 7시(1회 공연)
△장소: 서울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출연: 청룡사 불광사 길상사 묘각사 조계사 청년회 인천보명사 중앙불교 합창단, 진각종, 예노 중창단, 중앙대 남성합창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유승엽씨 ('선율악 혜초' 오카리나 연주)
△공연 문의: 진각종 문사부 (02)913-0753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주최: 대한불교 진각종 ·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문화관광부
btn · BBS

입춘맞이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

-화장유언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

△일시: 1999년 2월 4일 오전10시30분
△장소: 삼각산 도선사 (02)993-3161

주최: 생명나눔실천회 ·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도선사

강릉 불교방송국 문화부 개설허가 추천

불교방송은 지난달 12일 강릉 불교FM방송국 개설 허가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다. 이는 96년 11월 조계종 총무원이 정부에 요청했던 지역 FM방송국 건립 신청에 따른 것이다.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도후스님(신흥사주지)은 "경제 한파로 지역 경제가 얼어 붙어 당장 방송국을 설립하기는 힘들것"이라며 "올해 안에 지역 교계 인사들과 협력해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파법시행령에 의하면 방송국 설립은 신청허가를 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2월의 문화인물 혜초 9면

"천년의 생명을 가람동기와가 함께 합니다."

가람 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 없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숫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 수 있게 설계 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장식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의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00kg)가람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 가람 동기와에서는 생산, 시공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수유리 본원정사


강화 백련사

절을 향한 마음 우리절 이정표가 있습니다.

규격간판(도로 지주용 간판)에
허가 대행, 제작, 설치를 가람기획 이 담당하겠습니다.



가람 기획 간판의 장점

1.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임으로 수명이 길다.
2. 야광 스텐레스로 밤에 판넬 자체 발광으로 위치확인이 명확합니다.
3.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4. 가격이 저렴합니다.
5.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지지 않습니다.

가람 기획의 장점

1. 현재 까다로운 관공서의 규격 지주용 간판 허가를 대행합니다.(설치법규는 건설부 지침임)
2. 설치날짜의 기간을 준수합니다.

취급품목 사찰안내간판, 사찰연혁판, 전주용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등…

가람동기와 ☎ 02)720-5121 FAX. 02)732-3769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B/D 202호 가람기획

사 설

월하스님의 성명서

해방 이후 불교의 변모와 혁신은 이른바 '정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다.

정화개혁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할 때 모든 사태는 예고된 것이었다. 월주 전 총무원장의 삼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계사의 무단점거를 정당화할 수 없다. 삼선관계는 여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시비를 가리고 출마의 당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전 총무원장이 조계사점거에 놀라 출마를 포기한 것 또한 심모원려가 아니었다. 물러나는 것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했다. 그러지 않고 총총히 물러났기에 조계사의 난입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셈이 되었다.

역시나 그들은 점거의 명분이 사라졌어도 물러나지 않고 폭력으로 대치해 불제자들과 온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일의 중심에 월하 종정이 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서도 무슨 혁명분자들처럼 별도의 총무원을 구성하고 조직체계까지 갖추더니 안되겠다 생각했던지 이번에 성명을 발표했다. "송월주 삼선출마에 다수 승려가 제지하여도 제지가 안되어서 본인도 삼선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을 댔든 바, 삼선을 막게 되었으면 족하게 생각할텐데 본의 아니게 확대되어 천만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종단 운영방침대로 순응하기로 통도사 전원대중이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성명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내용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언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 총무원장'이라는 직함을 빼고 '송월주'라는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심한 결례이다. 이것은 공적 문제를 사적 감정과 혼동하고 있는 극명한 징후이다. 또 종정쯤되면 사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질 태산교악의 기상이 있어야 한다. "본의 아니게 확대되어 천만 유감스럽다" 안에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는 말에서 우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모호한 사과문을 듣고 느끼는 분통이 치민다. '순응'이란 말도 마찬가지이다. 자발적 선택과 판단에 의해 공적 합법적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싫지만 마지 못해 끌려가겠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일반대중들은 이 정도에서 사태를 봉합하고 마무리하자 하겠지만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이런 사태는 분명 다시 재발할 것이다. 그래서는 한국불교의 미래가 없다.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책임당사자의 정확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정화개혁회의에 간여하던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월하스님은 슬그머니 꼬리를 뺐다. "사중에서 하도 압력을 가하니까 낸 것이니 크게 신경쓰지 말라." 천년너머 우리 문화와 전통의 저변이자 핵심을 형성해 온 불교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로 묻힐 것이다. 종정의 성명은 그저 봄바람인 듯 남의 일로 일별하고 지나갈 일이다. 대승적 전망에서 그리고 새 집행부의 면모와 의지에서 큰 희망을 읽는다. 근대불교 100년의 절망과 상처를 듣고 이제 불교는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대중과 호흡하는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열어가리라. 그동안 불교는 언어와 문자를 버리면서 상식까지 무시했다. 인간은 세속의 연기법 안에 있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존재성을 떠날 수 없다.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긴밀하고 활발해져 가는 미래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 점을 우리 불교인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

불교TV 좌초위기…"살려야 한다"

부채 70여억원 갚을길 없어 발동동
뉴스제외 프로그램 재방 '초긴축 경영'
범종단 지원 절실…유료 의무전송되면 '숨통'

불교TV가 경영난으로 인해 뉴스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단되는 등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불교TV의 좌초위기에는 70여억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케이블TV 정책 실패에 의한 가입자 수 감소와 경영진의 무책임도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교TV는 지난해 12월28일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신허스님(표충사주지)을 중심으로 한 11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암스님(부산 녹야원주지)을 사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으나 회암스님은 1월15일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신허스님은 대표이사 등기 이전을 계속 미뤄오다가 법적 시한을 넘긴 1월21일에야 등록을 마쳤으며 노조 집행부와의 면담에서도 "최소비용과 최소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해 5월까지는 정상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부채: 불교TV는 국민은행 23억원, 동원파이낸스 18억7천만원, 보람은행 8억6천만원 등 은행권 단기 부채 50여억원과 미지급금 20여억원을 합해 총 70여억원의 악성 부채를 안고 있다. 특히 은행권 부채 50억원은 IMF사태 이후 높아진 대출 금리 등으로 눈덩이 처럼 이자가 불어나 직접적인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 이 금융부채를 갚기 위해 지난해 2월 30%의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월부터는 상여금 없이 50%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초긴축 경영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월 1억원에 달하는 부채이자와 케이블TV 가입자수 감소로 인한 수신료 수입저하 등으로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태. 은행권 부채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상환만기로 돼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의 부채이자 3억4천만원.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기해온 이 부채는 상환만기 법정 시효일인 6개월을 훨씬 넘겨 원금인 20억원까지 한꺼번에 갚지못할 경우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 중단: 3방영체제로 편성해온 불교TV는 지난해 12월20일 부터 뉴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중단하고 재방영 체제로 들어갔다. 프로그램 제작비가 9월 이후부터는 거의 책정되지 않아 프로그램 제작비를 협찬 받아온 상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뉴스팀 7명을 제외한 80여명의 직원들은 책상만 지키고 있는 처지.

1월18일 열린 팀장회의에서는 경영정상화가 이뤄질때까지 1일 두차례 내보내던 'btn뉴스'를 오전 방송만 편성키로 했으며 일부 협찬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제작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노동조합(위원장 신동우PD)은 1월21일 비상 총회를 개최하고 무책임한 현 경영진의 각성을 촉구했다. 신동우노조위원장은 "무책임한 경영이 지속 될 경우 새 경영진 물색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회사의 긴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교계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불교TV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타개책: 조계종은 그동안 책정돼 왔던 1억원의 지원금을 이번 회기예산에서 제외시켰다(관련칼럼 6면). 이사종단인 천태종을 비롯 진각종 총지종 등도 종단내 사업과 재정 수입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관망하는 자세. 천태종 총무부장 국성스님은 "지난해에 만도 1억원이 넘는 프로그램제작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금강불교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종단들이 안고 있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불교TV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종단적 지원 밖에는 기댈 언덕이 없다. 30억원의 단기 악성부채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금을 마련하는 데는 전 종단이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30억원의 부채만 해결한다면 한달에 4억원 정도가 드는 전반적인 운영비는 수신료, 광고료, 수익사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또 3월에 발표되는 방송통합법안에서 종교3사가 그동안 꾸준히 요청해 왔던 종교채널의 유료의무전송만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직할교구 활성화 28억원 투입

조계종 올 예산 어떻게 쓰여지나

조계종의 올 예산 총액은 2백20억5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6% 증가했다. 조계종의 전체 예산은 늘어났으나 이는 시설과 신도교무금 특별회계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며 실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해 5.5% 절감된 1백39억4천5백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일반회계예산은 104억4천5백만원 규모다.

순수일반회계 예산은 총무원이 54억여원을(전년대비 6.2%절감), 교육원이 31억여원(6.9%절감), 포교원이 14억6천여만원(22.4%절감), 중앙종회가 3억8천여만원(2%절감)을 쓸 계획이다.

총무원 총무부는 올 예산 중 직할교구 활성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편성해 28억여원을 책정했으며 기획실은 종단 종합전산망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집중해 3억2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재무부, 사회부, 문화부, 복지재단 등의 부서들도 10%가량씩 절감 편성한 예산으로 긴축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원은 교육지원 및 평가를 위한 교육전문인력 관리 육성과 교육종책 수립을 위한 사업에 예산의 중심을 실었다. 포교원이 타기관에

종단전산망 구축
포교인력 중점 양성
'깨·사운동' 지속

비해 큰 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신도등록관련 전산입력비의 소요원인이 소멸됐기 때문. 포교원은 포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꼽고 있다.

총무원 청사(불교회관) 신축 비로 계정된 시설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전입금 2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0억원 기타 수입을 합한 52억 5천만원 규모. 조계종은 이 예산 가운데 19억여원을 조계사 인근 부지매입과 기본조사 설계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4억여원은 적립할 계획이다.

중앙승가대이전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도 50억여원이며 여기에는 95년부터 97년까지의 미수분담금 17억여원이 포함됐다. 신도교무금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이월금과 올해 예산을 합쳐 10억7천여만원으로 계속 적립하며 신도조직화 사업등에 쓴다는 것이 조계종의 방침.

28일 폐회된 제138회 중앙종회는 총무원 기획실이 총괄 작성한 올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세입예산 가운데 특별분담금과 직영사찰 분담금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종회가 분담금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특별분담금과 직영사찰 분담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지속하며 대체해 나간다는 것이 총무원의 방침이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기념조형물 제작-학술발표-연극등
종교지도자협 '3·1절 행사' 다채

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지덕)가 80주년을 맞는 3·1절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2건국운동의 동참과 종교간 화합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지도자협이 준비하는 행사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기미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 옛터인 조계사 옆 수송공원에 기념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 조형물은 높히 6미터의 화강석으로 각종교의 3·1운동 참여장면과 독립선언서 전문 등이 새겨진다. 추진위는 2월말에 이 조형물을 수송공원에 세운다.

추진위는 3·1절 당일에 탑골공원에서 기념식과 현창 대행진, 기념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불교와 개신교는 '국난 극복과 21세기를 향한 3·1정신 계승방안'을 주제로 하는 학술발표회를 준비한다. 임연태 기자

98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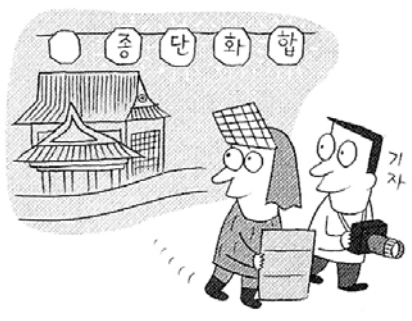
1998년 한 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98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98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행의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법보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8년 1년분(157호~204호)
- 가 격: 1권 60,000원(우송시 5천원 추가)
- 은행입금: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023-25-0007-617
  농협/053-01-227471
  우체국/010041-0255243
- 문 의: 기획관리부 (전화 02-737-8881)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다시 올 일이 없기를…

공고문

아, 이럴수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육주사 분규의 진실을 고한다.
실체기 없는 가짜 육주사 주지 김상문(현엽)은 조계종 역사이후 유일무이한 패륜 범죄자로서 육주사에서도 98.12.11일 축출되었으며 이대휘 문도회에서 제명 축출 되었음을 알립니다.


현엽

1 패륜 범죄 사실개요

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셨던 이대휘 큰스님을 문서상 사기꾼으로 매도 탐재한 사실.

나. 가짜 육주사 주지직 10년을 살고도 법원에서 검인된 이대휘큰스님의 유언이 잘못되었다며 육주사 창건주 권한 승계권 입증서를 날조한 범죄사실

다. 이대휘 큰스님께서 59년도 설립한 육주사를 55년 김상문(현엽)이 4살 때 설립 창건한 것으로 사설사암 등록 서류를 날조한 범죄사실

라. 김상문(현엽)은 서예가 모씨글을 다량복사 현엽 자신의 낙관을 찍어 자신의 작품처럼 신도에게 배포 세상을 우롱 시중 잡배도 할 수 없는 도덕적 범죄행위
(※상기 4항의 범죄사실 입증서류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되었음)

2 상기 김상문(현엽)은 유언수임 집행자 진우 비구스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 15일 입적하신 이대휘 큰스님 개인 명의로 된 전답 1900평을 현금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은사이기도 한 이대휘 큰스님을 사기꾼으로 취급하여 문서상 기록 김상문(현엽)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꾀하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임(총무원에 비치된 가처분 내역 판결문, 부산 고법 형사 94고단 5833 참조)

3 변호사 입회하에 법원 검인된 이대휘 큰스님 유언이 잘못되었다며 92년 2월에 있었다는 육주사 창건주 승계권 입증서를 93년 6원 21일 태고종 승적 취득자 김해진을 앞세워 날조하고 이대휘 큰스님 유언수임 집행자 진우 비구스님을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 이 순간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 상기 내용으로 인해 문도회 (재)이사회의 불신임으로 육주사 주지 임명장을 받지 못하자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소송했지만 결과 모두 패소하였으며 96년 4월경, 당시 무권자 현엽은 사설사암 등록서류를 날조, 송월주 총무원장 당시 육주사 주지 임명장을 받아 각종 사기 소송 행각 결과 모두 취하, 패소하고 현재 자격모용 사문서 동행사 소송 사기등 죄목으로(부산지법 형사 6단독 6133호)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선고만 남아 있음.

5 또한 육주사 주지 확인 본안 소송 부산고법 98다 2549 판결에 의해 98년 12월 11일 강제 집행 자진퇴거된 자임을 이대휘 문도회 명의로 공고합니다.

6 김상문(현엽)은 이와같은 명명백백한 범죄사실의 치부를 감추고 파사현정 기치하에 어렵게 출범한 오고산 총무원장 큰스님 현 집행부에 접근하여 자신과 결탁한 도반스님과 다른 사람에게 이미 지법, 고법의 판결로 실체가 없어진 조계종 명의의 육주사 주지 임명장을 재발급 받아 또 다른 분규를 계획하고 있다하니 김상문(현엽)과 인연이 깊은 대덕 스님 제반 사부대중은 육주사 분규의 제반 증빙서류가 총무원 총무부에 우송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고 유언수임 집행인이며 전국불자 서예인 협회 2대 회장직과 동국대학 불교대학원 10대 총학회장을 역임한 조계종 비구 진우스님을 육주사 주지로 모실것도 공고합니다.

이대휘 큰스님 종친회 문도회, (재)육주회 육주사 원로 신도회 일동 합장
재단법인 육주회 소속 육주사 (051)971-9412

인터뷰 조계종 교육-포교-호계원장



교육원장 일면스님

"교육통한 승풍진작에 최선"

"승가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교육원장직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에 임명된 일면스님의 소감이다.

스님은 "승가교육은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몇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화합의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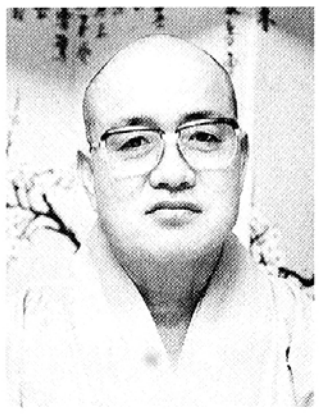
"우선 선원총람 발간 등 그동안 교육원에서 전개해온 사업들을 원만히 완수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라는 스님은 "논란이 되고 있는 행자교육 기간 연장 등의 문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각계의 여론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종단사태에 연루된 학인들의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인연관계로 학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담한 학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인들의 이동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학교운영 경험을 쌓고 있는 스님은 "아무리 좋은 교육체계가 마련되더라도 기성세대 스님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다"면서 "승풍진작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과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력 59년 해인사에서 명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6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79년 동국대 승가학과 졸업. 조계종 제9, 10, 11, 12대 중앙종회의원. 현재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 주지이자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포교원장 정련스님

"여성불교운동도 적극 지원"

"중생들의 삶에 행복을 주는 포교원이 되도록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조계종 새 포교원장으로 선출된 정련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은 중생들을 위한 포교원으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정련스님은 "포교원은 별원화 이후 그동안 신도들의 신행체계화 및 행정과 조직체계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재가불자들의 지지와 성원에 기반한 포교원, 왕성하게 활동하는 포교원, 각계각층의 포교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포교원을 만드는 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불자들의 활동 지원을 강조했다. "불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과 시민활동의 중요한 역량으로 발전하고 있는 여성불자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을 새롭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폐불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단사태 와중에 발생한 훼불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종단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고 지적한 정련스님은 수습보다 예방 차원의 대책수립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종교 시설물 파괴자와 공직자의 종교편향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입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교육원 통합론에 대해 정련스님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 아니냐"며 "포교원과 교육원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력 58년 석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0년 비구계를 수계했으며, 동아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내원정사 유치원장,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장, (재)내원청소년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97년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유아를 위한 불교교육 이론과 실천' 등의 저서가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호계원장 월서스님

"법집행 종단화합 차원 처리"

"시기적으로 부담스런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종단을 위해 누군가 해야할 일이고 많은 종회의원들이 선출해 준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제3대 호계원장에 선출된 월서스님은 호계원을 "종헌종법 질서가 최대한 지켜지는 풍토 조성과 각종 탈법사고를 예방하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종단 분규와 관련된 징계문제등 예민한 사안들이 산적한 현실을 감안하면 호계원의 독립적인 입지 구축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스님은 호계원법을 대폭 개선해 합리적인 호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종헌종법이 정하는 징계의 종류가 너무 단조롭습니다. 종단화합 구현을 위해 가급적이면 멸빈이나 제적등의 중징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징계 방안들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월서스님은 입법기관이 호계행정의 신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스님은 종단분규 관련 스님들의 징계에 대해 "화합적인 결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 종단 여론이 강력한 징계와 온건적인 대처로 나눠지고 있어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가장 합리적인 징계란 징계 당한 당사자 이해하고 굴복하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약력 1936년 경남 함양출생. 56년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59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동화사 봉암사 등 선원서 십수하안거 성만. 법주사강원 대교과 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조계종 제4, 5, 6, 8, 10, 12대 종회의원및 제8대종회의장 역임.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본지 208호4면 월서스님 프로필 중 출생지, 득도연도 및 은사 등은 오식이었음을 알립니다.

목어 뇌물

"화합 '디딤돌' …분규종식 기대"

월하스님 '유감 성명' 배경과 전망

통도사 본말사 대중의견 수렴

정화회의 '종정교시 봉행' 명분 잃어

월하스님이 1월 26일 발표한 성명서는 종단 안팎에서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조계종 사태의 정점에 서 있었던 월하스님이 통도사 대중들의 합의임을 강조하며 "종단 운영방침에 순응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분규가 마무리 될 것이란 여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월하스님의 친필 성명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통도사 대중들의 의견으로 꼽힌다. 통도사가 종단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통도사 본말사 대중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해 들어 통도사가 종단에서 고립될 가능성은 점차 높아져 왔다. 신임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1월 15일부터 전국의 총림을 돌며 방장 스님들과 원로스님들을 만나 종단 운영에 대한 환담을 나누는 가운데 월하스님만 만나주지 않은데 대한 종단내부의 비판이 적지않았다. 또 중앙종회가 월하스님의 방장 추대를 취소하고 영축총림 통도사의 총림 해제까지 논의 했던 점, 해종행위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도 적잖은 무게로 통도사가 부담을 느끼게 했다는 분석이다.

거기다 정화개혁회의가 새로운 총무원 체제를 꾸렸지만 불교 내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주목 받지 못했으며 그간 가담했던 스님과 재가종무원 등 점차 일탈세력이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도 '중대한 결심'을 직간접적으로 종용한 매개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고산스님을 중심으로하는 조계종의 중앙 종무기관이 빠르게 정상화의 노정을 밟아 온 것도 이번 성명서 발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총무장 고산스님은 종단의 원로중진들을 폭넓게 만나며 종단 운영의 안정 기조를 다졌으며 '다시 일어서는 조계종'에 대한 대사회적인 이미지도 신선하게 유지해 온 것과는 반대로 정화개혁회의는 명분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월등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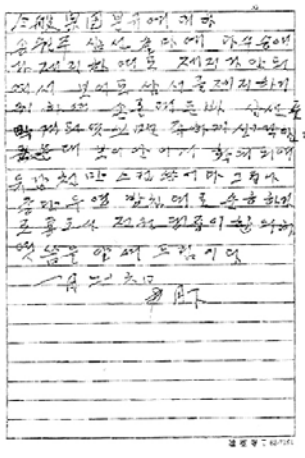
월하스님의 성명서는 불교계에 "이제 분규종식"이란 기대를 주고 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인 정영스님은 "종정교시로 정화개혁회의가 출범했지만 종정이라고 해서 정화개혁회의를 해산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월 29일에는 정화회의의 계속적인 개혁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종정교시 봉행을 최대의 모토로 내걸었던 정화개혁회의가 지금에 와서 월하스님의 성명서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 교계 안팎의 지배적 의견이다. 안정과 화합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표방하고 있는 종단의 전체적 정서로 볼때 월하스님의 "종단 운영 방침 순응" 입장은 정화개혁회의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번 조계종 사태는 아직 많은 후유증을 안고 있다. 종단 외적인 위상실추는 상당기간 회복하기 힘든 과제로 남아 있다. 거기다 중앙종회가 구성한 해종특위의 활동도 적잖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최소의 징계와 최대의 관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총무원과 종회는 물론 불자들의 묵시적 원칙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가 계속적인 활동을 고수한다면 징계의 문제는 점점 풀기 어려워 질 것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월하스님이 발표한 성명서가 종단화합을 위한 새로운 단초가 되어 분규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임연태 기자



◇월하스님이 26일 발표한 친필 성명서.

옛날 인도의 바라나시에 국제라는 거사가 살고 있었다. 집안이 어려운 그는 아들 우바국제가 장성하자 점포를 열어 장사를 시켰다. 하루는 야세가 라는 아라한이 점포에 왔다가 우바국제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흑백의 돌맹이를 갖고 있다가 착한 생각이 나면 흰돌을 놓고 악한 생각에는 검은 돌을 놓아라."

우바국제는 가르침대로 실천했다. 처음에는 검은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바국제는 돌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점점 흑백이 같아져고, 흰돌이 많아지고 검은돌은 없고 흰돌만 있게 되었다. 그는 착한 생각이 왕성해져 마침내 초과(初果)를 얻었다.

정직을 가르치는 〈현우경〉에 있는 이야기다.

고건 서울시장이 비리척결대책회의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을 받는 간부는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뇌물거부 경찰관에게 가산점을 주고있다. 이로인해 "돈을 바라"고 금품을 건넨 시민이 사법처리되고, 경찰관들은 '성의표시'까지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한보·기아사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일, 요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법조계 비리등은 뇌물과 무관치 않다.

뇌물은 양심을 외면한 검은 돈이다. 우바국제의 검은 돌과 같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단돈 10원이라도 뇌물을 받다보면 거액의 뇌물을 거리낌없이 받는 '관행'이 생기게 된다. 크고 작은 검은 돈이 많이 거래되는 사회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고건 시장은 비리 척결대회에서 '지자이렴(知者利廉)'를 역설했다.

목민심서 율기편 청심조항에 있는 말로 현명한 사람은 청렴함이 궁극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알아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꼭 실천해 우리사회가 깨끗하고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6근을 바로 하라는 경전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너는 눈을 바르게, 귀를 바르게, 코를 바르게, 입을 바르게, 몸을 바르게, 마음을 바르게 하라."〈正行經〉

19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東邦佛教大學

(우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02)763-0229, 763-8536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1. 모집 과정 및 학과
가. 대학과정 (2년제)
1)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OO명(편입생 약간명)
2) 범 패 과 : OO명
3) 불교미술과 : OO명
나. 교양과정(1년제) : OO명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대학과정
1) 신입생
가)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다)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학년 편입생
가)정규대학 졸업자 나)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나. 교양 고정
1) 교임 및 사찰 관리인, 승려 권속 및 신도회 간부
2)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가. 대학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나. 교양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1월 18일(月) ~ 2월 20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일요일은 15:00까지, 공휴일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9년 2월 21일(日) 10:00 ~ 17:00

6. 전형장소: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8. 제출서류
가. 대학과정 :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반명함판 사진 6매
나. 교양과정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이력서(반명함판 사진 6매 포함)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재직증명서 1부

9.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10.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대학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교양과정은 매주 2~3일 사이에 5강좌 강의함.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다.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라.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 8536)
나. 태고종 서울종무처(☎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5~6)

교차로

교양대학 제11기 졸업식



혜광 법주사 주지는 1월 28일 대웅전에서 법주사 불교교양대학 제11기 졸업식을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21일 천안 성불사 신도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양지마을을 방문, 냉장고와 세탁기,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독거노인에 성금·내복 전달



도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장은 1월 23일 지역내 무의탁 독거노인 1백15명에게 후원금과 내복 등을 전달했다.

석왕사 설맞이 가족의 밤



영담 부천 석왕사 주지는 6일 오후 5시 육화전에서 설맞이 가족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행단체 장기자랑과 모범종무원 및 신도 시상식 등도 진행된다.

1천원 사랑나누기 운동전개



진허 마곡사 주지는 종합사회복지사업을 추진을 위한 1구좌 1천원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한다.

결식아동돕기 단체에 성금



성일 화성 신흥사 주지는 1월 24일 경기도 결식아동돕기단체에 결식아동돕기성금과 성도절 기도입재금 5백35만원을 전달했다.

영산율원서 비구계본 특강



철우 파계사 영산율원장은 8일부터 4박5일간 영산율원에서 비구계를 받은 스님을 대상으로 정통계율본인 〈비구계본〉 특강을 연다. (053)982-0595

천일지장기도 7백일 회향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1월 27일 선원사 복원을 위한 천일지장기도 7백일 회향법회 및 예술재를 봉행했다.

양지마을에 세탁기 등 전달

양산 조계종 문화부장은 1월 21일 천안 성불사 신도들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양지마을을 방문, 냉장고와 세탁기,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성도재일 참회대법회

원명 제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은 1월 22일 제천 삼천사에서 성도재일 참회대법회 및 10대 제천불교연합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부산 BBS차기 사장에 유임



류진수 불교부산방송 사장은 1월 26일 크라운호텔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사장으로 유임됐다.

대흥사·선암사등 성지순례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은 1월 16~17일 제8기 포교사과정 1백명과 대흥사 무위사 운주사 선암사 보림사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동국대 총동창회 부회장에



김양일 울산일보 회장은 최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시선집 '늘고향…' 출판회



양원식 종립 해동고등학교 교장은 5일 오후 6시 30분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시선집 〈늘 고향으로 흐르는 강〉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삼광사 수산스님과 정기법회

서춘석 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은 1월 28일 삼광사 법화삼매당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광사 교무 수산스님과 월례정기법회를 가졌다.

범죄예방위 사무처장에

조달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사무국장은 1월 25일 대검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발해의 역사와 유적' 강연회

김윤환 부산 영광도서 사장은 1월 23일 영광도서 사랑방에서 경성대 사학과 한규철교수를 초청, '발해의 역사와 유적' 강연회를 열었다.

"베풀수 있다는것에 감사"

신장 기증한 **성도스님**



내 생명을 나누어 다른이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 거룩한 일이지만 그만큼 실천에 옮기기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성도스님(경남 거창 광암사·50)은 생명나눔실천회의 주선으로 1월 27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자신의 신장 하나를 선뜻 떼어 생면부지의 30대 남성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현재 원융종 사회부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스님은 지난해 3월 생명나눔실천회와 인연을 맺고, 그동안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거창 산골에서 서울을 열번이나 오갔다.

더많이 나눌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스님은 "수술 후 광암사로 돌아가 보살핌이 필요한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할 생각"이라고, 또한 "스님과 불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게 베풀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석전 교육사상은 지행일치"

박한영 연구로 석사학위 **덕운스님**



"승려교육과 도제양성, 대중교화에 대하여 지행일치(知行一致)로 헌신한 박한영스님의 불교 교육개혁 사상은 동체대비의 불교사상을 구현하는 실천이었습니다."

'석전(石顚) 박한영의 불교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덕운스님(종교교육·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박한영스님은 유심론적 교육관을 바탕으로 개화교육과 전통교육의 조화를 통한 승려교육 제도의 개혁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석전 박한영(1870~1984) 스님은 구한말에서 일제 해방에 이르는 시기에 '교육구국(敎育求國)'의 일념으로 승려교육 개혁을 주창한 인물. 덕운스님은 "스님이 남달리 심혈을 기울인 도제양성의 공적은 바르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부분에 있어 전통을 지켜 새로운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것이 오늘날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석굴암주지 종상스님·보경사주지 법달스님





불국사(주지 성타)는 1월 22일 석굴암 주지에 종상부주지(사진 왼쪽)를, 보경사 주지에 법달석굴암주지를 임명했다. 한편 총무국장에 장주 법보신문 사장, 재무국장에 진현 보경사주지를 각각 발령했다.

"조직정비…신행·포교무대 만들터"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선진규 법사



"교계 내외가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회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이 마음놓고 신행하고 포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도록 앞장서겠습니다."

1월 27일 임기 4년의 전국신도회 18대 회장으로 선출된 선진규법사(65·봉화산수련원장).

중앙신도회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무리한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합은 돼야 한다. 그러나 무리한 통합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체 정비가 우선이다. 신도들의 구심점 역할을 잘 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총무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폈다. "신도로서 도와와 할 것은 도울 것이다."

아울러 종단내 분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여하지 않아야 해결된다. 40여년 신도운동을 한 내나름의 깨침이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병세 호전…봄되면 바쁠 거예요"

원효사서 방송다큐·연극 준비 **공옥진** 여사



뇌일혈로 쓰러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불자 예인 공옥진(67)씨가 이리 원효사(주지 현지)에서 '제2의 소리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공씨는 지난해 9월 KBS '신한국기행' 촬영 도중 과로로 쓰러져 절망에 빠진 나날을 보내왔다. 하지만 평소 공씨의 재능을 아끼던 원효사 현지스님의 권유로 원광대 한방병원을 퇴원하자마자 거처를 원효사로 옮긴지 3개월만에 병이 호전됐다. 카네기홀을 쩌렁 울렸던 예전의 목소리를 되찾고자 요즈음은 원효사 소나무 앞에서 춤과 노래 연습에 한창이다.

"내가 쓰러지자 공옥진이 이제 다 끝났다고들 했었어요. 그러나 이대로 주저 앉을 수 없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2월말에 KBS에서는 공씨의 삶을 정리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키로 했으며 쌍방울재단에서도 공씨의 삶을 주제로 한 연극을 기획, 대본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성북동 '제2 아침을 여는 집' 개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은 1월 26일 실직자 구호와 자활모임터인 제2 아침을 여는집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역 서소문공원에 이어 서울 성북구 성군빌딩에 마련된 제2 아침을 여는 집은 30평 규모의 2개층을 사용하며, 방, 목욕탕, 부엌,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총 수용인원은 25명이며 현재 18명이 입소한 상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98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 법회가 1월 26일 오후 6시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정기총회에서는 '98년도 결산보고 및 '99년 사업계획 예산 승인과 함께 한국불교전국법사회 윤호석 총재가 제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윤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결집한 동문들과 함께 전법활동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연구원 제14회 불이상 시상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1월 25일 연구원 법당에서 성도절 기념법회와 함께 제14회 불이상 시상식을 가졌다.

최봉수씨(동국대)가 연구분야 수상자로, 고우익씨(동대부중)가 실천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종서 서울대 명예교수, 윤용숙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홍라희 불이회 회장등 1백여명이 참석,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바른법연구원 금강경 실천 수련

바른법연구원(원장 김원수)은 1월 22일~25일 경기도 원당 수련원에서 제2차 금강경 실천 수련대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는 직장인과 청소년불자등 42명이 참가해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는 자시가행정진기도, 〈금강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과학적인 기도방법, 미륵존여래불정진 등의 수련프로그램에 동참했다.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72년 9월에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대중불교의 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불교전문교육의 요람지로서 2년제 야간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포교사 자격고시대비생 (교리 및 의식교육) 불자
3. 강의시간 주4일 수업 (오후 7시부터 ~ 8시 30분까지)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년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학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학년	1학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학기	◇기신론 사상	◇천태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학기 : 의식이론 및 실습교육 / 동·하계스쿨링교육(특강 및 의식실습 실시)
※ 교수진 : 권기종교수(동국대) 강건기교수(전북대) 권탄준교수(동국대) 장희옥교수(동국대) 최종석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김사업교수(동국대) 김종명교수(동국대) 김응기교수(동국대)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월 28일 18:00까지(본대학 서무과)
6.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서무과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남수영(동국대교수) ·계환스님(동국대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박 종(불성개발연구원장)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암도스님(교육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혜원스님(동국대교수)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98년 12월 15일~99년 2월 5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2월 6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무아사상으로 동서화합 앞장"

대구 경북 연등회 창립…회장 이용택씨

국민회의 대구·경북 연등회가 1월 27일 대구은행 본점강당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1부 창립총회에서는 회장에 이용택사장(경주관광개발공사)이 추대됐으며, 상임부회장에 현해봉씨(서예가), 감사에 이진기씨(前대구투자금융 과장), 총무에 김상길씨(지장상조개발 대표)가 선출됐다.

이어 열린 2부 창립법회에서 회장에 선출된 이용택씨는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선진화를 이룰 수가 없다"며 "무아자비사상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을 이룩해 제2건국을 완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암(前 조계종 종정), 철웅(성전암 조실), 성덕(동화사 주지), 성타(불국사 주지), 원명(대구사원련 회장)스님을 비롯하여 유상종(대구신행단체연합회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박상규 국민회의 연등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경북 연등회가 27일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전직원 불자화로 도약 재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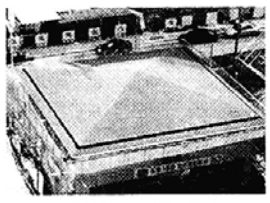
불자기업 탐방

성풍산업

성지순례로 단합 다져
지붕방수 신기술 개발



◇성풍산업 본사 직원들은 매년 2회 사찰을 찾아 단합제를 갖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치악산 상원사 참배후.



◇U.T.E.F로 지붕 마감 재시공모습.

전문건설업체인 성풍산업(대표 김영웅)은 5월 북한 신포에 짓는 KEDO(케도) 2천세대 근무자용 아파트공사에 지붕마감재 시공부문을 수주했다.

불심으로 뭉친 성풍산업은 서울시 864개 방수회사중 도급순위 30위로 현대 삼성 대우 코오롱 고려산업등 대규모 건설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연간 68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방수·도장전문 건설업체. 직원은 본사에 20명과 현장에 2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성풍산업은 입사시부터 불자를 우선채용한다. 화합과 정직성실을 사훈으로 하는 회사방침에 따른 것으로 임직원과 사원들은 창의적인 근무는 물론 불교포교에도 적극적이다.

교계신문 10여부를 정기구독하여 사원의 불교교리공부를 지원하고 공사현장에 1백~2백부씩 보내기도 한다. 또 1년에 2차례씩 사찰을 찾아 성지순례형식의 단합대회와 한달에 2차례 화합제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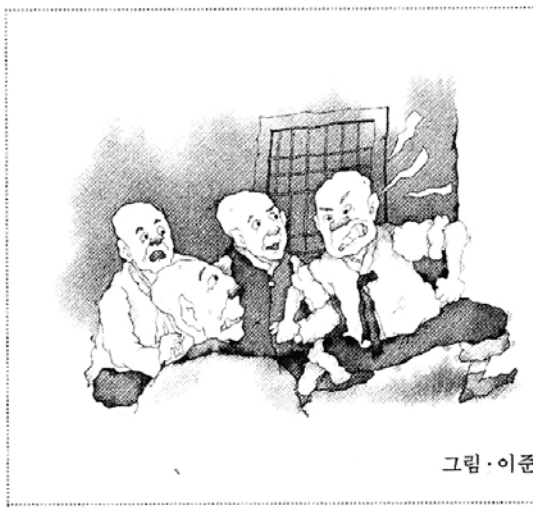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합성수지계통의 우레탄을 이용한 지붕방수마감재인 U.T.E.F와 바닥 및 벽면방수를 위한 SUPER-KS를 개발,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5년간 보호받는 신기술지정증서를 받기도 했다. 문의 (02)553-2441

김영웅 대표이사는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또 인생의 지침인 불교공부를 통해 어려운 난관도 화합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힘을 쏟고 있다"며 "가능하면 현장의 직원들도 불자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육체 학대로 견성 가능한가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⑤



그림·이준석

생식·일종식·묵언·장자불와 수행 구도심 발로인가-위선·자학인가

■11월7일 고행

견성은 육체적인 자학에서만 가능할까. 가끔 생각해보는 문제다. 우리대중 가운데 특이한 방법으로 정진하는 스님들이 있다. 흔히들 선객을 괴객(怪客)이라고 하는데 이 선객들이 괴객이라고 부르는 스님들이다.

처음 방부 받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된 스님은 명등(明燈)스님이다. 이 스님은 생식을 하기 때문이다. 시비와 논란의 우여곡절 끝에 방부가 결정되어 공양 시간에 뒷방에서 생식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래서 소임도 간편한 명등이 주어졌다.

수두(水頭)스님은 일종식(하루에 한끼만 먹음)을 하고 원두스님은 오후불식을 한다. 그리고 간변(看病)스님은 장좌불와(눕지 않고 수면도 앉아서 취함)를 한다. 욕두(浴頭)스님은 묵언을 취한다. 개구성(開口聲)이란 기침뿐이다. 일체의 의사는 종이에 글을 써서 소통한다.

그 초라한 선객의 식생활에서 더욱 절제를 하려는 스님들이나, 하루 열두시간의 결가부좌로 곤혹을 당하는 다리를 끝내 혹사하려는 스님이나, 스스로 벙어리가 된 스님을 대할 때마다 공부하려는 그 의지가 가상을 지나 측은하기까지 한다. 이유가 있단다. 스스로 남보다 두터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하여 또는 무복중생(無福衆生)이라 하루 세끼의 식사는 과분해서라고.

뒷방에서 색다른 시비가 벌어졌다. 도대체 인간이란 육체가 우위냐? 정신이 우위냐? 하는 앙케이트를 던진 스님은 지전(知殿)스님이다. 언제나 선방의 괴객들을 백안시하는 이과(理科)출신의 스님이다.

"단연코 정신이 우위지요. 선객답지 않게 그런 설문을 던지시오. 입이 궁하면 염불이나 할 일이지요."

문과(文科) 출신인 부목(負木)스님이 면박했다.

선객들은 대부분 불교의식(특히 불공시식)을 외면한다. 평소에 지전스님이 의식의 권위자처럼 으시대고 중이 탁자밥은 내려 먹을 줄 알아야 한다는 주장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부목스님이고 보니 비꼬는 투로 나왔다.

"정신을 지탱하는 것은 뭐요?"

지전스님이 물었다. 드디어 지전스님(理科)과 부목스님(文科)이 시비의 포문을 열었다.

"그거야 육체지요."

"뿌리없는 나무가 잎을 피우지 못하고 구름없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는 않을게요. 육체를 무시한 정신이 있을수 있겠소?"

"육체가 있으니 정신이 있는게 아니겠소. 어찌 상식이하의 말을 하오. 정신과 육체의 우열을 가름하자고 하면서 말이오."

"논리적인 상식에 충실하시오. 우리는 지금 논리를 떠난 화두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논리에 입각해서 정신과 육체의 우열을 가름하는 시비를 가리고 있는거요. 결국은 유물(唯物)이냐 유심(唯心)이냐 라는 문제가 되겠소만."

"유심의 종가격인 선방에서 유물론을 들춘다는 것이 상식이하란 말이오. 육체는 시한성이고 정신은 영원성이란 것은 유물론자들이 아닌한 상식으로 되어있는 사실이오. 시간이 소멸됨에 따라 육체의 덧없음에 비해 정신의 승화를 생각해 보시오."

"본래적인 것과 결말적인 것은 차치해 두고 실제적인 것에 충실하여 논리를 비약시켜 보도록 합시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생리학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보면 육체가 단연 우위일 뿐이요, 병든 육체에서 신선한 정신을 바란다는 것은 고목에서 잎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뿐이오."

"육체적인 외면이 많을수록 정신적인 승화가 가능했다는 진리는 동서고금의 사실들을 들어 예증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실증되고 있소. 나는 근기가 약해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지만 일종식이다 오후불식이다 생식이다 장좌불와다 묵언이다 하면서 육체가 추구하는 안일을 버리고 정신이 추구하는 견성을 위해 애쓰는 스님들을 잘 살펴보시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육체에 대한 사랑스러운 정신의 도전이며 승화인가를."

"그것은 작위며 위선이오. 내가 구도자임을 표방하는 수단일 뿐이오. 참된 구도자일수록 성명(性命)을 온전히 해야 할 것이오. 양생(養生) 이후에 양지(良知)가 있고 양지 이후에 견성이 가능 할 뿐이오."

"노장학파의 무위에 현혹되지 마시오. 그들은 다만 세상을 기피하면서 육체를 오롯이 하는 일에만 급급했지 끝내 그들이 내세운 지인(至人)이 되지 못했기에 제세안민(濟世安民)을 하려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소멸될 숙명에 놓여있는 육체를 무시하면서 구의목적(究竟目的)인 견성을 향해 나아갈 뿐이오. 견성은 곧 중생제도를 위해서니까요."

"육체가 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정신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 승화될 수 있겠소? 업고 속에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 중생이 말이오?"

"가능하지요. 그 가능성 때문에 여기 이 산속에 있지 않소. 거의 지옥같은 생활을 하면서 말이오."

"중생에게 절망을 주는 말을 삼가하시오. 스스로 병신이 되어야 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인데 우리 불가에서는 육체적인 불구자는 스님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짓고 있소. 이 규정은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진리를 웅변으로 대변해주고 있소. 고장을 모르고 조화된 육체야 말로 우리 선객에게는 필요불가결의 요소지요. 견성(見性) 열반(涅槃) 피안(彼岸) 적멸(寂滅)이 있기까지엔 말이오."

"끝내 스님은 그 간사한 육체의 포로가 되어 등신불처럼 안온한 양지 쪽에 서서 업보중생을 바라보려고만 하는군요."

"나는 등신불이 되지 않기 위해 육체를 건전히 하며 업보중생을 느끼기 위해 극악한 업보중생의 표본같은 이 선방생활을 하고있소. 결론에 도달해 봅시다. 나는 스님 말마따나 그 간사한 육체가 좋아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육체가 너무 싫어서 육체를 다스리고 있소. 육체는 바라볼 수 있는게 아니라 느껴야 하기 때문이오. 마치 우리가 세상이 싫어서 세상을 멀리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세상을 올바로 느끼지도 바라보지도 못할까봐 세상을 멀리 하면서도 세상을 온전히 하기 위해 견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을 뿐이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멀리 했다 하더라도 세상이 불완전하더라도 최소한도 현재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어야지 근본적으로 와해돼 버린다면 우리가 견성을 해도 어쩔수 없을 뿐이오. 이해가 되는지요? 그만합시다. 입선시간입니다."

시비는 가려지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중생이 사는 세상에서 시비란 가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생이 바로 시(是)와 비(非)로 구성된 양면적인 존재니까.

우리 모임에선

신수회 거조암 만발공양



본지 신행수기 공모 수장자들의 모임인 신수회(회장 이영자)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영천 거조암에서 제2회 철야정진 수련회<사진>를 가졌다. 신수회는 이에 앞서 거조암 나한전에 만발공양을 올렸다.

동대문경찰서 봉불점안

동대문경찰서 동불회(회장 김화철)는 1월 28일 청사 3층에 법당을 마련하고 부처님 및 후불탱화 봉안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교육원장 암도스님, 강명스님(정릉 원각사주지) 법경스님, 이진호 지도법사, 백승진법사(보현정사)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불암사교양대 노인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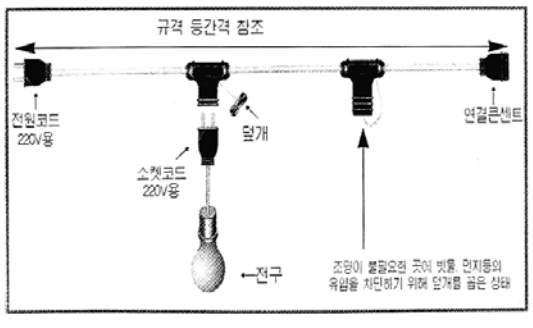
불암사교양대학(학장 일면스님)은 1월 30일 독거노인돕기행사를 가졌다. 불암사교양대학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0가구에 각 10만원씩 전달했다.

법조불자회 관문사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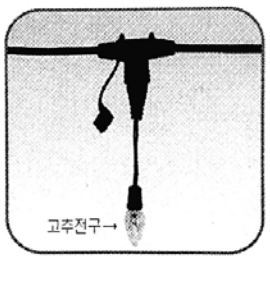
법조인불자회(회장 김홍근)는 1월 23일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우면동 천태종 관문사 참배법회를 가졌다.

봉축행사 가로등 · 법당 기도등용 전기배선

귀의 삼보하옵고, 전법 도생에 여념 없으신 스님의
고귀하신 뜻에 합장 향배 올립니다.







▶ 규격 등간격

· 등간격 30cm, 50cm
→ 전체길이 25m

· 등간격 1m, 2m, 3m, 5m
→ 전체길이 50m

· 규격외 : 주문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 등 종 류

· 외부용 : 후로킹
· 내부용 : 팔각등 실크 후로킹

▶ 기 타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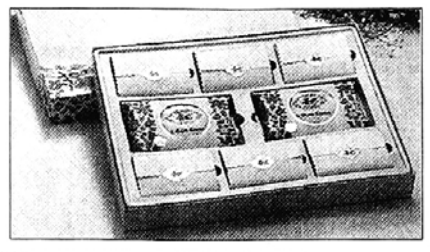
· 본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4 · 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약속일에 맞춰 제작 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신 성 기 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경제 청문회가 여권 단독으로 열리고, 야권은 마산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등 정치권은 악속이나 한듯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뒤늦게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는 태도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정치는 서로간의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논리로 일관해왔다. 반대쪽이야 어떻든 제할 말만 하면 그뿐이다. 도무지 대화와 이해의 노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조계종도 마찬가지다. 사태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사이가 벌어진 총무원측과 정화개혁회의측의 대화는 끊긴 상태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생각이다.

지금부터라도 대화에 나서라. 국민과 중생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본분에 충실함이요, 책임있는 자세다. 어떤 자세로 대화해야 하는 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대화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곧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잘못을 이끌어 자기에게 향하면 다툴 것이 없어진다. 〈열반경〉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데 긴요한 일이 여섯가지 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한 행위, 셋째 성실성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율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팔리 율장대품〉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장아함경〉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관념에 따져 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니, 현상세계의 시랑을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네의 설하신 가르침에는 다 다툼이 없느니라. 〈승사유범천소문경〉

▨참다운 뜻은 참다운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방등경〉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 그 중에 어떤 비구가 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자. '저이가 말한 글귀는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그 뜻은 바르다'고, 비구는 그 말을 들거든 옳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그 비구에게 말하라. '어떤가 비구여, 내 글귀는 이러하고 너의 글귀는 이러하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만일 그 비구가 곧 대답하되 '내 글귀는 이러하고 네 글귀는 이러하다. 네 글귀가 낫다.' 그 비구는 이렇게 말할 때 비구는 또한 말하기를 '이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하고, 마땅히 그 비구를 충고하고 꾸짖어 그치게 하고 마땅히 함께 연구하라. 이렇게 다 함께 화합할 것이요, 서로 싸움질을 하지 말라. 동일한 스승의 제자는 동일한 물과 젖이다. 〈청정경〉

▨믿음에 세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 첫째는 제 과오를 뉘우치기, 둘째 남의 미덕을 보고 칭송하면서 기뻐하기, 셋째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기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세 가지 특성을 닦아야 한다. 실수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재빨리 알아차려서 참회하고, 남의 미덕과 선행을 보면 충정으로 칭찬해서 그 명예를 높여주며, 항상 부처님과 같이 살면서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기원해야 한다. 〈금광명경〉

▨어리석은 사람이 어진 사람을 깔보고 헐뜯더라도, 어진 사람으로선 끝내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헐뜯음과 꾸짖음을 참아가면서 수순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장엄존경〉

열린마당

행자교육 기간 연장

행자교육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조계종단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총무원장에 취임한 고산스님은 5대총림 방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행자교육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방장스님들도 찬성의 뜻을 표했다. "승가본연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발심해 산문에 처음 들어서는 행자 때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선교육 후득도' 제도 전환



무관스님〈조계종교육원 교재편찬위원장〉

행자교육은 화합승가를 위한 초석이다. 따라서 행자교육의 기간 연장문제는 승려로서의 자질문제에서 연유한다. 승가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6개월의 행자교육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다.

또한 고구본사에서 전통적으로 교육을 받는 행자와 개인사찰에서 개인적인 수행에 그치는 행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전통과 현대의 교육방식을 적절히 조화시켜 선교육 후득도의 측면에서 행자교육을 실시하고, 예비승려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제도화해 진정한 수행자로 배출해야 한다. 시대적으로 승려교육제도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 기회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간보다 교육내용 강화



수진스님〈해인사강원 강주〉

요즘은 행자교육원에 입방하는 행자들의 평균나이가 32.5세나 되고, 사회에서 이미 제도권의 교육을 모두 마친 이들이 많다. 따라서 행자교육기간의 연장보다는 교육내용이 행자교육 문제의 관건이 된다. 행자교육 기간보다는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행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교과목을 새롭게 편성해 효과적인 행자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앙적 측면의 교육은 물론이고, 학문적 측면에서 불교철학과 서양철학을 비교공부하는 과정을 마련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어려운 경전과 교리만으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현대 행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대적 학문을 도입하는 것도 그 하나가 될 것이다.

"2~3년으로 기간 연장"



박광서〈범불교연대회의 공동대표〉

현재의 6개월은 너무 짧다. 2년~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교육기간의 연장은 필요하다.

출가한 스님들의 70%~80%가 교화승이나 행정승으로 활동하게 되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충분한 수련생활을 통해 승려로서의 본분과 위의를 익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수행자 신분 못지않게 불자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초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체계적인 승가교육을 통해 배출된 스님들이 재가자들의 교육과 수행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행자교육원 학위제 도입"



박부권〈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행자교육은 스님이 되는 기초준비과정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스님이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수행을 연마하기에는 짧다는 생각이 든다.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불교지식뿐 아니라 인간적인 성품도 여러 각도에서 연마하고,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성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덕률을 갖추고 있는지, 어려운 수행과정을 견뎌낼 만한 의지와 결심이 확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자교육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행자교육기간을 2년~3년으로 정해서 행자교육과정을 전문학교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행자교육원을 졸업하면 학위를 주는 등 제도화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언

문중불교 조계종 망친다



이평래
충남대교수
철학

조계종의 장구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중불교의 인습을 척결해야 한다. 선종이 성립한 경로를 생각하여 보자. 西天28祖·東土6祖說을 말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선종의 정통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이 선종에서 법맥이란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순수 선종의 전통을 이어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그 순수성을 이어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조계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문중불교의 인습을 그대로 방치할 이유가 있을까?

문중불교에 대하여 선의의 경쟁을 운운하는 사문도 있지만, 그것이 조계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불제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총무원에 출가희망자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고, 그들을 일괄적으로 행자교육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통과한 행자에게만 사미(사미니)계를 수여하여, 100% 모두 중앙승가대학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한 사미(사미니)에게만 종정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구족계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종법에 따라서 강원·율원·선원·대학원 등에 배치하는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는 신문·라디오·TV 등에서 사문을 소개할 때 누구 앞으로 출가·득도 운운하는 기사는 싣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교TV 바라만 볼 것인가

목탁소리

임 연 태
〈취재1부 차장〉

95년 3월 세계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방송이란 자부심과 기대로 출범한 불교TV.

'부도위기 설'이 본격적으로 나돌고 있는 요즘의 불교TV는 주인이 누구인지 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고립돼 있다. 불자들은 주식공모를 외면하고 있고, 각 종단들도 지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조계종은 올해 예산에서 불교TV 지원금 항목마저 제외시켰다. 지난 해에는 9천만원으로 책정된 지원금을 끝내 내놓지 않았었다. 당시 불교TV 경영자와 총무원 사이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다. 불교방송(BBS)에 9천만원, 불교신문사에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배당한 조계종이 예산책정에서 불교TV를 제외시킨 데는 속사정이 있다.

'괘씸죄' 때문이다. 불교TV가 지난해 종단 분규 때 11월 11일 승려대회를 생중계하는 등 정화개혁회의를 일방적으로 지지한데 반해 제29대 총무원장 취임식은 단순보도로만 방송한 점 등이 그 내용이다. 예산을 다룬 조계종 138회 임시종회에서 어느 의원도 불교TV의 예산 제외를 거론하지 않은 점은 그 '괘씸죄'의 농도를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불교TV 경영진 스스로가 이제까지 적절한 운영을 못했고 회생의 묘안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깊이 뉘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뉘우침으로 해결될 상황을 넘어선 느낌이다. 그렇다고 불교TV가 쓰러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불교를 위한 불교인의 방송이기 때문이다. 회생의 묘안이 아쉬운 현시점에서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이 지원 예산 항목을 제의시킨 것이 불교TV를 더욱 가파른 내리막길로 내모는 '상징성'을 갖게 될까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ytlim@buddhapia.com)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신년맞이 큰 세일 4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돌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 내 최 고 다 섯 가 지 장 점 ……

♣ 온화한 온열감
- 34M 특수 카본열선에서 제공하는 찜질효과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 양질의 원적외선 방사
-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우수한 천연 맥반석만 사용합니다.
- 천연 맥반석을 무공해 돌침대 형태의 특수 코팅 공법으로 제조하여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하십시요.
- 원적외선은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유해 전자파 차단
- 100% 동성분의 동직물로 전자파를 차단하고 조절기로 전자파를 뽑아내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 부모님, 임산부, 아기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편안한 건강매트
- 국내에서 가장 크고 두텁게 제작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200×140×50, 2인용)
-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해 제품이 산뜻합니다.

♣ 경제성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신비의 약돌 맥반석을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가 매우적게 드는 경제적인 건강매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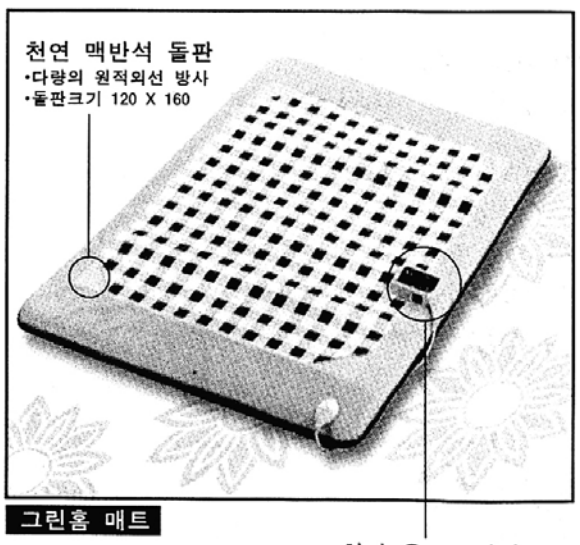
사찰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 (5장이상)을 받습니다.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 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구입문의: 몰.부다피아 쇼핑몰 02)732-1522
◐ 특판가격: ~~₩660,000~~
₩ 398,000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1년 TEL. 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매트
제조원 : (주) MCI



그린홈 매트

북한사찰 61곳 건축연구

국립문화재硏 '북한문화재해설집-사찰건축편'

사진-도면등 총망라…통일후 사찰복원 자료

북한 현존 사찰 61곳의 사진, 도면자료 및 상세한 해설을 덧붙인 총체적인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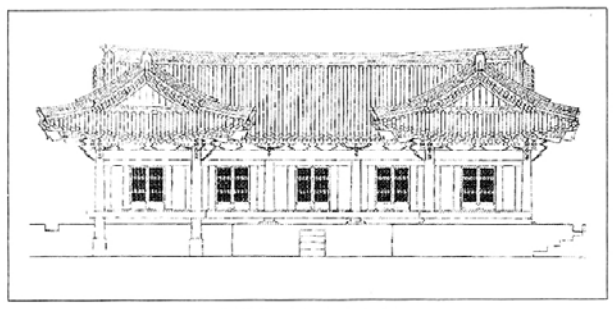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가 발간한 〈북한문화재해설집Ⅱ-사찰건축편〉은 북한 소재 사찰에 대한 해설, 관계문헌목록 외에도 생생한 칼라사진 2백매, 흑백사진 47매, 도면 1백65매 등 평소 접할 수 없는 자료를 총망라하고 있다. 해방후 50년동안 건축사연구에서 제외되었던 북한 사찰건축의 도면까지 실어 집중 분석하고 있는 이 해설집은 북한 사찰건축에 대한 기본자료로서 통일 후 사찰의 복원 고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올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한층 발간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평양 3곳, 개성 3곳, 황해남북도 10곳, 강원도 11곳, 평안남북도 21곳, 양강도 1곳, 함경남북도 12곳 등 총 61건 사찰 가운데 최초의 다포계 건물인 연탄 심원사 보광전, 성불사 응진전 등의 고려시대 건축물과 북한 최대 사찰인 묘향산 보현사, 구리기둥으로 축조한 금강산 보덕암, 자연 바위굴을 이용한 금강암굴, 독특한 육각형 평면의 금강산 정양사 약사전, 사공(斜拱)이란 특이한 공포형식을 가진 유일한 사찰 안국사 대웅보전 등 귀중한 건축물의 현존사례를 사진, 도면과 함께 해설해 놓았다. 성불사 극락전, 석왕사 호지문, 보현사 만세루 등 전쟁 중에 소실되거나 피해를 입은 많은 수의 사찰건물들은 당시 사진이나 도면을 현재 사진과 비교해 복구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설집 후반부에는 북한의 사찰 건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도 거론하고 있다. 남북간 건축용어의 이질화와 역사문화를 바라보는 북한의 국수주의적 시각, 종교적 의미를 삭제한 채 유원지·휴양지화한 사찰 보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남북 상호간의 문화유적 답사를 통한 문화교류 실시를 우선 제안하고 있다.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건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면 고유한 건축의 정체성을 밝혀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북한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책과 북한 지역 도시개발에 대비한 보호구역 설정·보존 실행계획 등도 통일을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평북 향산군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사찰 보현사 축성전.



◇보현사 축성전 정면도.

고은 하버드대 등서 3월부터 강의 시집 '머나먼 길'로 출국인사

'떠나는 시인-돌아오는 연어'



미국 하버드대와 버클리대 초빙교수로 3월부터 1년간 '한국시'를 강의하기 위해 1월 27일 출국한 고은 시인이 내놓고 간 시집 〈머나먼 길〉(문학사상사 刊)은 그의 행로를 상징하듯 새로운 이탈과 깨달음을 꿈꾼다.

〈머나먼 길〉에는 '백야1·2' '순애보1·2' 등 장시를 중심으로 모두 14편이 실렸다. 이 시들은 고은 시인이 94년부터 95년까지 14회에 걸쳐 '멀고 먼 길'이라는 제목으로 월간 문예지 〈문학사상〉에 연재했던 것을 일부 작품 내용을 바꿔 새로이 엮은 것이다.

고은 시인은 모천회귀(母川回歸)의 대명사인 연어를 통해 생성과 소멸을 역동적으로 펼쳐 보인다. 하지만 그의 연어는 모천회귀가 아니라 연어의 '회귀이탈'에 눈을 돌리고 있다. '회귀이탈'은 자아와 자유, 신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행위임을 말한다. 생명계의 거대한 운행에서부터 인간 삶의 존재와 역사성을 연기사상 속에서 찾는다.

'그것은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고/땅 위의 들꽃들과도 같다/절대로 혼자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그 고독이야 말로/수많은 존재 속에/나 자신을 일임한다.'

'민물에 접어들면/어떤 것도 먹지 않는다/그것이야 말로 삶이 아니라 죽음/그것이야말로 용기의 끝에 있는 처절한 체념/결코 패배가 아닌 완성/그것이야말로 기쁨보다 더 기쁨'이라고 시 '귀향'에서 노래한 고은. 자신의 미국행과 관련된 화두처럼 내놓은 〈머나먼 길〉을 보며 앞으로 1년동안의 미국생활이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또다른 완성을 독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고은 시인은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연구센터인 옌칭연구소 연구교수로 1년간 머물며 한국 시에 대해 특강을 한다. 특히 하버드대는 4월15일을 '고은 시인의 날'로 정해 고은 시 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버클리대에서는 초빙교수로 2월부터 8월까지 한학기 동안 한국 시를 강의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제3회 만해상 수상자

평 화 상-윤정옥교수
학 술 상-조동일교수
시문학상-정완영시인
포 교 상-우리는선우



◇윤정옥교수



◇조동일교수



◇정완영시인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인 남지심(오른쪽)·박광서씨.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명사랑 나라사랑 겨레사랑 평화사랑의 뜻을 기리기위해 제정한 만해상의 제3회 수상자가 발표했다.

만해상심사위원회(위원장 이수성)는 16일 만해 평화상에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겸 이화여대 교수, 학술상에 조동일 서울대 인문대 교수, 시문학상에 정완영 시조시인, 포교상에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 남지심)를 선정 발표했다.

윤정옥 교수(74)는 역사의 희생자인 종군위안부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 등 정신대해결을 위한 다각적 활동이 인류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조동일 교수는 〈한국문학통사〉 등 저작과 연구를 통해 한국학계의 최대 과제라 할 식민사관 극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민족주체사관을 확립, 이러한 업적이 문학사뿐 아니라 정신사·사상사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또 정완영 시인은 1960년 등단 이래 40년동안 민족문학의 정수라 할 시조창작에 있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 감각적 서정과 형식적 변용을 통해 시조의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했고 민중정신 탐구, 생명사랑과 인간애의 추구가 만해의 문학정신과 그 혈맥이 잇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선우'는 장기기증운동, 난민구호사업, 자비의등달기 운동 등 탁월한 포교활동과 함께 청소년과 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포교로 불교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월 26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갓바위 캐릭터 '갓방구'로 결정



◇등산로



◇매점·식당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캐릭터(본지 206호 9면 참조)의 이름이 '갓방구'로 결정됐다. 대구시 동구청은 최근 갓바위 캐릭터 작명위원회를 열고 작명 공모에 참가한 8백51명 중 1백98명이 제안한 갓방구를 캐릭터 이름으로 채택. 갓방구는 갓바위의 '갓'에 바위의 경상도 사투리인 '방구'를 붙인 것이다.

동구청은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의 갓방구를 관광안내책자와 팬시품, 양초, 열쇠고리, 의류, 문구, 인형 등으로 관광상품화해 판매수익금은 전액 실업대책·이웃돕기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올 4월 제1회 갓바위 관광축제 개최, 갓바위집단시설지구내 간판·안내판 제작 등 '갓방구'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펴기로 했다.

한편 동구청의 캐릭터 개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경산시측은 1월25일 특허청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지연 기자

황룡사지 전시관 3월중 발굴허가

분황사 동편 공터에 2002년까지 건립

전시실·영상세미나실·수장고등 계획

황룡사지 전시관이 전통을 가미한 현대식 건물로 건립된다. 전시관의 외형을 황룡사지 9층목탑을 본뜨겠다고 해 화제를 모았던 당초 계획은 고증이 어렵고 예산부담이 많아 취소됐다. 〈본지 133호 19면·160호 7면 참조〉

지난해 1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경주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황룡사지 전시관은 3월중 발굴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립부지는 황룡사지 남쪽 미탄사탑 일대에서 분황사 동편 공터로 변경된 상태이다.

대지 7천4백여평 연건평 1천평 규모로 지어지는 전시관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4만여점이 전시되는 전시실과 발굴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모형전시실, 영상세미나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 현장감을 살리고 교육효과를 높이는등 기존의 박물관과는 차별화를 기할 계획이다.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에는 올해 11억4천여만원이 배정됐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불전공화 무료강습

예담꽃꽂이 중앙회

불전에 올리는 꽃 공양은 그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 불전을 장엄할 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거룩한 공양이다. 꽃꽂이를 배워 꽃공양을 정성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담꽃꽂이중앙회(회장 조양자)는 각 사찰의 불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어하는 불자들에게 무료로 꽃꽂이를 가르친다. 강습은 3월 6일부터 12개월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월 말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02)595-335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국가만이 가지고 있던 행정명령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등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매장문화재 관리제도,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강화, 문화재매매업 허가 등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의하면 건물 신축 도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현재 대지 1백평, 건평 50평 규모까지만 지원되던 발굴비를 대지 1백50평, 건평 79평까지로 확대해 발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시 해당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무허가 매장문화재 발굴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였던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등 문화재사범에 대한 일련의 벌금을 모두 상향조정해 문화재사범의 단속을 강화했다.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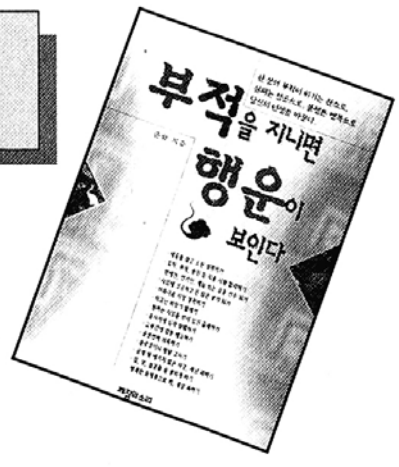


대원미디어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우: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시밀리(02)775-8043

부적을 지니면 행운이 보인다
운담 지음/ 값 9,500원

"원하는 부적을 오려서 지니세요."

찬장의 부적이
위기는 찬스로,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값 12,000원



生命工學과 符籍
Mantra and Yantra
생명공학과 부적
박지명 엮음/ 값 18,000원

도서출판 깨침의 소리 전화: 02)444-3575
총판 운주사 02)720-9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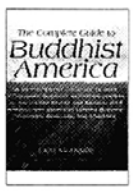
해외신간

침묵을 향해



"모든 수행자들이 찾는 수행의 한 방편인 침묵은 동네의 슈퍼마켓에도 있다." 〈침묵을 향해(Entering Stillness)〉는 미국인 여성불자 실비아 부르스타인이 98년도 여름 프랑스의 프럼빌리지에서 보낸 1개월간의 명상수행을 정리한 책. 부르스타인은 "다리를 모으고 명상하는 것과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중이라도 정념(正念)을 하는 것은 똑같은 수행이다"며 "우리의 정신이 정(正)과 혜(慧)로 깨어나 있다면 찰라의 순간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즈덤출판사 간행.

미국불교 안내



뉴욕 혹은 L.A. 미국 어느 도시를 방문해도 〈미국불교 안내〉만 있으며 사찰과 선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돈 모리얼과 조셉 골드스타인이 최근 발간한 이 책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개의 사찰과 선원 그리고 불교계 관련 단체들의 위치와 연혁, 종파등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다. 또 이 책은 미국내 사찰 및 단체 가운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선별, 웹주소·전자우편 등도 정리했다. 〈미국불교 안내〉는 현재 CD 타이틀로 제작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출시된다. 삼발라출판사 간행.

불자들이 불서 안 읽으니…

불서 출판규모 기독교에 비해 '10분의 1' 수준

출판사 60여개에 연간 약 2백50여종의 신간 발행. 종당 판매부수는 평균 3천여권에 연간 유통판매부수는 약 4백15만권. 그리고 시장규모는 연간 약 3백억원.

80년대부터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한 불교출판의 현주소다. 수치로만 보면 그럴듯한 규모다. 20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는 일각의 평가도 이런 단순 수치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기독교와 비교하면 불교출판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기독교의 경우 출판사 2백여개가 연간 1천7백여종의 신간을 발행한다. 종당 판매부수는 불교와 비슷한 3천여권이지만 연간 유통판매부수는 4천5백만권 정도로 추정된다. 시장규모 역시 최소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불교출판이 포교를 주 목적으로 하면서 정신문화 형성의 한 축을 맡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독교 대비 불교출판의 열세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가 곧 발간할 〈출판연구〉 제10호에 실릴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해 유교, 원불교 등 국내 종교의 출판현황에 대한 출판관계자와 학자의 기고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연간 신간발행비율만 보더라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쉽게 알 수 있다. 94~97년 4년간 종교부문 전체 신간 7천2백61종 중 불교는 8백97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기독교(천주교, 유태교 포함)는 6천1백79종으로 85.1%를 차지하고 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제외한 기타 비주류 종교의 신간 발행은 겨우 0.8%에 불과하다.

◇불교·기독교 출판현황 비교

구 분	불 교	기독교
출판사 수('98말 현재)	60개	200개
연간신간 발행 총수	250권	1700권
종당 평균 판매부수	3000권	3000권
연간 판매 부수	4백15만권	4천5백만권
연간 시장 규모	3백억원	3천억원

불교의 연간 시장규모가 기독교 서적 유통전문회사인 소밍배본의 1년 매출액 4백억원 보다 작은 것도 좋은 비교거리다. 또 불교서점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여시아문과 같은 서점이 기독교의 경우 서울에만 10개 이상이라는 점도 불교출판의 상대적 왜소함을 반증한다.

하지만 종교인구를 따져 본다면 불교와 기독교의 이같은 차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97년 통계청 집계자료를 볼 때 불교인구는 1천32만이고 개신교는 8백70만, 천주교는 2백95만 정도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치더라도 1천1백65만으로 불교와 별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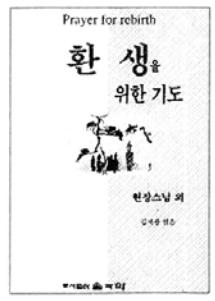
〈출판연구〉에 '불교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글을 기고한 민족사 윤재승 사장은 그 이유를 "불자들이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로 요약한다. 불경이나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읽는 빈도가 불자는 9%, 개신교인은 50.4%, 천주교인은 33.5%라는 97년 한국 갤럽의 조사연구는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교계 출판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스님들과 목사(신부)들의 차이'에 기인하는 면도 크다고 보고 있다.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책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반면, 스님들은 대체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종교출판은 곧 그 종교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독교와의 엄청난 차이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뤄온 불교의 약화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문화전쟁'의 시대라는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불교출판의 활성화는 심도깊게 논의돼야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환생을 위한 기도 | 현장스님 외 지음

죽음과 수행을 연결지어 놓은 책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환생을 위한 기도〉는 죽음과 수행을 연결지어 놓은 책이다.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명제를 제시해 놓았다. 그 근거는 인도 사람들이 인간의 나이 50을 '반프라스타'라고 하는데서 찾는다. '반프라스타'란 50이 되면 가업과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내세 준비와 진리 수행을 위해 출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적인 핵심은 바로 삶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마음을 닦아 구원과 해탈의 가르침에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회, 생명의 말씀-무량수경 등 9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돼 있다. 〈솔과학, 5천원〉

화제의 책

박물관 밖의 문화유산 산책 | 김영원 외 지음

학자 10명이 쓴 문화유산 입문서



20년 이상 박물관과 대학에서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 고고학자와 미술사학자 10인이 모여 만든 '우리 문화유산' 입문서. 우리 문화유산 전반을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우리 역사와 문화와 미술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어 개설서로도 손색이 없다.

이 책에는 불교 문화유산도 폭넓게 설명돼 있다. 불교회화를 비롯해 불상의 특징과 의미, 각종 사리장엄구, 석굴암, 각종 불탑 등의 역사적·미술사적 의의가 상세히 그려져 있다. 선사·고분·회화·불교회화·조각 문화유산은 1권에, 도자공예·금속공예·건축·석조미술·민속 문화유산은 2권에 실었다. 〈녹두, 각 권 8천원〉

"日 광륭사 고류지상은 83호 반가상의 아류작"

정예경씨 '반가사유상 연구'



석굴암 불상과 함께 한국 최고의 조각품으로 평가받는 국립박물관 소장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83호) 등 우리 반가사유상에 대한 연원과 특징을 세부적으로 밝힌 학술서가 나왔다.

정예경씨(동국대 강사)가 펴낸 〈반가사유상 연구〉는 우리 반가사유상의 독자적인 예술성과 함께 완성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던 일본 광륭사 소장 반가사유상(약칭 고류지상)이 83호 반가사유상 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저자의 견해도 담겨있다.

이 책은 우선 중국에서조차 미완성인 채로 쇠퇴해버린 반가사유상이 한국에 와서 완성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머리에 쓴 보관(寶冠)과 허리에서 늘어뜨리는 장식인 요패수식(腰佩垂飾), 신체표현등이 중국 등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음을 설명했다.

고류지상이 국보 83호 반가사유상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학설에 대해서는 몇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두 불상은 모두 7세기 후반에 제작됐지만 상·하반신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측면관이 부족한 것은 고류지상이 83호 반가사유상의 아류작임을 증명하는 예라고 주장했다. 또 83호 반가사유상이 신라시대(7세기 전반)에 만들어졌다는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통일신라시대 제작설을 내놓고 있다. 값 1만5천원.

한명우 기자

■정호승시인 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인'

'정신의 궁핍함' 깨우는 풍경소리



정호승 시인이 펴낸 〈연인〉(열림원 刊)은 우리들 가슴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는 진정한 사랑의 풍경소리를 찾아가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운주사 풍경으로 매달려 사는 삶과 현재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한 푸른툭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풍경이 비어(飛魚)가 되어 세상을 날아다니다 시련끝에 다시 풍경으로서의 삶과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다.

〈연인〉은 결 고운 서정성과 순수한 영혼의 울림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불교를 통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케 한다. 갓발이 움직이는 것인지 바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두 승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정작 다투는 승려들의 마음이라는 와불님의 가르침. '지금 당장 사랑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참쌀 봉어들이 주고 간 삶의 교훈. 푸른툭눈은 삶의 진실을 좇는 구도자에 가깝다.

정시인이 끄집어 낸 풍경소리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자각의 울림이다. 모자람 없는 것 같은 '궁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는 사랑의 노래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겨울 한가운데 걸린 풍경소리에 시린 걸음을 멈추게 하는 책이다. 값 7천원.

'산에는 꽃이 피네' 포켓용 미니북 나와

지난해 주요서점가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화제에 올랐던 법정스님의 〈산에는 꽃이 피네〉(동쪽나라 刊) 미니북이 나왔다.

처음 출간됐던 판형(국판변형 150×196)의 4분의 1크기(84×111)인 이 책은 활자를 작게 했을뿐 내용은 그대로다.

동쪽나라 김형균 대표는 "법정스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값싸고 읽기 편한 것을 선호하는 독자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미니북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값 3천원.

불교대사전-밀교사전 함께사면 할인판매

도서출판 홍법원(대표 김정길)은 6만5천 단어를 모아 범어 및 팔리어 등 원전을 인용 해석한 〈불교대사전〉(상·하)과 한국불교 최초의 〈밀교사전〉을 함께 구입하는 독자들에게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전에서는 원래 가격이 22만원인 〈불교대사전〉과 7만원인 〈밀교사전〉을 합쳐 정가보다 6만원 싼 23만원에 판매한다. 우편·전화로도 주문 가능하다. (02)734-7614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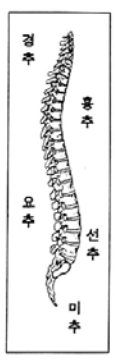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2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6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7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8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 사 성	장 승
9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 현 종	대원미디어
10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 도 원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활법 자격취득.창업.부업

◆ 특허컨등록획득 ◆
1. 활법을 이용한 척추지압업
2. 활법을 이용한 체육교정업
3. 활법을 이용한 자세교정업
4. 활법을 이용한 자연건강업
5. 활법을 이용한 체육교육업
6. 활법을 이용한 기공업
7. 활법원 경영업
8. 활법기술지도업
9. 활법원 체인점업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미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 교 육 안 내 ◆
교육기간:4박5일(매주월요일 오후 2시 시작, 금요일 정오 수료식),속성반:능력에 따라 단축 및 연장 가능
10주 코스반(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와 사진 10매

◆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 및 발관리센타를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자격증, 운동회복사 자격증, 기공사 자격증, 발관리사 자격증과 소지격증"을 부여

스님·포교원운영자·물리치료사·재여침구사·목사·대체의학연구자·발관리사·피부미용관리자

◆교 육 내 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태국, 일본식)
4. 카이로프락틱교육(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보건복지부 법인
사단법인 건강생활복지협회
특허등록 제49831호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 0571)855-6461/859-4156, 휴 : 011)522-1122
인터넷 : http://www.hwalbup.or.kr

불자님들의 법목으로 대용할
생활한복 전문매장 탄생



견지동 매장

취급품목
● 전문 생활한복 : 한마음, 장남주옷, 한맥, 베틀가, 청실한올, 인도깨비
● 승복 및 기타소품
● 우리옷소품 : 가방, 신발, 목도리
● 차, 다기, 향

♠사찰단체복 과 불교유치원 원복을 실용적인 가격으로 상담해드립니다.
♠한마음 불자 장애인 단체 법우님들의 목공예 소품과 가방, 천마재활원 불자님들의 도자기를 판매합니다.

◐한마음 본사직영
☎738-9585/6(견지동 제주은행옆)
◐상운중심 매장
☎739-1401/2(조계사 출구쪽)

전화: 921~8434 관음출판사 팩스: 929~3470

쉽기 쉬운 문장식
사주학 강의
절학박사 조성우 지음/ 값 12,000원
만유의 생멸성쇠가 자연법칙에 지배되지 않음이 없듯진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타고난 숙명 그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면 자신이 행해온 모든 것들이 운명이었느냐 잘 잘못에 의한 인과 였느냐를 가름하기 어렵다.

토정식 백과비결
新 토정비결
白 珖 지음/ 값 7,000원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지난 일년을 되돌아보고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각양각색의 삶을 영위하면서 지난 한 해를 절산해 보게 된다. 하지만 같은 일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감는 모두가 남다른 것이다.

비전 원본
그림 唐四柱大典
당사주란 중국에서 유래한 그림으로 사람의 일생을 초·중·말년으로 나누어 쉽게 개개인의 사주를 보는 법의 하나이다.
이선암·전호일 공저 B5/296면/ 값 18,000원

사주학 핵심비결
지금 이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이책을 펼쳐 보십시요. 당신의 미래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송월스님 著/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렸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부적을 집대성 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김백만 편저/A5신/양장본/값20,000원

古典 풍수학 섭심부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氣)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池靈)이라 하였다.
申 坪 지음/값 18,000원

·근 간 예단 명리진평, 명리학과 오운육기론은 곧 출간됩니다·

'세계정신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향해 구법(求法)의 길을 떠났던 혜초(慧超 · 704~787)스님.

'불교의 본고장' 인도를 두루 돌아보며 기록한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을 남김으로써 그 치열했던 구법정신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혜초스님이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돼 1300여 년만에 우리 곁에 왔다.

사실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되고 혜초스님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지는 불과 한 세기에 지나지 않는다. 1908년 중국 돈황 천불동(千佛洞)에서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후 비로소 세상에 그 존재를 나타낸 혜초스님은 특히 우리나라 기록 속에는 그 이름이 단 한번도 나온 일이 없을 만큼 관련 기록이 없다. 그런 점에서 문화관광부가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을 지정하여 기념하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혜초스님이 선정된 것은 뜻깊다. 〈왕오천축국전〉의 저자로만 알려져 있는 혜초스님은 어떤 인물인가 알아보자.

▲생애

신라 성덕왕 3년(704)에 태어난 혜초스님은 어린 시절에 출가하여 719년경 중국 유학에 올라 당나라 광주(廣州)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인도 승려 금강지(金剛智 · 671~741)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금강지는 제자 불공(不空 · 705~774)과 함께 중국 밀교의 초조(初祖)가 된 인물로, 당시 장안(長安) 등지에서 밀교를 가르쳤는데 그의 문하에 들어간 것이다.

혜초스님이 인도구법을 떠난 것은 대략 722년경으로, 〈왕오천축국전〉의 내용으로 보아 해로(海路)를 통해 갔다가 육로(陸路)로 돌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만 4년동안 인도를 여행하고, 중앙아시아 일대까지 약 8년등안 답사하였다. 그 후 장안으로 다시 돌아와 733년, 천복사(薦福寺)에서 도량을 열고 스승 금강지와 함께 밀교경전 〈천비천발대교왕경(千臂千鉢大敎王經)〉을 연구하였다. 금강지가 죽은 후 773년 가을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다시 역경을 시작했는데 이때 혜초스님은 불공으로부터 6대제자 가운데 제2인자로 유촉(遺囑)을 받아 금강지→불공→혜초로 이어지는 중국밀교의 법맥을 갖게된다. 혜초스님은 노년을 오대산 건원보리사(乾元普提寺)에서 보냈는데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787년에 입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혜초의 불교사적 위치

혜초스님은 구법여행의 완성자였을뿐 아니라 고행으로 대변되는 신라 구법승들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로, 무엇보다도 신라불교 사상 혜초스님의 위치는 그 밀교연구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밀교승려들의 법통에서 보면 금강지 · 불공과 관련을 맺은 신라인으로 혜통(惠通 · 생몰연대 미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혜통은 〈삼국유사〉에 그 이름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혜초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혜초의 밀교와 신라의 신인종(神印宗)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신라 신인종은 밀교의 주술을 국태민안(國泰民安) · 양재(攘災) · 호국 등 실제적이고 세속적인 면을 신비성으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혜초스님의 경우는 그런 현실적 기복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스승 금강지와 더불어 밀교의 경전을 연구하고 밀교의 정통성, 순수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본고장의 밀교를 통해 불교대중화를 시도한 인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밀교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왕오천축국전

〈왕오천축국전〉은 1908년 3월, 중국 돈황 천불동에서 프랑스 탐험가 펠리오(Pelliot)에 의해 발견됐다.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된 〈왕오천축국전〉은 제목 · 저자명 등이 전혀 없었으며 총 2백30줄로, 한 줄은 약 30자 내외 총 6천여 글자에 불과했다. 앞의 일부분과 뒷편의 약간 장이 결손 상태인 이 책은 원본을 줄여 쓴 약본(略本)이기 때문에 그 서술이 간략하다.

하지만 몇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먼저 8세기 인도의 정치 · 문화 · 경제 · 풍습 등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도기행이 해로와 육로가 같이 언급되고 있으며, 불교의 대승이나 소승이 각각 어느 정도 행하여지고 있는지, 또 음식 · 의상 · 산물 · 기후 등을 각 지방마다 기록하고 있어 사회상태에 대한 사료적 가치가 돋보인다.

〈왕오천축국전〉의 첫머리는 오천축(五天竺) 가운데 중천축(中天竺)을 시발로 하여 남천축→서천축→북천축 등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오천축'은 인도대륙을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나누고 거기에 가운데를 하나 더 첨가해서 '다섯'으로 표기한 것. 북천축 다음은 중국의 연변에 있는 쿠챠, 즉 안서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로의 여행기가 분명하다. 따라서 결손부분은 동천축(東天竺)이고, 동천축으로 들어갔다면 혜초스님이 중국 광주를 출발하여 인도로 들어간 경로는 해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왕오천축국전〉은 1909년 혜초의 저술로 밝혀진 이래 1928년 독일학자 월터 푹스(Walter Fuchsw)에 의해 최초의 독일어 번역이 나왔다. 1943년에는 최남선(崔南善)이 원문과 해제를 붙임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논문

혜초스님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인물에 대한 조명과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으로는 △혜초, 천축에의 발길(고병익 · 신구문화사, 1965) △왕오천축국전의 몇가지 문제(박기석 · 서울대, 1979) △혜초의 인도왕로에 대한 고찰(고병익 · 동국대 80주년 기념논총, 1987) △신라승 혜초에 대하여(김영태 · 가산학보3, 1994) 등 30여편과 일본에서 나온 논문 △혜초 〈왕오천축국전〉에 대해(高楠順次郎 · 동경 불서간행회, 1915) 등 4편이 있다. 단행본으로는 〈왕오천축국전 : 혜초기행문〉(양한승 · 통문관, 1961), 〈왕오천축국전 해제〉(고병익 · 문화공보부, 1987), 〈혜초왕오천축국전연구〉(桑山正進 · 교토대학, 1992) 등 5편이 나와있다.

▲기념행사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을 기념하는 음악제와 학술세미나가 27일 각각 열린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27일 오후 3시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을 주제로 △8세기 신라불교와 혜초(정병삼 · 숙명여대) △혜초의 구법여정과 왕오천축국전의 가치(김상영 · 중앙승가대) △입당구법승과 입축구법승(여성구 · 국사편찬위) 등이 발표된다. 이와함께 〈왕오천축국전〉 원문의 영인본과 활자본, 번역문, 연구문헌 목록 등을 수록한 자료집도 발간한다.

대한불교 진각종(통리원장 성초)과 본사가 공동주최하는 국악교성곡 '혜초'(장지현 시, 김희경 곡) 음악제가 27일 오후 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1908년 중국 돈황 천불동에서 발견된 〈왕오천축국전〉 현재 프랑스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구법여행의 완성자…중국밀교 법맥 계승
1908년 중국 돈황서 '왕오천축국전' 발견
27일 학술세미나-국악교성곡 음악제 열려



불교사상 가치-현대적 재해석 연구
경전을 중국어 · 영어로 데이터뱅크화

'99 전자불전회의가 열린 곳으로 국내 불교계에 처음 알려진 중앙연구소. 이 곳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을 방문하면 대만의 인문학과 과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중앙연구원에서 인문학분야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때 당연히 백미는 불교학이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시대에 불교가 도입된 이래 거의 2천년 동안 성장 ·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중국불교는 중국의 철학, 종교, 음운론, 문학, 천문학, 음악, 예술, 건축, 사회관습 등 모든 분야에 깊은 영향을 주어왔다. 또한 중국불교는 중국문화의 여러 부분과 폭넓은 교류를 통해 각 분야별 연구에 이점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대 불교학 연구는 서구와 일본의 학자들이 1백여년이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본토에서도 불교학 연구분야에 괄목할 만한 공헌을 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상당수의 불교학자들이 불교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있어 많은 공헌을 하지만 아직 학자들 상호간에 협조와 제휴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연구원(Academia Sinica)은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됐다.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의 협조와 제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교학의 통합적, 학제적 연구 풍토를 장려함은 물론, 불교학자들에게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불교 학술 정보의 교환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불교학자들을 서로 연결 시켜주는데 있는 것. 대학 안팎에서 불교사상의 가치, 역사적 발전, 특질,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 ·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중앙연구원의 주요 연구분야로서 학문적 부문은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이 있고, 데이터 수집분야로서는 ON-LINE상에서 중국어와 영어로 데이터 뱅크화 되어있는 불교경전의 목록을 작업화 하여 전세계의 불교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진행중에 있는 중앙연구원의 주요 활동으로서 연구 프로젝트 부분으로는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국립과학위원회 및 교육부, 사학재단 등에 적용 △정부나 기업 또는 승가로부터 수탁받은 프로젝트의 조사연구 활동 등이 있다.

그리고 국제 회의 개최 부분으로는 불교와 관련있는 사회이슈를 가지고 국제적인 규모의 불교학술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출판 부분으로는 진행중에 있는 국제회의 내용이나 불교학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인쇄 매체로 출판하는 것이다.

중앙연구원의 연구원은 불교학에 관심있는 대학의 교수진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의 학술적 연구 발전에 목적을 둔 중앙연구원은 철학, 역사, 중국문학과 인류학, 예술사 같은 학문분야에서 현재 연구중인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http://www.sinica.edu.tw/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학술단신

불전국역硏 수강생 모집

중앙승가대 부설 불전국역연구원(원장 혜남)은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사상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원전 해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역 및 산스크리트어 불전연구'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설강좌는 △화엄학 특강 〈화엄경현담〉 △유식학 연구 〈성유식론〉 △〈능엄경〉 연구 △산스크리트어 문법기초 등이다. 강의는 3월부터 매주 월~목요일이며 2년과정이다. 접수마감은 24일까지. (02)929-9991

'한국사연구휘보' 103호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원순)는 〈한국사연구휘보〉 제103호를 펴냈다.

△학회 · 연구소편 △저자편 △논문편 △사료편 △해외편 등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 외 학자들이 발표한 한국사 관련 학술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02)503-9544

러시아 종교협의체 생긴다

불교 · 정교회 · 유대교 · 이슬람교 참여

러시아에서 정교회,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4개 종교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러시아 종교위원회'(가칭)란 이름으로 구성될 이 종교협의체는 앞으로 러시아 정 ·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러시아 불교 포교의 약진이 기대된다.

정교회 모스크바 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협의체가 구소련시대부터 뿌리내린 러시아 주요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문제를 논의하고, 또 세계 종교단체들과 협의하면서 국제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종교는 지난해 말부터 지도자간 모임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4개 종교 지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정식으로 발족, 11월 구소련 붕괴 이후 최초의 대규모 종교간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종교협의체에 포함되지 못한 개신교 · 가톨릭계는 "협의체구성이 정교회와 갈등관계에 있는 여타 개신교와 가톨릭을 배제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포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일타 큰스님의 신간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범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 · 목욕 · 입측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I. 불자의 마음가짐과 언행 II. 합장법과 예배법
III. 사찰에서의 예절 IV. 법문 듣는 법
V. 절집안의 생활예절

4×6 판 / 3,500원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 · 제자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 판 / 3,5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부드러운 말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전하시는 큰스님의 법어집.

· 기도(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주변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강설집.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푼 해설집.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큰스님의 보살계 법문.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범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아함부 어디에도 선문답 없어

중·장아함경〈중〉

중아함은 220여개의 경이 모여 이루어진다. 잡아함이나 장아함에 비추어 경의 길이가 짧지도 길지도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잡아함 1362경이나 장아함 30경에 비해 220경이면 중간정도의 분량이다.

선정은 부처님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해진 수행방법이었기 때문에 아함경 전체가 선정을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함에서는, 후대의 종파적 선종사상과는 달리 행위 그 자체로 선정을 가르쳤다. 방법의 제시가 아닌 직접적인 처방이었다.

중아함의 모든 경전도, 경전의 끝 구절이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비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실천하였다"로 끝난다. 이 받들어 실천(奉行)하는 것이야말로, 불교가 이해의 종교에서 한발 나아가 실천의 구체적 종교로 발전해 간 역사의 원점이 된다.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자기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고통을 즉석에서 해결해야 했다. 이해하고 나서가 아니라 듣는 즉시 행동에 옮겨졌던 것이다. 이것이 아함부의 경전이 갖는 특색이다.

견성(見性), 대오(大悟)라든가 조사선, 여래선, 화두선 등의 추상적 개념에 익숙해진 사람은 팔정도나 팔미증유법 등이 훌륭한 선수행의 길잡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 든다.

"그 장자는 욕심이 적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장자는 믿음이 있다. 여래에 대해 굳센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 장자는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다. 스스로 부끄러워 할 때 부끄러워한다. 그 장자는 남부끄러움이 있다. 남부끄러워 해야할 때 남부끄러워

글쓴이



돈연
〈두타초암〉

경전 속의 禪 사상 5

중아함부 모든 경전 끝구절에 "비구들 부처님 말씀 받들어 실천"

한다. 그 장자는 정진을 한다. 그리하여 좋은 것들을 닦는다. 항상 스스로 한결같이 그러한 뜻을 일으킨다. 그 장자는 생각을 한다. 몸을 몸답게 관찰하고, 법을 법답게 깨닫도록 관찰한다. 그는 선정을 한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초월한 무소유의 깨끗함을 성취했다. 그 장자는 지혜가 있다. 지혜를 갈고 닦아 나고 없어지는 법을 관찰한다. 이처럼 성스런 슬기를 밝게 통달하여 환히 분별하고 바르게 고통을 없앤다."
〈중아함 제 41 수장자경〉

이 말씀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얘기지만 그 장자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불교도가 아니다. 그는 이교도이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부처님은 그의 훌륭한 점을 알았고, 적당한 기회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것이다. 이 여덟 가지의 법을 팔미증유법(八未曾有法)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관심사는 잘 정리된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었다. 그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가 쌓아올리는 바른 삶의 태도를 관찰하고 대화했다. 아함의 말씀들은 그러한 기록의 모음이다.

왜 선정을 해야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여러 가지 쉽고 자세한 비유를 들고 있다.

"늦은 봄 모두가 밭에 씨뿌릴 때는 소를 놓아먹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씨뿌린 밭에 소가 들어가면 소치는 아이가 막대를 들고 못 들어가게 막는다. 왜냐하면 소치는 아이는 반드시 꾸중을 듣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치는 아이는 막대를 들고 가서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다."
〈중아함 제 589경: 소치는 비유〉

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어려움에 대해, 마치 식량을 준비하듯, 정신적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떤것이 부처입니까"
"똥 막대기 니라"
"달마는 왜 서쪽에서 왔습니까?"
"한입에 서쪽 강물을 마셔라"

이른바 선문답 형식은 아함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느낌을 솔직히 표현했고, 듣는 이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했다. 물론 경전이 다 일목요연하고 쉽게 설명된 것은 아니다. 부파의 특성대로 여기 보태고 저기 꿰매어져 도저히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곳도 있다. 그러나 선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영향받기 위해서 아함의 중요성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수행의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과정을 생략하고 성취한 결과는 결국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선수행이 갖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견성'이라는 결과에 너무 집착해 왔기 때문이다. 언어는 물론 침묵이든 가르침이든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그러나 길에 표지판이 없다면 결국 누군가는 헤매이고 만다. 처음에는 하나 둘이 헤매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전체가 헤매이고 만다.

소박한 모습으로 길 위에 자신을 던지고, 하나하나 의문을 해결하여 결국 큰 일을 이루어낸 부처님의 간결한 수행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아함의 가르침들은 커다란 길잡이 그 자체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4

믿음 ③

믿음의 4가지 항목, 지성·감정·사회·덕 등은 수행에 의해서 강화되고 증진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업과 윤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업과 윤회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적인 법칙도 있지만, 선한 행위는 보상받고 악한 행위는 벌을 받는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도덕적인 법칙이 있다.

업과 윤회는 바로 도덕적인 법칙에 따라 모든 원인은 죽음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다른 생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이 그럴듯 하든지 아니든지는 자기 자신과 남들의 전생들을 기억해 내는 신통을 얻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신통이 없이는 윤회가 사실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윤회를 믿는다는 것은 대부분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윤회의 믿음은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기 보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대담하고 용기있는 행동에 의해서 유지된다.

삶은 어디에서도 완전한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는 군인은 그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며 영혼을 구제하는 일에 종사하는 정신적인 사람은 그 자신의 영혼을 걸어야 한다.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종사하는 상인은 그의 재산을 걸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대담함과 훌륭한 유머가 사라지지 않기를 희망해야 한다. 선택은 의심을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르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 자신의 불완전과 진리와의 사이에서 오는 거리감을 비난한다.

믿음은 논리보다 행동으로 유지 지혜 뒷받침 안되면 맹신될 수도

만일 단 한달전의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찌 전생을 기억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의심들은 논쟁에 의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순화시킴으로써 의심이 풀리는 것이다.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지혜로 단련되지 않은 지나친 믿음은 단순한 맹신이 되기 쉽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 뿐이다.

믿음과 수행이 지나칠 때 지혜와 선정의 힘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마음챙김, 정념(正念)의 덕은 억제될 필요가 없다. 마음챙김은 어디에서나 강해야 한다.

믿음, 정진, 지혜는 우리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마음챙김은 우리의 마음이 흥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선정은 게으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챙김은 우리의 마음이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모든 반찬에는 소금이 조미료가 되고 모든 국가 행정에는 대통령이 참가하듯이, 마음챙김은 어디에나 필요한 것이다.

부처님도 "마음챙김은 어디에서나 유용하다"며 "왜냐하면 마음은 정념을 귀의처로 생각하고 정념은 마음의 보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념이 없다면 믿음을 발휘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다"고 가르쳤다.

여타의 종교적인 수행과 철학적 체계들에도 마음챙김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챙김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교 뿐이다. 불교와 여타의 모든 사고 체계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챙김'이다.

번역=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생명탄생의 시나리오 ①

■ 화학진화설

지구의 나이는 46억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갓 태어난 지구는 운석의 충돌에너지에 의하여 뜨겁게 녹은 마그마로 덮여 있었다. 그 후 마그마는 조금씩 식고 지각이 형성되어 갔다. 생명은 적어도 지각이 형성된 다음에 태어났다고 생각된다.

지구상에서의 생명의 기원은 적어도 38억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생명의 탄생은 지각이 형성된 43억년 이후 38억년 이전 사이로 볼 수 있다.

생명 탄생이래 40억년 등안 끊기지 않고 지구상에서 생명작용이 유지되어 온 요인으로는 대사와 자기 복제 작용을 들수 있다. 그들을 담당하는 유기 고분자 단백질과 학산은 모든 생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원시 대기중이나 바닷속에서 우선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성된 과정, 다음에 이들 유기물이 고분자로 중합한 과정, 더욱이 이들 고분자를 포함하는 막으로 된 외벽을 가진 소구(小球)가 형성된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은 화학 물질 수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학진화'라 불리고 있다.

화학 진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컨대 RNA(리보핵산)와 DNA(디옥시리보핵산)가 생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폴리펩티드(polypeptide), 즉 단백질도 아마노산이 이어짐으로써 생성되었다. 최근 RNA가 자기 복제만이 아니라 폴리펩티드의 합성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고, RNA 월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분자가 물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분자끼리 서로 만날 확률이 적지만, 막으로 둘러싸인 용액 속에서는 만날 일이 많아진다. 또 막의 구멍을 통하여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배출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물질이 몇 번이고 만들어졌다가는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작용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남아 생명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원시지구 유기물 생명형성 바탕
자기복제 하는 RNA서 진화시작

무기물 → 유기물 → 고분자 → 小球

다양한 시뮬레이션 실험이 실시돼 왔다. 여러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 원시 지구상에서는 유기물이 생성되고, 그들이 바닷속으로 녹아들어 갔다고 생각되고 있다.

유기물이 녹아들어간 바다에서는 아데닌과 리보오스가 결합하여 뉴클레오시드(nucleoside)가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인산이 결합하여 뉴클레오티드(nucleotid)가 생성되고, 더 나아가 이들 뉴클레오티드가 이어져서 폴리뉴클레오티드, 원시 지구에서 자연히 생성된 유기화합물이 목숨이 있는 생명체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자기 복제를 하여 자손을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다. 이 최초의 자기 복제기구를 추정하려면 현존하는 모든 생물이 지금도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유전정보 번역의 메커니즘이 힌트가 된다. 즉 생체 내에서 유전정보는 DNA에 보존되고, 생체 반응은 모든 단백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공통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여기서 큰 패러독스(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단백질 합성에는 DNA가 필요하지만, 그 DNA 복제는 단백질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이 역설을 푸는 것은 원시 생명체에 있어서 DNA와 단백질의 어느 쪽이 먼저 출현했느냐 하는, 예컨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이 답으로서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것이 생명은 자기 복제를 할 수 있는 RNA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RNA 월드(world)가설'이다. 1980년대에 간단한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RNA가 생체 내에서 실제로 발견되어, 이 가설은 점점 진실성을 띄게 되었다.

RNA 월드가 성립된 다음 무기적으로 합성되어 원시지구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RNA가 나타나고, RNA와 단백질의 공생 시대(RNA-단백질 월드)를 맞이하였다. 마침내 RNA를 거푸집(주형)으로 하여 DNA를 합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RNA는 촉매기능의 대부분을 보다 높은 활성의 단백질에, 유전 정보와 보존 능력을 보다 화학적으로 안정된 DNA에 넘겨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후 수십억년의 세월을 거쳐 유전 암호가 정비되고, 이 규칙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시스템이 성립하고, DNA에 유전 정보를 보존하는 현재의 생물 세계 즉 'DNA 월드'로 발전해 나갔을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 있는 화석의 하나로서 현재의 단백질 생합성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내 소과립인 리보솜(ribosome)을 들 수 있다. 리보솜은 단백질과 RNA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를 통하여 단백질 합성의 주요한 촉매 기능, 즉 펩티드 결합을 생성하는 작용은 RNA 성분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계속〉

월간 〈과학 Newton〉서 발췌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참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겨울 선 수련회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장소 :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 2만원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3차	2월13일(토)~1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4차	2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5차	3월 6일(토)~ 7일(일)	길상사거사림회원	2만원
제6차	3월13일(토)~14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7차	3월27일(토)~28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일요일 오후 8시 회향)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 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레이키 (REIKI)법 전수

레이키(REIKI)법은 장구한 세월 기공수련을 해야 가능했던 氣치료능력, 생활 속에서의 氣이용능력을 단시일내에 발휘하게 해주는 비법입니다.

레이키(REIKI)법은 개발자인 우스이 미카오선생으로부터 이어지는 계통적 인정증을 가지고 있는 유자격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어튠먼트〉를 받기만 하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치료능력, 氣이용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자비(사랑)의 도구입니다.

근세 일본의 도통자 우스이 미카오선생에 의해서 발견되고 개발된 이 비법은 미국으로 전승된 후 급속하게 과학화, 대중화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세계의 의료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착실하게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박희준)는 일본의 「REIKI ONE 힐링협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神傳 레이키의 우에노선생, 오스트랄리아계의 팀 버든 선생, 영국계의 미키 트리스 선생에게서 일본 고유의 전통적 속효성 레이키법, 표준화된 서양식 레이키법, 그리고 1995년에 새로이 등장한 카루나 레이키법(정신면에 더욱 높은 치료효과를 가진)을 전수받고 온 레이키법 전문 지도자인 레이키마스터 & 티쳐입니다. 나는 지금이와 같은 다채로운 전수능력과 교육능력을 바탕삼고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더욱 확실하게 레이키법을 전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레이키 전수의 소요일수
재 1단계2일, 제2+제3단계2일,특별임상응용단계2일
■ 무료 재학습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레이키요법(氣치료)의 유효 분야
레이키요법은 250가지 이상의 중요한 질병에 유효하게 작용하며 가벼운 질환들에 대하여는 즉효성의 효과도 발휘합니다. 시공을 초월해 원격치료를 할 수 있고 집단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 레이키요법의 응용분야
생활의 광범위한 방면에 氣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 일본 「REIKI ONE 힐링 협회 한국연락소 -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 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 · 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 · 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여기가 불국토…환희심 절로"

동국대 대각전

사천왕상 새겨진 유리문 지나
신 벗고 구품연지·불이문 건너
문수전과 보현전에 들어서면
수많은 부처님 환영의 미소

"도심포교당 공간조형의 모델"
건축상·디자인상등 잇달아 수상

"현대 정신으로 해석한 전통미의 극치."
"도심 포교당 공간조형의 모델."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문화관에 지어진 대각전에 대한 평가다.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은 법당 대각전. 대각전은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주최 '올해의 작품상'과 월간 〈디자인〉 제정 '올해의 디자인상', 월간 〈인테리어〉제정 '제2회 명가명인상'을 수상하는 등 공인을 받았다. '전통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현대적 편리성을 최대한 살린 내부건축이 우수하다. 단청색을 주로 한 색배합과 전통목재와 빛을 증폭투과시키는 유리를 적절히 사용해 모던(moden)한 감각이 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전통을 창조해낸 곳이라는 한결같은 심사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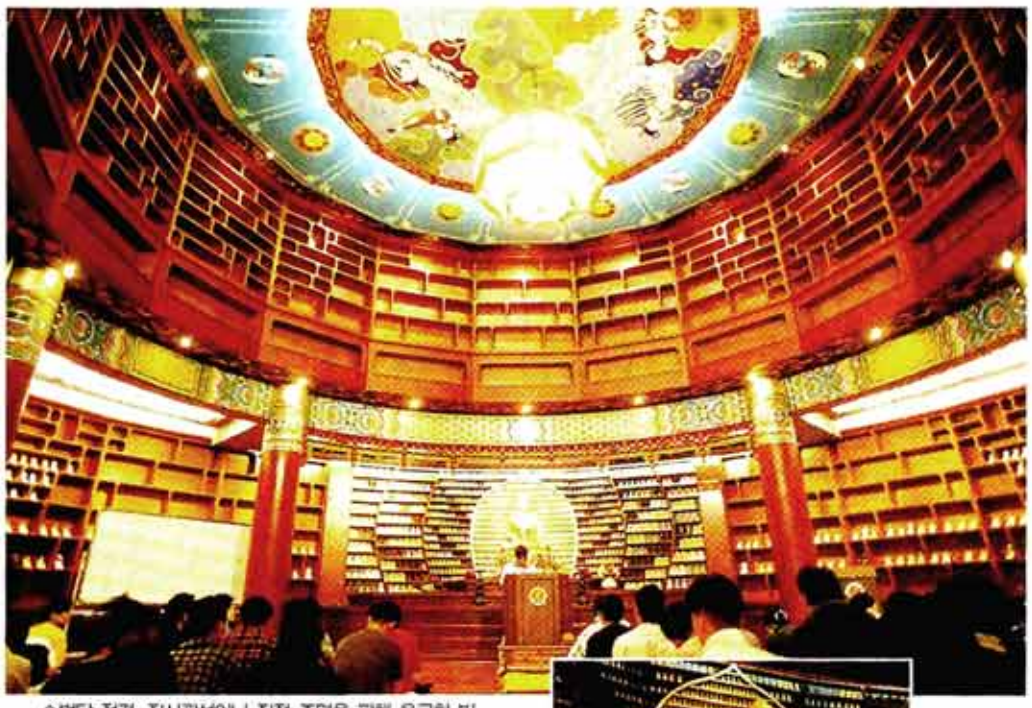
건축전문가들이 대각전을 이토록 극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짜임새 있는 조형미와 법당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살린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도 실제 대각전을 들어가 보기전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97년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건축담당 이도건축) 대각전은 장충단 공원과 경계를 이루는 숲속에 자리한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 입구 좌우 원형계단을 통해 출입하도록 돼 있다. 입구에서부터 발 닿는 곳, 눈길 닿는 곳 모두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법당으로서의 대각전이 갖는 감동이자 특징이다.

대각전은 기존의 법당들과는 달리 전통사찰의 일주문, 사천왕문, 해탈문을 수직적으로 재해석해 설계됐다. 다시말해 대각전은 90주년 기념문화관 상층 2개층을 수직적으로 분할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부터 일주문, 사천왕문을 지나 위층 광천장 열반의 세계로 들어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세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영역은 일체로서 다시 통합되는 상징적 구조를 띠는데 불교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술극장 현관문을 지나 강당, 로비를 통해 계단을 올라가면 사천왕상이 새겨진 유리문을 만나게 된다. 사천왕문인 셈이다. 이 사천왕문을 지나면 신을 벗고 구품연지(九品蓮池)를 건넌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번뇌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지를 건너 불이문까지는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도록 돼 있다. 연지 건너 6개의 기둥은 6바라밀을 상징하고 있다.

불이문을 지나 법당이 있는 일곽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쌍견화교로서 딛고 올라가는 층층마다 수직면에 연꽃이 새겨져 있어 마치 천장의 연꽃 광천장에서 내려온 연의 꽃비를 사뿐사뿐 밟고 극락세계로 올라가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법당 전경. 직사광선이나 직접 조명을 피해 은근한 빛이 법당 전체를 감싸도록 설계됐다.


◇불이문을 지나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층층마다 수직면에 연꽃을 새겨 놓았다.

법당 입구 문수전과 보현전에 이르면 수미산의 정상에 올라온 환희와 함께 구도자에게 법당에 들어가기 전 모든 괴로움과 헛된 생각을 다시 한번 비우게 한다.

법당은 예술극장 둥근 돔형의 석조건물에 있었던 기존의 천장을 헐어 보를 노출, 중앙의 높은 공간을 그대로 보이게 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존불 앞쪽으로는 여덟개의 기둥이 공간을 중첩시키는 듯 하지만 오히려 끝이 없는 세계를 투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간확장을 꾀하고 있어 특이하다. 부처님 뒤로는 전 인류의 인종색을 상징화한 청, 황, 적, 백, 주황색의 사선들이 부처님 광배의 빛이 퍼지는 형상으로 설계돼 있다. 이는 수없이 많은 작은 부처가 모여 본존불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또 기존의 원형 돔형의 건물모양을 되살려 배치한 크기와 모양, 색상 등 56종류의 불상 만불은 본존불을 수호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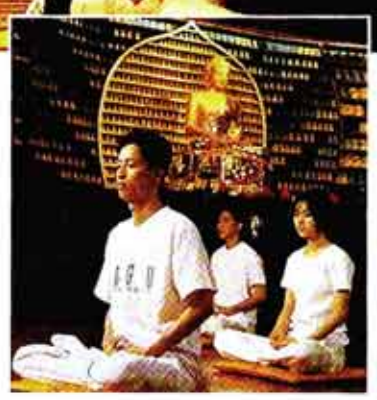
학기중은 물론 방학동안에도 늘 문이 열려있는 대각전 법당은 일만 부처님의 상주처로 조성되고 있다. 만불전에는 현재 2천3백여 부처님이 모셔졌다. 불사비는 동국대 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학교는 본존불에 학교관련 각종 현황자료와 기념물들을 복장, 개교 200주년이 되는 2106년에 개봉할 계획이다. 복장물에는 동국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이스턴와싱턴대, 뉴욕주립대 등 세계 20개 대학 총장들이 직접 사경한 반야심경도 있어 관심을 끈다.

대각전은 '대중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도량'으로서 보다 '대중 속에서 함께하는 도량'으로서 수백년 세월에 걸쳐 후세에 계승될 전통사찰로 기대를 모은다. 학생들은 "대각전은 정각원 법당에 비해 덜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정각원이 고찰의 향기를 풍긴다면 대각전은 신세대적 감각을 갖는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들의 감성에 맞는 법당이 더 매력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각전은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현재의 사찰건축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통건축의 복제나 어설픈 모방에서 과감히 탈피해 '현대 도심포교당의 공간조형 모델'이 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 동국대 학생들은 대각전에서 1주일에 한시간씩 '자이외 명상' 시간을 갖는다.


◇예술극장 좌우의 원형계단을 통해 출입하도록 돼 있는 대각전 입구.


◇90주년 기념문화관 전경. 대각전은 문화관 상층에 2개층으로 조성됐다.

동국대 100주년 사업본부장 인터뷰

"법당과 교육기능 조화"
보광스님



"대각전은 이사장님의 관심과 매주 1회 1년간의 스터디를 함께 해온 불교학자, 조각가, 건축가, 불교미술가, 공예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뤄낸 불사입니다."

대각전 건축불사를 지휘 감독했던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보광스님은 "대각전은 신앙의 장인 동시에 동국대학교 교육지표인 '참사람'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임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문화적 이질감이나 거부감없이 이 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당 전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장엄한 것도 법당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동국대학교는 '자아와 명상'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고 대각전에서 일주일에 한시간씩 1년동안 32시간의 참선을 실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광스님은 "관계자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시대의 문화재를 만든다는 의지로 불사에 임했다"며 "대각전은 한국건축문화사에 이 시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 낸 곳으로 기억될 것"이라 말했다.

대각전 조성 동참자들

건축 미술 조각 불교학 공예 등 국내 내로라하는 명인 '합작품'

대각전은 건축, 미술, 조각, 불교학, 공예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불교적 사상과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며 대각전 건축불사를 지휘했던 보광스님을 중심으로 본존불을 조성한 김영중 조각가, 단청과 소불을 조형한 손연칠교수, 대각전을 설계한 이도건축 대표 김개천 사장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냈다.

본존불을 조성한 조각가 김영중씨, 70대 원로작가 김씨는 "불상의 조형은 법당의 조형적 요소, 즉 건축적·회화적·공예적 요소들과 어울려 상호 조화를 이뤄야 시각적으로 안정된다. 따라서 대각전 본존불은 지나친 현대화를 피하고 전통불상 조성기법에 약간 변화를 주는 정도로 조성했다"고 전제하고 "안면의 감정표출을 고려한 점은 부처상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교정의 부처님 성상은 30대 초반의 김씨 작품.

또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손연칠 교수는 "문밖의 속세와는 다른 종교적 신비감과 심원한 부처의 세계를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장엄하면서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절제된 단청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손교수는 또 "불교적 문양과 소재로 타종교인들이 거부감없이 법당에 들어와서 즐거움과 환희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와 색상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도건축 김개천씨는 "현재 도시 한가운데 지어진 사찰을 보면 3~4층의 화강석 박스건물 위에 지붕층을 기와로 덮어 전통불교건축인양 흉내내고 있는게 대부분이다"며 "어설픈 전통건축의 흉내내기는 기존의 전통건축과 문화의 과괴행위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그런 의미에서 대각전 건축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전통을 창조해내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극한 상황 지극하고 간절한 기도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㉕ 폭풍속 기도


◇ '폭풍속의 기도', 내원암 벽화.

일반 사람들은 물론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라도 평소에는 기도에 무관심하거나, 하더라도 습관처럼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모님, 자식이 아프다거나 실직, 입시 등 급박한 사정에 맞닥뜨리게 되면, 또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기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기도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지극하고도 간절하게 해야한다. 기도삼매에 들어 간절해지면 반드시 불보살의 가피력을 입게된다.

망망대해에 폭풍우가 크게 인다. 일엽편주 배는 기우뚱 기우뚱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만 같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폭풍우가 잠잠해지길 간절하게 기도 올린다. 이 두 그림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린 작품들이다.

왼쪽 그림은 '아무리 심한 폭풍우를 만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염불의 힘으로 곧 폭풍이 가라앉고 모두 무사하다'는 〈관음경〉의 내용을 그린 내원암 벽화이다. 오른쪽 그림은 배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한 사도가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폭풍우를 멈추게 해주고 배를 안전하게 호위해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미니아튀르 화기의 '폭풍속의 아이네이아스의 배', 5세기경. 바티칸미술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⑥

4. 진심의 신묘한 작용(眞心妙用)

或曰 妙體已知 何名妙用耶
혹왈 묘체이지 하명묘용야
曰古人云 風動心搖樹
왈고인운 풍동심요수
雲生性起塵 若明今日事
운생성기진 약명금일사
味却本來人 乃妙體起用也
매각본래인 내묘체기용야
眞心妙體 本來不動 安靜眞常
진심묘체 본래부동 안정진상
眞常體上 妙用現前
진상체상 묘용현전
不防隨流得妙 故祖師頌云
불방수류득묘 고조사송운
心隨萬境轉 轉處實能幽
심수만경전 전처실능유
隨流認得性 無喜亦無憂
수류인득성 무희역무우

물었다. "신묘한 본체에 대해서는 이미 알았지만 신묘한 작용이란 무엇인가?"

대답했다. "옛사람의 시에 '바람이 움직이니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구름이 일어나니 성품에 티끌 일어나네/만약 오늘의 일을 밝히면/본래의 사람을 모르게 된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신묘한 본체가 작용을 일으킴을 말한 것이다.

진심의 신묘한 본체는 본래 움직이지 않아 평안하고 고요하며, 진실하고 한결같다. 이 진실하고 한결같은 본체에서 신묘한 작용이 나타나 흐름을 따라 신묘함을 얻는데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사의 게송에서도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굴러가지만
굴러가는 곳마다 실로 신비롭다
흐름을 따라서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또한 근심도 없다

하였다.

故一切時中 動用施爲 東行西往
고일체시중 동용시위 동행서왕
喫飯着衣 拈匙弄箸
끽반착의 염시롱저
左顧右盼 皆是眞心妙用現前
좌고우반 개시진심묘용현전
凡夫迷倒 於着衣時 只作着衣會
범부미도 어착의시 지작착의회
喫飯時 只作喫飯會 一切事業
끽반시 지작끽반회 일체사업
但隨相轉 所以在日用而不覺
단수상전 소이재일용이불각
在目前而不知 若是識性底人
재목전이부지 약시식성저인
動用施爲 不曾昧却
동용시위 부증매각

그러므로 날마다 행동하고, 사용하고, 베풀고, 영위하는 일에 우매하지는 않을 것이다.

故祖師云 在胎名神 處世名人
고조사운 재태명신 처세명인
在眼覩照 在耳聽聞 在鼻嗅香
재안관조 재이청문 재비후향
在口談論 在手執捉 在足運奔
재구담론 재수집착 재족운망
徧現俱該法界 收攝在一微塵
편현구해법계 수섭재일미진
知之者 爲是佛性 不識者 喚作精魂
지지자 위시불성 불식지 환작정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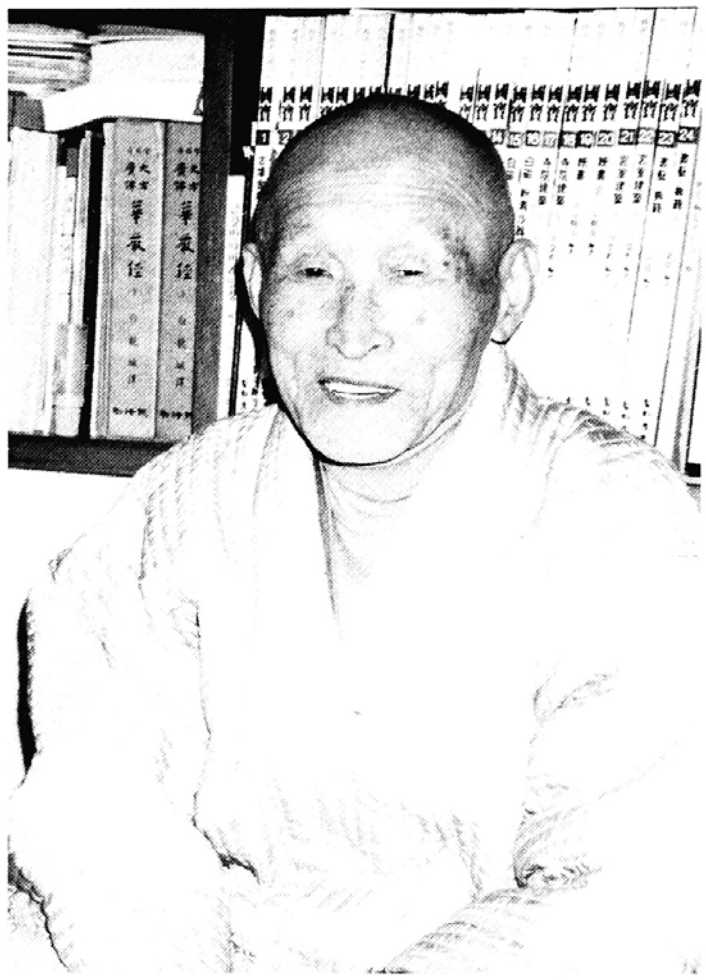
그러므로 조사는 이렇게 말했다. '태(胎) 안에 있을 때는 신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으면 보게 되고, 귀에 있으면 듣게 되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게 되고, 입에 있으면 담론을 하게 되고, 손에서는 물건을 잡고, 발에 있을 때는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두루 널리 나타날 때는 법계를 모두 감싸며, 거두어 들이면 한 티끌 속에 있다. 이 이치를 아는 자는 그것이 곧 불성이 되고, 모르는 자는 정혼이라 부른다' 하였다.

김원각〈시인〉

큰스님 수행한담

"참회하는 마음이

금암스님 〈前 법륜종 종정〉



악 · 1915년 대전 生
· 30년 공주 동학사로 출가
· 36년 동학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 졸업
· 38년 완주 위봉사 연합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수료
· 42년 영월 보덕사 포교사
· 46~47년 공주 동학사 주지
· 70년 대전 보광사 창건, 헌재 주석
· 83~85년 태고종 충남교구 종무원장
· 88~95년 법륜종 창종, 초대 종정 취임
력

"願은 바로 희망입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일심발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요즈음 부쩍 세상사람들조차 불교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불자들 사이에서는 바람직한 운용을 두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무소유가 수행자의 근본이라, 사실 불교재산은 세속적 재산과는 달리 선대 스님들로부터 지켜져 내려온 수행공간인 도량과 성보 문화재 등으로 삼보정재입니다. 그 자체로 귀의처가 되고 물질로만 견줄 수 없는 진실로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70년 가까이 출가 수행자로 살면서 전통사찰도 그렇고 사설사암들도 마찬가지인데 삼보정재라는 근본을 망각하고 절을 망가뜨리는 일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실로 뼈아프게 느끼는 일입니다. 특히 종단에 등록도 되지 않은 사설사암들은 더욱 심하고 종단등록된 절들도 세간법으로 이리 끼어 맞추고 저리 끼어 맞추다 보면 어느새 불교재산이 아닌 것으로 돌변해 삼보정재가 유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 재산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주 대중이 알아야 하지 우물쭈물 봉창에 넣는 일은 안됩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아픈 일입니다. 나는 부처님 정재 늘리는 일은 못해도 없애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결의를 수도 없이 한 사람입니다. 시줏물로 살면서 도를 깨치는 일도 내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정재유실 만큼은 도저히 관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님네들이 내 생각에 공감해 주기를 바랐고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10년전 그런 뜻들이 모여져 만든 것이 한국불교 법륜종입니다. 우선 법륜종도들만이라도 철저하게 재단법인을 단들어 삼보정재를 잘 지키자는 발원을 담았어요. 정재를 온전히 보전할 방안들을 찾는데 노력해주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종단들마다 크든 작든 재단법인을 만들어 재산을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릴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기실 나름대로 잘해보자고 애썼다면 애쓴 일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부처님 뜻에 콧미치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것은 종단을 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원효스님의 통불교 정신이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모두가 일불제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대에 종단이 우후죽순 헤아리기조차 어렵게 많이 생기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도 88년에 신생종단을 만든 장본인의 하나이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엄연한 진심입니다. 또 사람은 지조있게 살아야지 철새처럼 몰려 떠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는 재단법인체로 종단을 만드는데 일조한 이후에는 그저 단속이나 잘하자고 목적하며 살아왔습니다. 대중적이나 사회적인 일에 앞서지 않고 묵묵히 이 자리에서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날이 다가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소망하는 것을 잘 헤아려 보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나와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스님이나 속인이나 원(願)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불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부합되거든요. 그러니 새해를 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은 불자의 자세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참된 나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지닌 불성을 관찰하고 드러나도록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자꾸자꾸 녹여내십시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물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통해서는 최소한으로 보고 마음의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구조적으로 밖으로 비쳐지는 형상을 보게되어 있는지라 자기 자신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망막에 비쳐지는 것보다 훨씬 고감도이고 고성능인 마음의 눈은 결국 자신의 부족하고 모순된 부분들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가장 좋은 수행법인 참회를 하게됩니다. 참회로 닦여진 그 심성이 바로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참회하는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은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富)와 귀(貴),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은 자신은 물론 남까지도 해칩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욕심이 자리잡았던 그 자리에 원래 우리들이 지니고 있었던 맑은 본성 부처가 고개를 쑥 내밀수 있습니다.

우스개소리 할까요.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귀담아 들으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께요. 돈에 대한 욕심을 없애면 돈이 생깁니다. 원리가 그래요.

돈을 벌면서도 마음가짐을 '아이구 좋아라' 하면 안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생각하란 말입니다. 거창한 것같지만 그속에 길이 있거든요. 국밥을 팔면서도 '이 음식으로 내 이웃이 맛있게 잘 먹으니 좋다' 하는 마음이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재료를 덜 쓰고 해서 원료를 아끼겠다' 고 하는 식이면 점차 손님이 줍니다. 결국 그런 국밥집은 문을 닫게되는 것이고 돈이 벌릴 수가 없지요.

부처님 가르침으로 직접 대고 말하면 6바라밀이 그것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을 실천해 보세요.

禪房建立 募緣文

선방의 기본인 원융산림이 되어야 수도에 전념할 수 있다고 고인들은 말씀해 왔었습니다.
저는 제방에서 수도를 전념해왔고, 부처님의 원융산림에의 실천으로 상좌를 두지 않고 오직 수행인과 같이 고행 정진 할 것입니다.
초현대식 연면적 600평의 선방으로 건립중인데 현재 60%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때라서, 불사건축에 무척 어렵습니다.
부담없는 정성으로 동참하시는 불자님들은 성불의 성연이 되오니 많은 인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큰스님께서 소장하신 부처님사리를 간절히 기증 비랍니다.

▶ 국민은행: 036-24-0135-189
김선규(오본) 보덕사 주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동 824-1호 T.914-4235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보덕사
주지 悟本 (김선규)합장

주식회사 반야종합건설에서 시공중.
보덕선원 불사와 주요공사 실적을 보시면 신뢰가 느껴집니다. 부담없이 건축계획이 있으시면, 정성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 완 진 합장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37-20(세진 B/D 4층)
전화 921-0175~7 팩스 921-017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세요?
현대 결혼 연구원
이영숙 원장입니다.

온누리에 두루하신 부처님!
1999년 21세기를 향해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성원해주신 은혜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영등포에서
98년 12월 27일 종로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인사 드립니다.

미래 지향적인,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서세양이에 위치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수행한담

좋은세상 만듭니다”



◇1970년 신촌 봉원사 24세 주지 최영월스님 취임식에서 대중과 기념촬영. 앞에서 두번째 줄 맨 왼쪽이 금암스님.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일은 이생의 우리들 과제입니다 이 숙제 못 풀면 다음생의 짐”

“마음의 때 벗겨내야 불성 드러나요” “부지런하면 건강도 복도 절로 얻어요”

그러면 원하는 바대로 됩니다. 절대로 육바라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흔히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그저 착하라고만 강조합니다. 원인이나 결과 없이 늘어만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달라요. 왜 착해야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本) 말(末)을 확실히 설해 놓으셨지요.

부처님은 〈본말구경법〉을 통해 수기를 하셨습니다. 〈법화경〉 10여시 가운데도 밝혀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제자인 우리들은 확실히 믿고 실천하면 됩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충청권이 의외로 불교세가 강하지 못합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이곳 대전에서만 줄곧 살면서 지역포교에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우스개 소리지만, 십수년전 서대전에서 '부지런하기 1등' '말잘하기 1등' '힘세기 1등'의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때 '부지런쟁이'로 모두들 나를 추겨세우는 겁니다. 당시 나는 우리절 뒤 7천평 땅에 과수원을 하면서 수행과 농사를 둘 아니게 생활했습니다. 새벽 예불 마치면 늦은 시간까지 과수재배에 몰입하는 나를 두고 사람들이 입방아에 올린 것이지요. 결국 그 과수원에서 생긴 수입은 절불사에 큰 보탬이 됐고 특히 인재불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상좌들이 저마다 제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가르쳤고 깊이를 더하고자 인도 유학도 보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한국불교를 위한 재목이 될 것입니다.

나는 출가자나 재가자나 부처님 제자라면 교학까지는 안가더라도 기본 가르침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불공 수행도 모두 바른 교리체계의 터전위에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경전을 근본으로 배워야 합니다. 경전을 의지하라는 것은 근본을 모르면 미신과 다를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복에서 작복으로 복전의 참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절마다 법회를 적어도 1달에 1번 이상은 열어야 해요. 주지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면 법사를 초청해서라도 법회를 많이 열어야 합니다.

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다니다보니 자연히 스님들 생활이 눈에 들어왔고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라구요. 가끔 스님들 법문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불공드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설법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뜻도 모르면서 그저 환희심이 생깁디다. 다 인연지사일 것인데, 결국은 중노릇을 작정하게 됐고 열여섯살에 득도를 했습니다.

만우스님의 상좌이신 퇴운스님의 맏상좌 도광스님을 은사로 동학사에서 머리를 깎고 4년동안 강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초월 운문 동수 무불스님 등 네분께 직접 수학하는 혜택을 받았지만, 소임을 살다보니 전공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나머지 공부를 위해 은사스님의 배려로 전라남북도 연합강원식으로 운영되는 전주 위봉사로 가 2년동안 공부해 마쳤습니다.

수행하면서 주위의 칭찬을 받은 일은 은사스님의 은사이신 희운 노스님의 간병을 9개월 동안 해드리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서 효상좌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기간을 스스로 혹독한 수행과정으로 공부삼았습니다. 계행 인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비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노스님의 병환이 깊어 9개월 꼬박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겨 드리고 처소를 정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장만까지 참으로 용맹정진하듯 최선을 다했었어요.

중이 나이를 따지는 일은 어색한 일이지만, 불자들이 내나이를 다 보지 않습니다. 내나이를 알고나면 꼭 물어요, 어떻게 건강을 잘 유지하느냐구 말입니다. 중이 수행하는 일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꼬집어서 얘기해 본다면, 부지런함이 건강에 묘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나는 달리 비법을 쓰지 않아요. 다른 스님네들처럼 새벽예불 꼭 지키고 관음주력을 열심히 합니다. 종합하면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대로 따르고 행동하되 부지런하면 됩니다. 부지런함이 행복도 가져다 주고 복짓는 일로 안내를 합니다.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생명을 구했던 체험 때문입니다. 동학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일을 보러 나가는데 초발심이 발했던 당시라 속으로는 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외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한번은 좁고 가파른 비탈에서 고속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가속이 붙으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리없이 마냥 “관세음보살”만 찾았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것 같아요. 그런데 3m 정도높이 낭떠러지 끝에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관세음보살님 덕에 살아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관음주력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다 첨단시대다 해서 세상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사는데 편리해져 좋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진정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번개같이 발전하는것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정신이 붕 떴거든요. 공중이 말(言)들로 채워져 벙벙합니다. 부처님 가르침과는 역행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마음의 근본을 울곧이 드러내는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살기 편리하고 늘어난 물질만큼 떠있는 그것을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지혜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면 살길이 없습니다. 부처님법이 인류가 살아나갈 대안이라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인류의 근본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가르침은 “진실불허(眞實不虛)”한 것으로 가설이 없습니다. 〈법화경〉에는 무궁한 생명의 근본을 밝히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허황되다고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귀기울이면 진실이 보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미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만이 이생의 우리들 과제입니다. 이생에서 숙제를 다 풀어야지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음생으로 갑니다. 모두들 다 풀고 갑시다.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전숙희 〈터사랑 대표〉

청년회 참선부장하다 학원강사 사직 불교유적 답사기행 이끌며 환희심

나는 불교를 접하고 부터 답사기행을 꾸려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하고있는 국토문화순례 터사랑의 답사기행도 불교와의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초발심시절 불교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그저 집에서 불교서적이나 읽으면서 소극적인 불교생활을 하던 나는 종교단체에서 소속감을 갖고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10여년전 우연한 기회에 대원사 현장스님을 만나 스님의 권유로 법련사 불일청년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늦깎이 청년불자였던 나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법련사 청년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소속없이 교리공부를 했다. 그러다가 참선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매월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철야정진을 하고, 3박4일 수련회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자연스럽게 청년회 참선부장까지 맡게 됐다. 참선부장이라는 직책까지 맡고 보니 1년동안 절에서 하는 행사에 한번도 빠짐없이 참가하게 되었고, 불자로서의 사명감도 생겼다.



그렇게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적인 내 관심을 새롭게 표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가지로 궁리하던 끝에 불교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문화유적지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답사기행을 이끌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학원강사직도 그만두고 불일청년회 후배들과 힘을 모아 94년 9월 제1회 답사기행을 시작했다.

터사랑을 열기 위해 많은 분들께 조언을 구했었는데 불일청년회 지도법사이셨던 지묵스님이 그려주신 우리나라 지도모양의 마크는 터사랑을 대표하는 마크로 내 명함에 새겨져 있다. 처음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언을 구했던 내게 스님은 “전국 방방곡곡의 숨어있는 불교문화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불교제일의 답사기행단체가 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우리문화의 정신적인 토양인 불교문화와 사찰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역사와 경관도 함께 살피는 것으로 답사기행을 구성하기로 후배들과 마음을 모으고, 매년 각 지역과 계절의 현황에 맞게 답사일정을 계획했다.

답사를 시작했을때 나는 항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답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법당에 들어가 반드시 108배를 했다. 그때 그 마음은 내가 처음 부처님 앞에서 불자가 되기를 서원한 그 마음과 꼭 같았다. 매번 108배를 하면서 답사기행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책임감도 늘었다.

답사기행을 하면서 가장 마음 뿌듯할때는 새벽 산사에 도착해 불전사물의 장엄한 소리를 들으며, 새벽예불에 참여할 때다. 불전사물을 치는 이유와 그 속에 담긴 뜻을 차근 차근 설명하며,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그 소리에 감동할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또 일반인들이 절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공양은 절에서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끔 절밥이 맛이 없다고 투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말한다. “이 밥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체험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스님들의 법문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즘은 새로운 답사코스를 찾고 있는 중이다. 많은 답사기행 단체 가운데서 모범이 될만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올해 최대의 목표다. 앞으로도 우리 불교문화를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면서 답사기행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것이다.

’99 학년도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작법 및 예경의식 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 발전 시키고져 하오니 뜻 있는 스님, 포교사 및 불자님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 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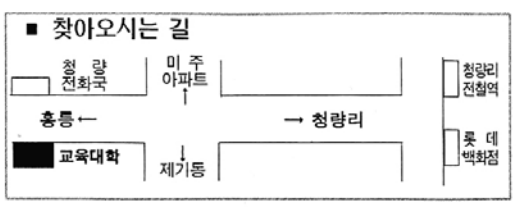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5회(월~금)
▶ 접수일자 : 1999년 1월 27일~3월 7일
▶ 개 강 : 1999년 3월 8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온·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 모습으로 99년 1월 6일
개점 했습니다. 싸고 다양한 불교 용품과 더불어 각종 정보란, 천불전 사이트 법당등
쇼핑을 하시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건강 옥 염주

종 류 천목 · 백옥업주(소) ₩ 30,000
천목 · 백옥업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五福臨門 猛虎圖

종 도 액자용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선화로 가는길 四콤子

가격 ₩ 120,000 (부록포함)
타블로이드 판 253쪽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묘법연화경(전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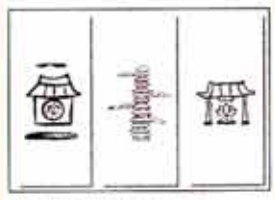
가격 : ₩ 140,000 (복장용)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66㎝ 폭 38㎝

다포

기장 50㎝ 폭 29㎝
재질 면
가격 ₩ 800

법성게 걸망

크기 500×460 (㎜) / 색상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천산지 중국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천산지 중국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보통(15~17개들이)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항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종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5㎝×42㎝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종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5㎝×42㎝
가격 ₩ 5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재질 견직 감장
크기 55㎝(가로) 180㎝(세로)
가격
₩ 30,000
(족자집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가스 누설 탐지기

가격 : ₩ 39,000 (건전지 별도)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연꽃 앞치마

내부그림
가격 ₩ 5,000

한샘 불교 카드

가격 ₩ 550

한샘 불교 카드

가격 ₩ 550

거산 죽염

천산지 국산 가격 ₩ 30,000

홍삼

가격 ₩ 98,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우전 · 세작 작설차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대작 · 중작 작설차

대작 ₩ 40,000 / 중작 ₩ 60,000
(2통 한세트)

묘법연화경(소책자)

가격 ₩ 4,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700,000

한국불교 총람
8×8배판 / 1148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한국불교 총람 CD

가격 ₩ 60,000

청담스님 임제운(친필)

가격 ₩ 3,000,000

청담스님 계송(친필)

가격 ₩ 3,000,000

명상의 말씀1

가격 ₩ 9,500 (CD)

화암스님 예불 천수경

가격 ₩ 9,500 (CD)

불교명상 음악1

가격 ₩ 11,500 (CD)

전단향 합장주

가격 ₩ 2,000

월성 합장주

가격 ₩ 3,000

주목 합장주

가격 ₩ 2,500

주목 단주

가격 ₩ 16,000

태양주 단주

가격 ₩ 6,000

보리수 단주

가격 ₩ 9,000

전단향 염주

가격 ₩ 12,000

새광석 단주

가격 ₩ 10,000

생광석 허리 밸트

가격 ₩ 75,000

생광석원석(냉장고용)

가격 ₩ 15,000

생광석 비누

가격 ₩ 15,000(3개 한세트)

생광석 뷰티 파워

가격
₩ 25,000

생광석 파우다

가격 ₩ 38,000

기도 청자 세트

₩ 25,000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경계 끄달리는 마음 안으로 돌려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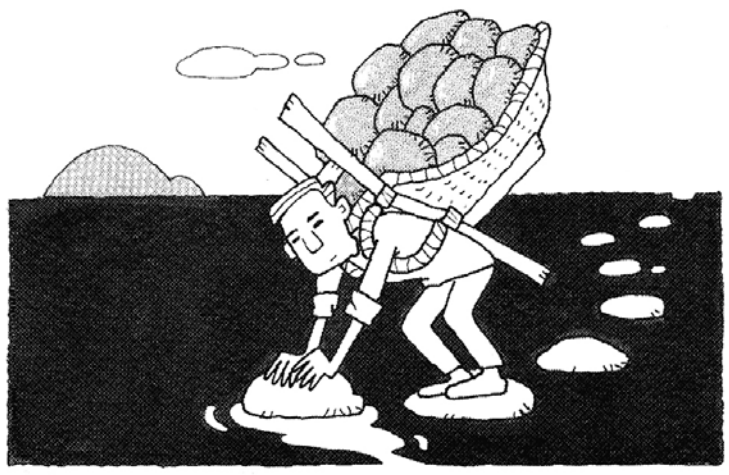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안으로 나를 발견하고 계발해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걸어야지 밖으로 '살려주시오' 하면 됩니까

불교 · 기독교 사이에서 방황

문 저는 서울에서 이번 해에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입니다. 대학 2학년 때 한마음 법을 알게 됐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유학 오기전 작년 여름방학 때 학교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 이모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때 이모의 권유에 못 이겨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큰스님 법문 대로 부처님과 하나님을 둘 아닌 하나로 보고 열린 다음으로 그냥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스님 법문과 비교하게 되고 모든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불교 지식에 다시 한번 걸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나'라는 생각이 들자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 어느 토요일 저녁 몸이 너무 아파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앓고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문득 내가 하나로 보지 못하고 마음의 갈등을 가졌던 것이 이렇게 몸 아픈 것으로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고쳐 먹고 다음날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자 마음도 편하고 몸도 금방 나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한국에 돌아와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끝마치고 다시 미국에 와서 지금은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와 둘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입니다.

미국 오기 전 어머니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미국으로 부쳐줄 것을 부탁하고 왔는데 오늘 처음 신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너무 반갑고 저녁에 식구들 모두 잠든 사이에 '법공양 페이지'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스님께 질문을 하여 한가지 확신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같은 것이고 하나의 산봉우리를 올라가기 위하여 여러 다른 길이 있듯이 하나의 진리를 향해 가는데 있어서 서로 종교 간에 다다르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모두 내 안에 계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생도 믿고 우주의 주인인 인간의 마음으로 지구를 살릴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구 최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낸다며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자꾸 내가 알고 있는 불교 지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을 읽는 나를 보며 이모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어떻게 불교신문을 읽을 수 있냐며 아단치자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처럼 불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 사이에서 방황할 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종교란 이름입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라고 할 때에 그 불교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불'하면 영원한 생명의 이치를 말하고 '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천대천세계에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든 기독교든 잘못 가르치는 예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밖에다 대고 복을 빌고 구원을 청하는 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어떤 이름의 종교이든 잘못된 일입니다. 안으로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계발해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걸어야지 밖으로 나 좀 살려주시오, 도와주시오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신 밥먹어 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잠자고 대신 똥 누어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 할 때도 그게 내 속의, 하나밖에 없는 내 님을 말하는 것이지 어디 하늘에 따로 계신 그 누구를 말해서는 분명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말인데 성당을 가든 성경책을 보든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이지 밖에 따로 있지 않다 하고 안으로 들이대면 입으로 뭐라고 부르든 다 안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왜 불교책을 보느냐 하거든 거기엔 영원한 생명의 이치가 담겨 있다, 종교로서 밖으로 비는 대상이 아니라 안으로 마음을 밝히는 길이다, 그러니 무슨 종교를 갖든 다 좋은 일이 아니냐고 일깨워 주시면 될 겁니다. 믿는 것도 나요, 깨닫는 것도 나이지 누구겠습니까?

짓기도 내가 지은 것 녹이기도 내가 할 탓 물질·정신계 둘아니게 탐험할 수 있어야

난치병 걸린 딸 태어나…

문 저는 53세의 불자이옵니다. 저의 딸아이는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며 성실하여 공부도 무척 잘한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수원에 있는 모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8살 나이 차이가 나는 노총각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전 총각 사주를 보니 아주 나빴습니다. 명도 짧고 자식도 없다고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주팔자는 착하게 바르게 잘 살면 고칠 수 있다는 큰스님 말씀을 믿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직후 사위에게 사주가 이러하니 남에게 많이 베풀고 욕심과 고집을 버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 첫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12월 16일 새벽 4시 53분에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기가 선천성 척추신경수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엉덩이 꼬리뼈 밑에 조그마한 혹이 있는데 아기가 자라면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여도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스님, 저는 이 말을 듣고 사위와 딸에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참회하고 앞으로 아기의 건강을 위해 바르게 생활하도록 할 것과 주인공에 관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큰스님 법문 모아둔 것을 주면서 보라고 하니 딸애는 공감을 하는데 사위는 제 말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큰스님, 도와주옵소서.

저와 딸애는 열심히 스님 가르침 대로 관하는 공부하겠습니다. 사위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고, 이제 태어난 아기 정상적으로 자라 정상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희와 같은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 많은 법문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몸이 아픈 사람이나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이나 다 전자에 자기가 지은 것을 현재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여 말하기를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전에 모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다 팔자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짓기도 내가 지은 것이니 녹이는 것도, 벗어나는 것도 다 내가 할 탓이지요.

전자에 내가 아무리 깡통노릇을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깡통으로 살라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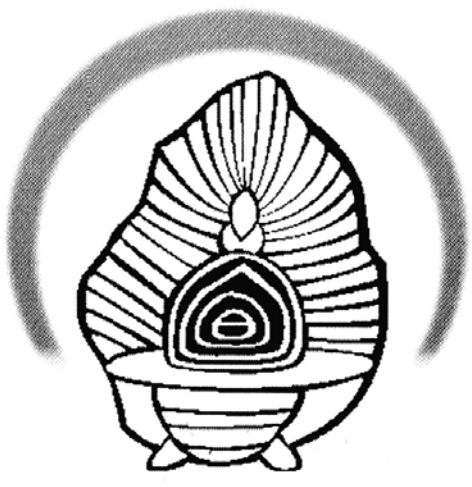
☞ 16면으로 계속

'불'은 영원한 생명 '교'는 생활도리이니 이 삼천 대천세계에 불교 아닌게 없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3)

글에 얽매여 실상을 못보면 덫에 걸린 것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는 강을 건너신 분들의 뗏목, 즉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 뗏목들은 강 이쪽의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의 것이다. 손짓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편 뗏목이 내 앞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뗏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한다. 나의 뗏목이란 무엇인가. 내 참 마음이 나의 뗏목이다.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다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

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뜻을 놓치는 사람은 마치 창 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다 죽는 벌과 같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글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바로 알지 못하기 쉽고, 설사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듣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한다.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무의 잎새를 세는 것과 같고 경배한다고 함은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잎새와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셨다. 고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는 죽는다. 꽃 피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 일심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금강경을 달달 외웠다 해도 무위법의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지 부처님의 참뜻을 따른 게 아니다. 불교는 행이다. 경·율·론 삼장이 모두 행을 위한 설명인 것이다.

팔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재능 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고로 곧바로 마음 닦아라 하는 것이다.

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보아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면 옛 성현들이 말해 놓은 가르침의 방편을 참고해도 된다. 경으로 보되 보지 않고 경을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내면 세계의 참 자기를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지를 돌 아니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올바로 안다면 과거에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설법도 하고 염불도 있어야 하고 촛불도 밝혀야 했다. 현재도 그러한 방편 법을 다 따르는 게 예의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단이 개발되어 진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무명 짜는 방법을 고집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편을 덧붙여 짐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로케트 타고 날으는 세상에 차도없어서 걸어가던 그때의 그 걸어간 얘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팔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진리가 아니다. 병풍 돌려치듯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팔만 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즉설이 되어야 하고 즉행(卽行)이 되어야만 즉여(卽如)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시늉만 내는 길잡이가 될 뿐이다.

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좌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도 있었다. 경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경전 벌레밖에 될 게 없다.

역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말의 덫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한 뜻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혼히들 걸핏기에 치우쳐서 '본래 공인데 있기는 뭐가 있으며 불을 데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흉내나 낸다면 그 업은 수억겁을 거쳐도 벗기 어렵다. 그러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해야 한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허공에 꽉 차 있는게 진리입니다

☞ 15면에서 계속

은 없습니다. 그렇기만 하다면 부처님 법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코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하셨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믿지 못하신다면 낸들 ○쩔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믿을 마음이 생긴다면 한번 목숨떼어 놓을 각오로 덤벼들어 보시라 이겁니다.

본인은 믿고 딸애는 조금 믿고 사위는 못 믿는다고 하는데 무쇠 잡쇠를 다 녹여서 강철이 되게 하려면 몽땅 용광로에 쓸어넣고 재생을 시켜야하는 도리를 잘 일러주도록 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극하면 그 음파가 사대를 타고 통신이 되어서 사위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삼혼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문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신문 독자입니다. 선원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법력 증진을 더욱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1월 13일 수요일판 '길을 묻는 이에게' 큰스님 법문 말씀 중에 의문이 생겨 팩스 올립니다.

현대불교신문 16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삼혼이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닌다. 보통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중 삼혼은 무엇 무엇을 말씀하신 것이며 또 이미 태어나는 혼이 있는데 또 돌아다니는 혼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답 사람이 죽게 되면 물질인 육신은 사대로 돌아가 흩어지고 정신은 업식으로 떠도는데 이럴 때에 업식은 생전에 육신을 지니고 살던 습이 남아 거기에 끄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물을 만나면 빠져죽을까봐 겁을 내고 불을 만나면 타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살던 집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온갖 살림살이에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집에도 붙어 있고 혈육에도 붙어있고 묘지에도 붙어있고…, 사방으로 흩어져 귀신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름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다 업식의 나툼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다, 셋이다 하고 규정짓는 얘기가 아니라 셋이 될 때도 있고 하나가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 공부가 된 사람은 아예 없기도 하고 수많은 화신으로 나투기도 합니다.

외계인 왜 공식출현 않는지요

문 지구 밖의 외계인은 왜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외계인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지구에 나타났느니 안나타났느니 하는 얘기는 물질계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계와 정신계를 둘이 아니게 탐험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신계를 무시하고 물질계로만 내달으니까 물질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오느냐 안오느냐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현대과학은 아직 반쪽과학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을 수 밖에 없지요.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 우주에 살고 있으니까 모두들 우주인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생명체로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통신을 하려면 물질로서가 아니라 마음이 계발되어야 합니다.

꿈에 머리 속에서 빛 나타나

문 꿈에 제가 초등학교 때의 친하지도 않은 뚱뚱한 친구의 머리를 도끼로 여러번 찍자 껍데기는 벗겨지고 그 안에서 빛이 보였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답 둘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 무명의 껍질이 깨져야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가르치니 감사할 일이지요.

마음 들떠 갈피 못잡아요

문 마음이 어지럽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땐, 어찌해야 합니까?

고요한 상태로 돌아오고 싶지만, 잘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대행스님의 책을 읽었을 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어려운 군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모든 게 혼란스럽고,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격동적이기에, 너무나도 들떠있기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마음이 어지러운 것도 내 속에서 나온 것이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도 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 가져다준 게 아니지요. 그러니 누굴 탓하며 무얼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다만 전자에 입력된 것이 풀려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조용히, 네 속에서 나온 거니까 안나오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할 일이라고 한생각 돌려 놓으세요. 놓아버리지 않고 붙들고 씨름을 하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조용히 놓고 다만 관하세요. 따라가지 마시구요.

내가 항상 되돌려 놓고 관하라 하지 않습니까?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한생각 돌려 안으로 놓고 마음자리를 지켜보시란 말입니다. 지켜보란다고 붙들고 있지 마시구요.

동생 정신병 증세 심합니다

문 작년에 저의 동생(백상렬:정신분열)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기를 "일체를 놓고 관하라"는 말씀 잊지 않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생의 증세가 심해져 환청이 오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잠도 잘 자지 않고 사람대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스님 제 동생이 조상신이나 기타 잡신에 빙의된 것은 아닌지요? 저의 짧은 생각에는 천도재로 신을 천도하면 증세가 좋아질 것 같아서 큰스님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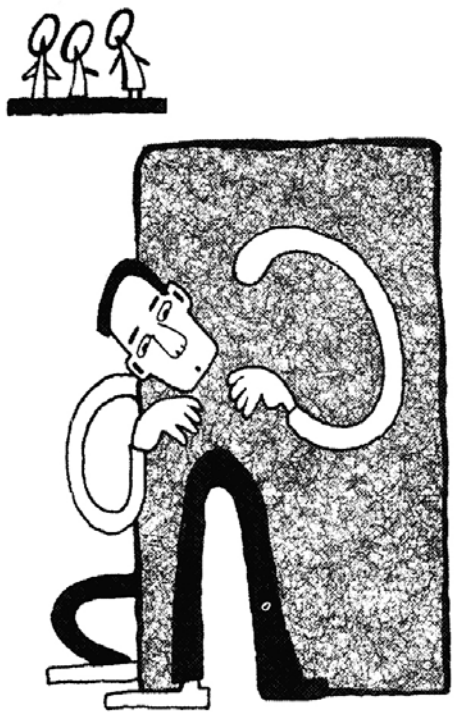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본인이 일체를 놓고 관하고, 동생에게도 일러주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세요. 전깃줄과 전깃줄이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그게 곧 천도입니다.

마음으로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든가, 신이 들어붙었다든가, 그런 식으로 규정짓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 법은 광대무변해서 내가 크게 쓸려면 크게 쓰고 작게 쓸려면 작게 써집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세요. 정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스님들께 상의하시고요. 방편으로 말입니다.

섣달그믐 태어난 아이 이름을…

문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 근무하는 고사홍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주인공 자리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98 12. 31(음 '98. 11. 13) 0시 05분에 범띠 남자아기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철학관이나 그 아무 곳에도 물어보고 이름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큰스님께서 저의 아기 이름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친견드립니다. 정말 좋은 인연으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큰스님의 깊은 배려바랍니다. 이달말까지는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함장하옵고 거듭 삼배드립니다.

큰스님,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올립니다.

일체 제불과 조상님 함께 하소서.

답 이름이란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편리하겠기에 지어부르는 그야말로 이름입니다. 다만 이왕 지어부르는거 좋은 뜻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그대로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그 이름에 마음이 담기도록 지어부르세요. 그리되면 아무개야!하고 부를 적마다 마음으로 통신이 될테니 오죽 좋겠습니까?

미래일 어떻게 대비하는지요

문 스님, 이렇게 지면으로도 뵙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두어번 정도 이곳을 통해 스님의 말씀을 자문해 보기도 했고 이번 일월 셋째주 정기법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어 노크를 합니다.

지난 97년 봉탑관계로 스님을 어머니와 함께 친견한 적이 있었고 그후 98년 3월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조교생활을 한지 벌써 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간이 중간결과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주 법회 때 무릇 곤충들도 닥쳐올 일에 대해 대비를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왜 한치 앞도 못보나는 말씀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답 내가 항상 말하지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이 삼라만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계만 우선으로 알고 거기에 끄달려서 돌아가고 있으니 통할 리가 없죠.

> 사람은 누구나 보배 갖고 태어나
> 관세음도 되고 지장 · 칠성도 되며
>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는…
> 그렇게 자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 고장이 났다고 할 때에 치료할려면 하고…, 그렇게 자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속의 보배가 때로는 약사여래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보물은 돌라라 하고 밖으로 남의 보물을 기웃거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대장부가.

법문해석 제각기 다른이유

문 제가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선원 신도가 어떤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한사람은 행사 개최를 원하고 한사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관을 한 다음 안양본원에서 큰스님 법문을 듣고는 서로서로 저 법문은 각자 자기를 위해서 하셨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리는 분명 하나일텐데 각자 자기 관념, 그릇따라 각기 해석하는 이상황을 물론 제 주인공자리에 깊이 관하고 답을 기다리면 되겠지만,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크신 법문 내려주십시오.

큰스님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답 왜 저 장님이 코끼리만지고 제가 끔 한마디씩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게 옳으냐 네가 본 게 옳으냐, 내가 본 게 많으냐 네가 본 게 많으냐고 한다면 끝이 없겠지요.

진리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허공에 꽉 차 있고 일체가 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각자 공기를 들여마셨다 뱉었다 하는데 그 공기가 나만을 위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가 마시고 누가 뱉어도 허공 그대로 이지요. 그와 같습니다.

다만 전자의 습에 따라 거기에 차별이 있다고 서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 또한 공부의 재료가 아니겠습니까.

복제인간은 업도 같은지요

문 복제인간을 만드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 한조각을 떼어내 그것을 배양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란성 쌍둥이 같이 모습, 성격, 앓게되는 질병, 여러가지 취향 등등이 같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런 경우 그들은 같은 업을 지닌 같은 사람입니까?

또 일반인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영식이 합하여 삼합을 이룬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정자와 난자 자체도 엄연한 영식을 가진 생명일텐데요. 왜 다른 영식이 끼어들어야만 하나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답 물질과 정신이 계합이 되어야지 물질로만 있다면 그건 목석이고 물질인 육신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온통 무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두 차원이 계합되어야 하는데 정자 난자로만 뭉친 채로 그만일 것 같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사람의 몸 조각을 떼어내서 복제를 한다면 그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과 한가지인데 사람이 되자면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와 업식이 거기에 계합이 되어야 합니다. 껍데기로만 보시지 마시고 마음을 아셔야 인간의 참 모습을 알게됩니다.

협찬 한마음

놓지않고 붙들고 씨름하니 더 어지러워
내 보물 놔두고 남의 보물 기웃거려서야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3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최근의 질박한 경제난 타개의 한 방편으로 대행 스님의 기르침을 널리 나누고자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불필요한 경비를 제거하고 재생용지를 사용한 것도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여시아문의 의지를 실현한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팩스 : (02)737-0696



불자정보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의단요법 · 무료시술

치료비 전액무료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믿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강좌

수맥강좌

1. 신비의 추 사용
2. 조계사 버스 정류장앞
3.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잠이 쏟아진다!

■ 잠시 앉아만 있어도 잠이 쏟아지고 힘이 샘솟는 「비아그라」보다 더 신비한 「건강요」와 「한방베개」탄생
만약 2주간 사용불만시 100% 환불!!
전기사용무. 온돌침대겸용.보관간편
수신자부담/(080)721-8858 세광산업(주)
-7일사용후 입금가능합니다.-

구인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종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권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 승가대학 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부천 심소산 연흥사에서는 공양주 보살 1분을 모십니다.
인연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85-29
심소산 연흥사
032)348-6602~3

작은 도시 변두리에 지대한 불심으로서 사찰불사를 합니다.
평생의 도반이 되어 수련탁마에 뜻이 있으시거나 물적이나 심적으로서 도움이 되어 주실 스님이나 불자님을 한분 모시고 싶습니다.
탄휴 합장
0563)335-0092

절 운영 맡겨 주실 분
기공치료 및 침술환자 치료에 아주 능통한 스님
MBC TV 에 기공시범이 방영된 스님
원각 011)871-9092

구 직
(1종 보통면허 소지)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男 (36)
사찰에서 숙식 가능
전국 어디나 가능
019-370-9999(권승욱)

공양주 보살 구함
은평구 응암1동
관음사
02)359-7317

수업

사무직구함(여, 불교신도)
■ 대졸, PC 및 영어 가능자, 연령제한없음
■ 일반사무 및 불교원고정리 월급은 면접후 결정
■ 이력서 본인 지참 면접요망
02)567-0050
02)3462-0070

불교용품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기타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현대자동차 신차판매 안내
스님과 불자님들의 차량문제
"믿고 맡겨 주시면 불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 : 원응 곽영순 과장
대표전화 : (053)627-6616
휴 대 폰 : 011-509-9456
호 출 : 012-494-6181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25)345-9494

전 통 황 토 방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순수 황토만을 시공하며 장판을 깔지 않음.
금강황토산업
032)427-7899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 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전화: 02) 446-2446~7
만사형통 신비의 달마상 선착순 접수
재녀 합격여부 및 사업계획 취업 승진 사주 궁합 작명등 육효로 즉시 알 수 있음.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1번 출구)
수석역학 원장 이수정

황토 찜질선방 개방
모은사 주지 현공 스님이 직접 황토벽돌을 만들고 신비스런 향토찜질 선방을 지어 불치병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
0593)854-8551
주지실 0593)854-8555

기적의 피라미트 파워
기공연구회
(代) 02)
455-6944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태고종 귀하
■ 사찰명 : 석정암
■ 위치: 전라남도 임실군 상계면 오지리 산 89번지
■ 주지: 정하
위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1. 30.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법화종 귀하
■ 사찰명 : 상운사
■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백양리 동포부락
■ 주지: 정두지(공덕화)
위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1. 30.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노원구
◇법당 : 23평 ◇요사 : 26평
◇부지 : 52평
◇가액 : 2억 5천 만원
◆ 지방사찰 교환가능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기도처 전세
산지 수려하고 위장 · 간장병에 특효한 천연 약수터 있음
- 경북 울진을 소재-
· 평수: 400평 · 법당: 20평
·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전, 요사채 약 40평
전세 3천 5백만원(절충가능)
비구니스님 환영
· 사찰양도, 인수 다량보유
·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동국기획 현 법 법사
051)631-6643,011)876-3368

사 찰 터
◇ 위 치: 경북 상주군 옥산면
◇ 대지: 261평
◇ 가액: 답사후 결정
◇ 특징: 계곡옆 대지(현지 살림가능)
옥산-추풍령간 도로 공사중(도로인접)
※스님 · 포교사외 전화문의 사절
017)515-8959
0582)534-8950

사찰부지(사정상)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저수지 및 국도접
· 평수 : 합 1,500평(다섯필지로 분할도 되어 있음)
· 참고 : 고시원, 교육관, 복지회관등 다용도가능, 토목공사완료
· 가격 : 헤외이민사정상 평당 현시세 70만원 이상-> 4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2)453-837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대지: 430평
◆ 전 : 76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3동, 5층석탑
아왕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좋은 위치(잔디가 깔려 있음)
◆가액 :3억
0559)533-6321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건평 100평)
◆2층 -법당 / 1층 -요사채
◆가 액: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시내에서 차편 5분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 사무실
- 요사채 방13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 직접면담(급매) ※
0336)643-9051
012)925-6118

인연 있는 스님이나 불자님 한분 모십니다.
큰 스님의 다리불편으로 인하여 모시게 되었습니다. 경주 토함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솔 송림에 둘러 싸여 있는 등 자연의 미묵 불바위가 조화된 도량, 약사도량, 기도도량 좌선등, 기운도량. 입주 즉시 법회 가능
■ 사찰명:경주 무학산 성불암 토굴
■ 대지 : 200여평(산신당+용왕당)합1개
■ 건물 : 대웅전 내 방2개, 주방 , 전체 기름 보일러 목욕 샤워시설, 주차장 완비 전세금 200만원, 답사후 절충
052)252-8377
011-543-4275/017-558-3450

사찰(급)안내
◇ 위 치: 충주지역
◇ 산세수려, 지장기도도량
◇ 대지: 약 1천평 ◇전: 850평 (총 1,850평)
◇ 법당: 주산포 목조건물 24평 (단청된 법당), 산신각(목조건물) 8평(단청됨), 종각(단청) : 1층 -스라브 10평 일주문. 2층 - 종각목조 4평
◇ 범종이 천관 ◇ 요사채-스라브건물 40평, 조립식 18평, ◇금액4억(상담후 조정가능)▶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561)746-3510/017)366-7905

좋은 위치, 최고 시설의
귀 포교원 양도 안내 귀
◇ 위 치: 경기도 부천 신도시
◇ 평수: 약70평, 5층 (큰법당, 방3개, 큰주방)
◇ 가액: 6천3백(절충가능)
◇ 특징: 시설 A급, 옥상사용가
017)391-2826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청리면
· 부지 : 1,200평
· 법당1개, 요사채 2개
· 가격 : 답사후 절충
0575)874-467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3평 ■ 요사 : 65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승주 원각사
◇대지: 580평 ◇전: 240평
◇법당: 20평
◇요사채: 29평(방6개),식당방(4개)
◇매매가 : 약 5억 5천만원 (절충가능)
전남 순천시 서면 대구리 915번지
0661)755-5885

포교원 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평수: 3층건물(3층) 50평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전세 5,000만원 가능합)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특 징: 시설완벽함.
법및 행사 즉시 불수 있음. 전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주변 APT 주택 밀집지역, 대나무으로 수작업한 나한님 216분 모셔져 있음
02)939-3647 / 02)720-5876
012-341-364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사 찰 (전세)
· 위치 : 대구시 북구 산격동
· 법당 : 25평(방 2개)
· 2층 양옥
· 가격 : 전세금 3,000만원
053)957-3066
011)455-6198

사 찰 안 내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4동 190-62번지(구190-22)
· 위치 : 전포동 대우자동차 뒤 A.P.T옆(황령산 마하정사)
· 대지 : 60평(하천부지 일부)
· 건물 : 기와1동(대웅전), 스레트1동 (요사채, 방3개, 주방, 마루)
· 산신각, 미륵불, 세면장, 산약수, 기름보일러
· 4m도로접, 차량진입가능,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 90%) · 창건 35년 · 매매가격:1억원(교환가능)
016)546-0056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시장통
◆19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 3천2백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1)201-2561
02)482-4550

사 찰 안 내
좌청룡 우백호가 격을 이루어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터이며 산과 호수 계곡이 기를 이루어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그대로 조화를 이룬 사찰터 입니다.
· 위치 : 천안 독립기념관 인접지역 · 매가 : 7억원(절충가함)
· 건물, 토지내역 및 특징 - 대지: 300평 - 전: 22,000평 - 임야: 20,000평
- 국입대: 28,000평 - 현대식 3층 건물 1동(100평)
· 밤나무, 감나무, 호도나무, 잣나무등 유실수 다수 · 전화 및 전기시설 완비
· 교 통 편 리 지 역 · 현 고시 원성 엄 중
⊙전국 사찰 및 포교당 다량보유하고 사찰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736-3578~9 휴대폰 011)789-2255
FAX 739-4603 사찰전문 용역 **금 강 기 획**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도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액: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1)320-9355/018)311-3744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 사찰 건축 · 사찰조경 · 단청 ·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 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원목: 말구 1자 이상:24자, 30자, 36자, 42자 까지
♣ 서까래: (연목)12자, 15자, 18자, 20자, 24자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0371)762-3938
011)735-4168
(주)천운 나강민 합장

사찰 운영하실분
◆ 위치 : 경북 문경 월악산 ◆ 부지 : 1,000평
◆ 법당 : 20평 (목조) ◆요사 : 15평(목조) 40평(조립) 2동
◆ 가격 : 답사후 절충 ◆특징 : 국립공원 인근의 수려한 산세 속의 기도 도량
◆ 위치 : 경남 통영(충무)시내 ◆부지 : 5만평/법당 및 요사:35평
◆ 가격 : 2,000만원/월 20만원
◆ 특징 : 도심 속의 산속에 위치한 기도 및 포교도량
※ 전국에 소재한 사찰, 사찰부지,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 즉시 연결하여 드립니다.
해 동 불 사 담당:이처사 합장
직통 전화 상담 : 02)351-4458 / 019)390-6110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미국 경제스타들과의 만남

(방송) EBS-TV에서는 4일~11일까지 3회에 걸쳐 '다큐멘터리 특집-미국 경제스타들과의 만남'을 저녁 6시 45분부터 25분간 방영한다. △4일, 반 인플레 투사-폴 볼커(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 의장) △5일, 월가의 전설이 된 사나이-피터 린치(펀드매니저) △11일, 마케팅의 신화-롤런드(플레즌트사 회장).

묘목 · 꽃묘 무료 배포

(생활) 올해 1월1일 이후 딸을 낳은 부모에게 기념식수용 나무를 나눠준다. 서울시가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올해 여아를 낳은 부모 2천쌍에게 묘목을 무료로 나눠 주기로 한 것. 접수기간은 3월1일~5월31일. 서울시는 또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 통·반 단위로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면 4월초까지 나무와 꽃묘를 배달해준다. (02)3216-4242

소식이 장수의 비결

(건강) 먹는 것을 줄여야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의 로이 월포드박사는 22일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회의에서 연구발표를 통해 적게 먹은 쥐들이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평균수명의 절반을 더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겨울철 황사 손발 깨끗이

황사(黃砂) 현상이 올들어 처음으로 25~27일 3일 동안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상난동으로 봄철까지 황사 발생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왕따' 상담전화 운영

(상담) 한국 청년의전화는 '왕따'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운영한다. 27명의 상담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담에 응한다. (02)7909-114

절약의 지혜

린스대신 김빠진 맥주

상한 우유로 가구 광택

부산 동래구청은 최근 '생활아이디어 모음' 사례집으로 엮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IMF시대 절약형'의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 빠진 맥주를 린스로 대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와 냉장고 등을 닦으면 때와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전골이나 불고기를 요리할 때 넣으면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식물잎을 닦아주면 잎사귀가 싱싱해진다.

또 우유가 상했는지를 알려면 우유를 냉수에 몇방울 떨어뜨려서 물에 퍼져 흐려지면 상한 것이고 아래로 가라앉으면 상하지 않은 것이다.

'황혼이혼' 사회문제로… '검은머리 파뿌리' 옛말

"부부는 섬김과 존경의 관계"

'황혼이혼'이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해 이시형(71) 김창자(76) 두 할머니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을 제기한 본인들은 "지나간 세월은 몰라도 남은 인생은 '맘 편히 밥먹고 잠들고 싶습니다'"며 항소 및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여성계가 공청회를 열어 '황혼 이혼'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개인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여성의 인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고령인데다, 이들이 결혼한 당시의 가치관을 수용해야 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의 탄원 등의 이유를 들어 '두 사람에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찬반논쟁이 뒤따르고 있다. 하승수변호사는 "젊은 여성이라면 충분히 혼인관계의 파탄이라 볼 수 있는 사안에서 유독 여성노인에게만 이혼을 허용치 않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재호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둘러싼 주변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결까지 시비거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은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 사회문제로 직결된다. 더욱이 경제력과 기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이혼은 홀로 된 노인의 부양이라는 또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이혼 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했으며, 97년 1백건을 넘지 않았던 것이 지난 해는 120건으로 대폭 늘었다.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이혼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80% 이상은 여성의 이혼 상담이다.

황혼이혼을 여성이 요청하는 이유는 이시형 김창자씨의 사례에서 밝혀진다. 김씨는 이혼소송 제기 이유를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강요 △결혼직후 교사직을 그만두기를 종용하는 등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 왔으며 △고령이 된 뒤 아내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하며 추태를 부린 사실을 꼽았다. 이씨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모두 결혼 초부터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에 눌려 살아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황혼이혼'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양로원의 노인위안 잔치.

부부는 둘이면서 하나이다. 가정은 존경과 섬김의 도량이다. 부처님은 부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아내는 마땅히 열네 가지 일로 남편을 섬겨야 한다. 행동을 착하게 하며, 선을 실천해 이루며, 지출 아끼기를 세밀히 하며, 새벽에 일어나며, 밤늦게 자며, 반드시 일을 이루며, 남편을 대접하며, 남편에게 인사하며, 말과 어세를 부드럽게 하며, 말이 순하며, 자리를 바로 하며, 음식을 깨끗이 하며, 보시를 잊지 않으며,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남편은 다섯 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뜻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으며, 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선생자경〉

"2005년 인터넷 인구 3억4천만여명 된다"

아태지역이 유럽 앞지를 듯

美 컴퓨터 분석회사 보고서

인터넷 이용자는 2005년 3억4천6백만명에 달할 것이며 유럽보다 아시아에서 더 많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소재 컴퓨터 분석회사인 컴퓨터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장 빨리 확산될 것이라면서 2005년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1억1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가 2002년에는 유럽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인터넷 이용자가 지금부터 5년 뒤 7천7백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아프리카로 오는 2005년에도 3백만명에 불과할 것이며 남미는 8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라니'를 부적으로 팔다니

서울 인사동 화랑 부적전시회 '물의'

'새해맞이 부적전시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인사동의 한 고미술품 전문화랑이 기획한 이 전시장에서는 새로 제작한 부적을 1장에 3천원씩 판매하기도 한다. 입시철을 반영하듯 합격부가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전시품중에는 '무구정광대다라니'(71년)와 금강경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자칫 부적이 불교신앙의 한 형태인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하는 불자들이 많다. 지니기만 하면 재앙이 소멸되고 복을 받는다는 부적과 불교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께서는 최후의 유언으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와 법에 의지하라(自燈明 法燈明)고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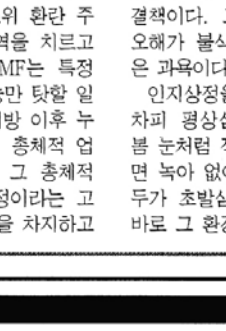
'자본주의 해악' 교황, 권고문 발표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2세가 자본주의의 해악을 경고하는 권고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황은 1월 23일 멕시코 방문길에 자본주의의 착취성과 사악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

교황은 권고문을 통해 "이익과 시장의 법칙만을 강조하는 제도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원의 공평한 분배 등이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은 교황의 권고문을 '새로운 종류의 해방신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시론

東과 西 나누지말자



김 재 성

〈대한매일 정치팀장〉

얼마전 조계종 분규가 한창일 때다. 분규 당사자인 모측 승려들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협박성 로비를 하고 다녔다. "이번에 잘못하면 부산·경남 불교도들은 본격적으로 반(反)정부로 돌아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분규기간 동안 조계종 주변에는 분규 당사자의 지역 연고와 관련한 이런 저런 설들이 난무했다. 수행집단 내분마저도 지역간 파워 게임으로 해석되고 이를 교묘하게 포장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시도도 난무했다. 속계의 아비규환을 무색케 하는 음모론이 춤을 추었다.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 문제가 중증에 이르렀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 **지역 감정의 폐해 수십년간 경험 유일한 해결책은 차별없는 정책실현**

같은 값이면 고향 물 맛이 더 좋다고 한다. 인지상정이다. 부처님인들 고향 까마귀가 더 반가운 마음이 왜 없겠는가.

문제는 이 소박한 애향심이 배타적 집단주의로 변질된 데 있다. 모든 논리와 합리적 이성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한다. 따지고 보면 지역감정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치인들에게 있다.

지역감정을 악용한 최초의 정치인으론 박정희씨를 들 수 있다. 쿠데타, 유신독재 그리고 경제개발 등 그의 공과를 놓고 이론이 분분하지만 집권연장을 위해 그가 동원했던 지역감정 조장행위는 피할 수 없는 악업이었다. 그 악업은 이후 군부독재 세력의 집권연장 수단으로 대물림됐다.

지금 국회에서는 IMF 환란 원인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한창이다. 당시 재경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기아그룹 총수 등 소위 환란 주역들이 불려나와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넓게 보면 IMF는 특정 관료나 통치자의 무능만 탓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 누적돼 온 우리 사회의 총체적 업보라고 할 수 있다. 그 총체적 업보 속에는 지역감정이라는 고질병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마산 구미 등지를 돌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원초적 지역감정을 촉발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IMF 이후 온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엄격히 말하면 그 고통의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작 청산됐어야 할 지역감정을 다시 부추겨서 어쩌자는 것인가.

"구미공단의 공장을 전라도로 모두 옮겨 간다더라"는 식의 황당한 유언비어가 먹혀들어가는 주민의식도 문제이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가장 손쉬운 방법을 외면하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쥐를 외면하라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주문이 아니겠는가.

97년 12월의 정권교체로 우리는 망국적 지역감정을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특정지역의 '왕따', 그리고 특정지역의 배타적 집단주의를 조장하므로써 정권을 계속 재창출할 수 있다는 등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영남지역 장외집회는 정권 교체로 인한 영남지역 사람들의 상실감을 교묘히 파고드는 술책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영남인들의 상실감 자체가 과욕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과거 인사,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것을 놓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긍하니까 나온 발상이겠지만 지역감정 조장을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생각도 도끼로 흐르는 물을 막겠다는 발상이다.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수차 천명해 온대로 차별없는 정책의 실천만이 해결책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오해가 불식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인지상정을 벗어난 감정은 어차피 평상심이 아니다. 그것은 봄 눈처럼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환경이다.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고객 사은 잔치!

★★★ 우수통화품질 입증기념

"PCS 016 + Free & Free 대축제"

최신 PCS폰 무료제공 내역

SPH-4700, LGP-6200, G2-F31/F33CM : 무상(가입비 분납)

HGP-7000(폴더) : 71,500원(가입비 분납)

▶가입조건
FREE 200 요금, 신용카드 /KT 합산,
정보서비스 무조건 선택(6개월이상 변경불가)

삼성 SPH-4700



최대 420분 연속통화/125시간 통화대기
매너기능
한글/영문 SMS서비스 기능
바로 전화걸기
전자계산기/스톱워치
대화형 문자정보서비스 지원

크 기 116×45×23㎜
무 게 105g
연속통화 배터리M 240분
배터리L 420분

LGP-6200F



작고 단단한 싸이언
자동응답기능
독특한 전화벨소리
길어진 배터리 사용시간
말로거는 음성인식은 기본
자동조명기능
지역번호 자동다이얼

크 기 107×45×25㎜
무 게 89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M 130~140분
배터리L 260~300분

한화 G2-F31



현PCS중 최소형
한화의 새로운 PCS-F31
Sporty하고 세련된 디자인
초대형 화면 표시창
초경량 PCS
예절모드
일정관리

크 기 107×43×20㎜
무 게 77g (소형 배터리 사용시)
연속통화 배터리S 90분
배터리M 160분
배터리L 210분

■ 신청서 접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부다피아 쇼핑몰 담당자 앞 · 전화 : 02-732-1522 / 737-8881(대표) · 팩스 : 02-737-0697 / 737-0698,0696

자원봉사 · 환경운동에 힘모아

불교계 여성단체 새해사업 계획

여성불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자비행이며,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환경이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대한불교부인회 등 불교계 여성단체들이 마련하고 있는 99년도 사업 계획에는 양로원 · 교도소 · 병원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세미나 개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계 일각에서는 "매년 똑같은 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여성불자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계 2/3 이상을 구성하는 여성불자들이 그동안 종단과 사찰의 외호 주역으로서 활을 허왔지만,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고 여성문제나 사회문제에서 타종교 여성과 비교해 여성불자들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4월경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와 10월경 '미래지향적 남녀평등의 방향' 등 여성불자의 개별능력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여불련은 조직 재정비에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여성불자들이 단체의 입지를 확보하고 사회 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올바른 믿음 확립 △회원의 교육 및 단체 조직력 강화 △여성불자들의 발언 강화 △종단의 평등한 남녀관 확립 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로원 · 교도소 방문등 '자비행'
조직정비 · 회원교육 · 사회참여 미약

불교계 주요 여성단체의 올해 사업계획을 살펴본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다도강좌, 한지공예강좌, 성지순례, 보육원 양로원 방문 등을 연중 실시한다. 전통혼례 및 생활한복발표회를 5월과 7월에 각각 개최한다.

또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여성불자' '미래지향적인 남녀평등 방향'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9 · 10월에 실시하며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도 10월중 실시한다. 이외에도 5월부터 10월까지 '인간사랑 자연사랑-나부터 실천합니다'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등의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는 매주 금요일 서울대병원 자원봉사와 월례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양로원에 기거하다 숨진 연고없는 노인들을 위한 영가 천도재를 상반기 중에 봉행할 예정이다.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이사장 성순경)는 영등포구치소 · 청송교도소 등의 포교 · 교화사업을 비롯해 경전역경, 전통예술 의식전승 사업, 고아원 · 양로원 · 소년소녀가장지원, 포교사 · 전법사 · 법사 자격고시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불교회(회장 변광순)는 종교인평화회의에 불교계 여성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여성불교단체. 여성불교회는 올해에도 서울구치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마다 해오던 물품 지원과 법회 동참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불련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정자)는 매주 월 · 목 · 토요일에 한국사회봉사회의 장애아동 돌보기 외에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불교계 유치원에 비디오 상영 및 성폭력방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④



장 경 학

〈前 동국대 법학과교수〉

前 동국대 법과대학 학장이며 지난해에는 포교사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입학한 장경학거사(84세)는 "평상심을 가지고 여유있게 사는 정신 수행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동국대교수 시절부터 40여년간을 한결같이 아침 5시에 일어나 집 근처에 있는 삼청공원을 산책 한 뒤 참선에 몰두해 온 장거사의 참선 방법은 독특하다.

우선 장거사는 장소에 상관없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명상 음악을 틀어 놓는다. 이어 눈을 지그시 감고 단전에 호흡을 모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전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힘으로써 건강한 하루의 출발을 다짐하자는데 의미를 둔다. 교수 재임시 잦았던 해외 학술 세미나에 가서도 산책과 참선은 꾸준히 이어졌다.

아침 산책후 가볍게 참선
평소 소식 · 채소위주 식사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 흔한 보약 한첩 먹어본 적이 없어요. 쉼없이 연구하고 마음의 중도를 유지하는데 힘쓰다 보니 생활도 즐거워 지더군요."

초발심을 내 지난해부터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장거사는 채식주의자다. "살생한 것을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 화가 생기고 격한 마음이 크게 일어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없지요." 부인에게 산나물이나 녹황색 채소를 밥상에 자주 올릴 것을 권유한다는 장거사는 소식 위주의 식생활이 건강에 한몫 한다고 귀띔한다. 식탐을 줄이는 것도 수행이라 생각하며 대신 음식을 오래 씹는다고 한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는 학문 연마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장거사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있다"며 "평소 생활에서부터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간직한다면 건강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건강에 전전긍긍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서울 장안동에 마련된 풍경소리 제작실 전경.

어린이 찬불가 앨범 8집 준비

음반제작사 풍경소리 4월에 출시

어린이법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불가다. 따라부르기 쉬운 찬불가는 새싹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교'이기 때문이다. 이 '가교'를 만드는 곳이 바로 풍경소리(대표 화평스님). 교계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찬불가를 만드는 곳이다.

풍경소리는 매년 봄 · 가을 어린이 찬불가 1집씩을 출시해왔다. 현재까지 7집이 출시됐고, 4월에는 찬불가 8집이 출시된다. 풍경소리 식구들에게 겨울이 가장 바쁜 계절인 것도 이 때문이다.

찬불가 앨범이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3개월. 노랫말을 수집 · 선정해 편곡과 반주곡를 만들고, 작곡된 찬불가를 녹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다. 모든 작업은 겨울 내내 진행된다.

이종만 실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녹음실에서 살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새싹불자에게 찬불가를 정리 · 제작해 전수한다는 즐거움도 있다"고 말했다.

풍경소리에서 작곡한 찬불가의 인기는 어린이법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높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가 1월 연수회를 마치며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도교사 58%는 '풍경소리의 찬불가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반응에는 풍경소리 3명의 상근직원과 유익상 · 최미선 등 찬불가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연구위원 10명의 힘이 컸다. 또 각 사찰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스님 등 1백여명으로 구성된 후원단도 한몫했다. 현재 풍경소리는 '어린이찬불가 8집' 가사를 수집 ·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어린이법회 전문교사제 '눈길'

원각사 법륜교사단 결성 교재 · 율동등 개발

경북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전문화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원각사는 효율적인 어린이법회 운영을 위해 전문 지도교사들의 모임인 '법륜교사단'을 결성한다. 법륜교사단은 지역내 파라미타청소년회원 및 청년불자 15~20여명으로 구성된다. 교사들은 만들기, 그리기, 쓰기, 찬불가,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 가운데 한 분야를 맡아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어린이법회를 지도하게 된다. 법륜교사단 교사들은 담당분야의 전문적인 자질함양을 위해 각종 교사수련회에 참석,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원각사는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재 교구 및 찬불가 율동 등의 발표회도 개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원각사는 지도교사전문화 제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참석율을 높이고 지도교사의 부재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각사 주지 대혜스님은 "어린이법회의 가장 어려운 일은 지도교사의 활용"이라며 "전문화된 지도교사 체제를 갖추는 것이 새싹불자 포교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각사 어린이법회는 지난해 7월 21일 여름불교학교를 계기로 창립,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예불, 참선, 교리공부 등을 진행하며, 오후 1시부터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원각사는 특별교육시간에 법륜교사단 전문교사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원각사는 현재 어린이지도교사 경험자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546)481-2363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스님과 상담한적 없다" 70%

원소스님 사찰학생회 3백70명 조사

사찰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불자중 스님과 상담을 해본 학생은 10명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소스님(삼정사 주지)이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계사, 구룡사, 봉은사, 경주연화선원, 부산정오사, 거창포교당, 해인사 불교학생회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3백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님과 전혀 상담을 한적이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57%(2백13명)이었으며 상담할 의사가 있는데 스님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웠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2.7%(47명)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 응답자중 70.3%가 스님과 상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더 어려운 이웃 도울래요"

불우청소년 48명 '동심봉사단' 발족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청소년 48명이 봉사단을 결성해 화제다. 도움을 받는 청소년들이 이제는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돕는 봉사자로 거듭난 것이다.

동심(同心)청소년봉사단(단장 이지은)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직무대행 김한곤)와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의 후원으로 28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청소년단원 및 후원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다.

봉사단은 방학동안 월 2회, 학기 중에는 월 1회씩 '작은사랑실천봉사'와 '청소년 문화활동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마천동 청암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했다.

중앙신도회 김한곤 회장직무대행은 "봉사단은 불우청소년들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타성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알고, 자활의 의지를 길러주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단신

'붓다의 메아리' 축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김광명)는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문화축제 '제48회 붓다의 메아리'를 21일 오후 2시~6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사찰 및 종립학교에 소속된 중 · 고교생. 참가종목은 국악, 사물놀이, 고전무용, 탈춤등 전통예술부문과 연극, 현대무용, 중창, 시낭송, 콩트등 대중예술부문. (02)720-9139

컴퓨터교실 · 댄스공연

함지골청소년수련원(지우스님)은 3일 초 · 중 · 고교생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컴퓨터교실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과정' 'O.A과정' '컴퓨터 초급' 등이 개설됐다. 수강료는 1만원. 또 수련원은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3시 밴드와 댄스공연을 마련하고 영화도 상영한다. 관람료는 무료. (051)405-5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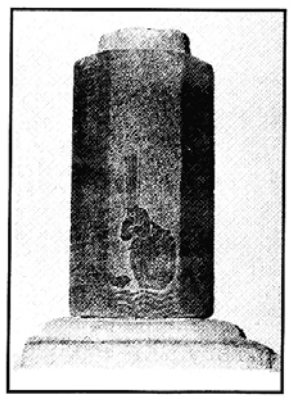
경남여불련 문향원 개원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경남지부(지부장 조용수)는 1월 25일 문향원 개원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문향원은 신행과 수행을 배울 수 있는 여성불자들의 둔화공간.

이번 법회에는 시명스님(창녕 삼성암 주지), 혜등스님(양산 내원사 주지), 원묘스님(마산 광산사), 창원전문대학 배성희 이사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0551)283-0108

募 緣 文



서기 817년 이차돈 성사 추모비 〈경주박물관소장〉

서기 527년 신라땅 경주에서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하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순교자이신 이차돈 성사님의 진리를 찾으시며, 진리를 지키시며, 진리가 되는 생활을 보여주신 이 역사적인 순교가 밑받침이 되지 못하였다면 어찌 세계의 자랑거리인 신라불교가 태어날 수 있었으며 신라 불교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오늘날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런 역사가 있었으리오!

이러한 거룩한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서기 817년 신라시대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현재 경주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차돈 성사님께서 순교하신지 어언 1470년이 흘러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경내에 이제 다시 그 순교정신을 이어 받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부대중들이 뜻을 모아 기념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인연(因緣)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정성을 보내주실 곳 (동참금은 각자 정성으로)
우체국 700047-0333069 박성일(흥륜사 주지)
농 협 721015-52-239100 박성일(흥륜사 주지)

■ 비문 : 일타큰스님 찬 ■ 글 : 덕봉선생

흥륜사 이차돈 성사 추모비 건립위원회

경주시 사정동 281번지 흥륜사내

TEL 0561)772-4834, 43-3776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혜해 합장

1999년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의 의전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각 종단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실기 강의

학 년	강의내용	모집인원	요일/시간	교수진
1 학년	상주권공과	50명	월,수 오후 3~5시	오 송강 스님
2 학년	각배과	50명	목 오후 3~5시	조 인각 스님
3 학년	영산과	50명	금 오후 3~5시	박 송암 큰스님

※특수과 : 목탁, 태징, 요령, 북치는법, 바라, 나비춤, 법고춤등
단, 상주권공과 이상을 수료한 자 (학요일 오후 3~5시 / 교수:한동희스님)

◈이론 강의 : 불교의식이론, 치문(학요일 오후 1시~2시 30분/교수 : 심만준 스님)

2. 응시자격 :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입학원서 (2)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4)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2월 5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범음대학 교무처 (02)392-3234(범음대 직통) (02)392-3007, 3008
6. 합격자 발표 : 1999년 3월 4일 발표 개별 통지
7. 입학일 : 1999년 3월 8일 오후 2시 (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및 정회원 (전수생이상)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전화 392-3234(직통) / 392-3007, 3008 FAX 393-9450

"생존이냐 멸망이냐" 지구오염 심각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2

환경재앙

◇주요 지구환경문제

환경문제	개요 및 영향
오존층 파괴	프레온 방출로 파괴, 피부암 유발, 생태계 악영향
지구 온난화	대기 탄산가스 증가로 발생, 기온·해수면 상승, 곡물생산량 감소
산성비	유황·질소산화물 증가로 발생, 호수·산림생태계 악영향
열대림 감소	화전경작·수목채취등 남벌로 발생, 대기 자정력 저하
사막화 현상	지나친 가축방목·목재채취로 발생, 토지 생산력 저하
야생동물 멸종	서식환경 악화·남획으로 발생, 잠재적 경제가치 손실
해양오염	폐유유출·화학물질 폐기로 발생, 해양생태계·대기환경에 악영향
유해물질 이동	선진국에서 악소국으로 유해물질 이동, 제3세계 환경에 악영향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증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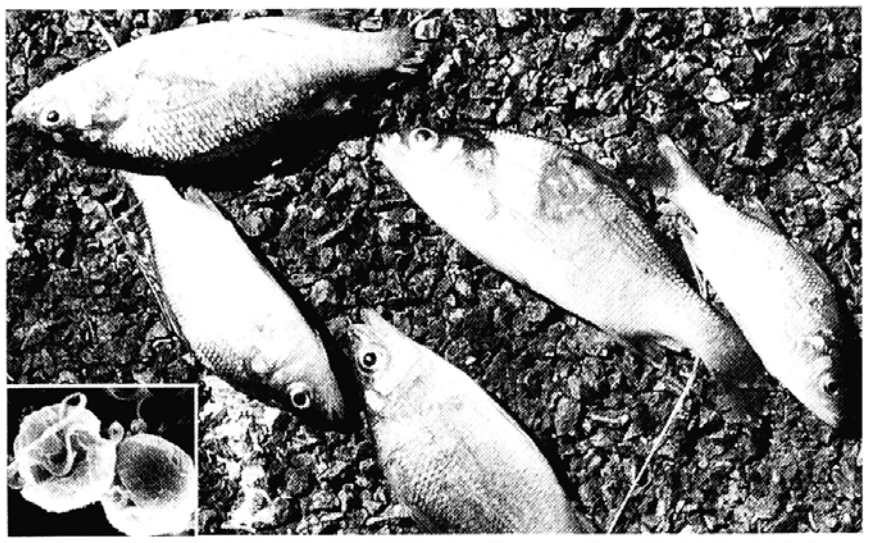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화석연료에서 발생한 탄산가스가 대기를 가득 메우고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다. 더워진 지구에서는 이상기후가 발생해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연안도시들은 수몰된다. 신종 바이러스와 환경호르몬이 수많은 종(種)들을 멸종시킨다. 곡물수확량과 어획량은 점점 줄고, 인구도 급격히 감소한다. 이것은 21세기를 맞는 인류가 직면하게 될 '지구 오염'의 결과다. 환경위기는 바로 인류가 꼭 풀어야 할 21세기 화두다.

지구 온난화 엘니뇨현상은 지구오염의 실증적 발현이다. 병든 지구를 치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순풍우조의 기후를 다시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인류가 삶의 편리만을, 재물의 이익만을 생각한 채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생존이냐 멸망이냐'하는 절박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미 콜로라도대 윌리엄 그레이 교수 등 기상전문가들은 "2000년에 카리브해와 미 대서양 연안 인구밀집지역은 지금보다 두배 가량 많은 허리케인이 닥쳐 끔찍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상학자들은 허리케인의 발생을 엘니뇨 현상과 연결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악영향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가을철 남한강에는 홍수가, 겨울철 낙동강에는 가뭄이 두드러지는 등 우리나라 강수량의 지역적·계절적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시스템공학연구소의 '지구변화 예측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2배가 될 경우 남한강 충주댐 유역에는 저수용량 81%에 달하는 연간 22억3천4백만톤 하천유량이 증가하며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구온난화는 극지방의 빙하도 녹이고 있다. 남·북극과 그린란드지역 빙하들이 모두 줄고 얇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50~70년후면 미 몬태나 빙하국립공원의 빙하들도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전인구의 31%가 거주하는 연안도시의 침수도 불가피해진다.



◇ '물고기 킬러' 피에스테리아에 감염돼 죽은 물고기들. 왼쪽 아래 사진은 미생물인 피에스테리아 세포.

엘니뇨-오존층 파괴-종의 멸종 초래
연기·생명존중 사상서 해법 찾아야

열대림 감소·사막화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과학자들은 2050년을 전후해 아마존이나 동남아 등지의 열대우림이 급격히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구의 허파'격인 열대우림이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목한 열대우림 파괴 주범은 지구온난화 현상. 연구팀 관계자는 "온도가 높아지면 강수보다 증발량이 훨씬 많아진다. 2050~2070년에는 이런 현상이 뚜렷해져 이 시기에 열대우림은 초원지대나 심하면 사막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열대우림은 육지면적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열대우림의 면적은 앞으로 1백년도 못돼 1%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열대우림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가장 평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열대우림이 사라진다면 인류는 허파의 상실과 함께 많은 '동료' 생물들을 잃어야할 처지다.

종의 멸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팜리코강 하구지역에서 물고기들이 동전크기만한 상처를 입은 채 죽어 떠올랐다. 범인은 나중에 피에스테리아로 밝혀졌다. 라틴어로 '물고기 킬러'. 물고기의 면역체계를 파괴해 '물고기 AIDS'로 통하는 피에스테리아는 깨끗한 물에서는 말썽없이 지내지만, 물이 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되면 독소를 내뿜게 된다.

우리나라 경남 거제시에서는 2백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채 발견됐다. 사인은 PCB, DDT 중독이었다. 백로의 몸 속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된 이 독성 화학물질은 동물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려 바이러스 저항력을 떨어뜨린다.

화학물질은 성의 변이를 가져오고 기형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으로도 작용한다. 일본 다마강 유역에 서식하는 수컷잉어의 약 30%에서 생식기능 이상현상이 발견됐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인류가 만들어낸 화학물질이 지구 생태계의 '종'들을 다 죽이고, 급기야 인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인류에게 새로운 식량,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해택을 주는 생물종의 멸종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자정능력 감소를 의미한다.

불교적 해법 이같은 진단과 전망들은 '자연계 순환의 고리가 끊겨나가면서 자연은 복수와 재앙의 칼날을 인류에게 휘두를 것'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

증지부 아함경 주석서인 〈비숫디막가(Visuddhimagga)〉의 한 구절은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의 원인을 분명하게 짚어준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 굶주림의 시대가 온다. 인간의 분노와 증오가 가라앉혀지지 않을 때 학살과 파괴의 시대가 도래한다. 인간의 무지가 한계를 넘어서면 나쁜 유행병의 시대가 열린다."

환경위기는 바로 '욕망' '분노와 증오' '무지' 등과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자연환경 즉, 생태계 전체의 근본 원리는 상호의존, 공생, 상호연관과 보완의 측면이 훨씬 강하다. 상호연관된 존재에서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나올 수 없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는 연기법이었다. 인류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그레이 스나이더(미국·문인)는 "지금의 환경문제를 야기한 자기중심의 개발 페러다임을 모든 생명이 공존 가능한 지구환경 페러다임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선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 생명존중 정신을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이 더 나아가면 데이비드 봄(영국·환경운동가)의 "나누어지지 않은 전체"로 이행하며, 리타 그로스(미국·환경운동가)에서는 "세계는 나의 신체이다"로 진행한다. 또 폴 세퍼드(미국·환경운동가)는 "사물의 관계는 사물만큼 실재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자연을 구성하는 자연적 존재들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통찰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착취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자연에 대한 지배론적인 가치관을 공존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비로소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21세기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동·서양의 환경전문가들은 지금 투쟁과 경쟁이라는 '다윈니즘'의 자연관에서 벗어나고 있다. 고도의 정화기술 보다는 자연의 근본을 통찰하며 생활양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환경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에게 '균형잡힌 생활습관'은 환경보호의 첫 걸음이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에 관심을 갖는다. 수행은 바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나'와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제레미 레프킨교수(미국 코넬대)는 〈엔트로피〉에서 "부처님의 생활방식 즉, 소비를 최소한 줄이고 검소한 삶을 살리는 생활방식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지극히 과학적인 삶의 방식이며, 앞으로 인류 생활의 방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서양의 환경전문가들은 스스로 소비수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발적 빈곤, 이것은 바로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라는 불교의 본래 가르침이다.

불교계 환경운동 사례

농약·비료 안써 토질 보호 과소비 자제 검소한 생활

●유기농과 생협=사람과 자연의 생명을 살리고 상생하는 환경운동이 바로 유기농과 생협이다. 생협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곳이다. 생협은 도시인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키워주고 있다. 또 화학비료로부터 토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부천 석왕사, 서울 영화사, 서울 봉은사, 전남 실상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무심기와 가꾸기=버마 불교인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니밧드하 쿠살라(Nibaddha Kusala) 즉, '오래 지속되는 공덕'으로 간주한다. 전통적인 문화활동으로 자리잡은 니밧드하 쿠살라는 상응부 팔리경전의 〈바나로파숫타〉에서 나온다. 또 특정 지역을 아브하얏타나(Abhayatthana) 즉 '위험없는 지역'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에게 나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그 지역 내의 토지를 아끼고 벌목, 가지치기, 도끼질, 방화 등 모든 형태의 파괴 행위를 삼가라고 호소한다

●반(反)소비운동=태국의 불교지도자 슐락 시바락사가 추진하는 환경운동. 이 운동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사회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청빈한 스님의 삶에서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의 방식을 배워 환경위기를 극복하자는 것. 반소비운동은 특히 '선진국이 소비수준을 줄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 참조된 잉여자본은 제3세계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화폐운동=한국불교교육원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운동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와 기술을 지역화폐로 '약속'하고, 품앗이를 통해 서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화폐는 이윤창출과 부의 축적수단이 되지만 지역화폐는 서로를 돕고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운동의 동력이다. 지역화폐운동은 인간의 미망과 아집을 태우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사회, 나아가 자연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불교와 환경 관련책

환경보존 불교적 대안 제시

▲〈불교와 환경〉 불교적 세계관과 보살의 삶을 통해 불교환경관을 제시한 책. 저자 법륜스님은 이 책에서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이 일체라는 관점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정토출판 刊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 대승·상좌부불교의 환경관에서 불교와 생태학을 결합한 현대의 에코부디즘(Eco-Buddhism)까지의 불교환경론을 소개한 책. 미국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소에서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96년부터 3년간 진행된 연구 프로젝트 논문 19편이 수록됐다. 하버드대학출판 刊

▲〈불교와 환경보존〉 불교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을 위해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에서 펴낸 책. '불자환경수칙', '환경친화적 계율'등 개인적 실천관에서 '국립공원' '유기농' '생협'등 사회적 실천관까지 배울 수 있다. 아름다운세상 刊.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법회안내



종범스님(중앙승가대교수) 2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불자가수회 합동법회. (02)703-0108



법장스님(무진법장사)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일요가족합동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거사회 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30분 초삼일법화성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30분 지장재일업장참회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30분 관음재일행복발원기도법회. (02)932-2333

능인스님(광륵사 주지) 매월 음력 8일 오전 10시 약사재일법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기초교리강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천일기도천도법회. 매월 세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칠성계법회. (062)222-7801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 3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다보법회. (02)703-010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2월3일 (수)

■**금강경독송회 입춘 철야정진법회**=금강경독송회(회장 김재웅) 서울 혜화법당은 밤 11시 입춘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금강경 7독 및 미륵존여래불정진을 한다. (02)742-0172

2월4일 (목)

■**철원 심원사, 도피안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30분 지장도량 철원 심원사에서 입춘불공을 올리고, 도피안사를 참배한다. (02)279-1191

2월6일 (토)

■**불교귀농학교 개강**=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스님)가 3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열린다. (02)723-1884

■**한국불교연구원 대전구도회 창립법회**=오후 4시 30분 대전구도회 회관에서 한국불교연구원 대전구도회 창립법회가 봉행된다. 대전구도회는 이에앞서 4일부터 매일 저녁 7시 불교사상강좌도 진행한다. (042)527-0559

■**길상사 주말수련회**=길상사 1박2일 주말수련회가 7일까지 열린다. 오후 2시 30분에 입재해 일요일 오후 8시에 회향한다. (02)3672-5945

■**터사랑 향일암 답사**=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밤 9시 여수 향일암으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해돋이를 감상하고, 호국사찰 흥국사를 둘러볼 계획이다. (02)725-1284

2월7일 (일)

■**금강메아리 삼막사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윤부윤)는 삼성산 삼막사로 산행법회를 떠난다. 서울대 정문에서 9시에 출발한다. (02)772-9517

■**서울불교청년회 무료투약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오전 10시~오후 4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불자약사회 보리회와 실직자, 노인을 위한 무료투약봉사를 진행한다. (02)730-9108

■**부산불교교육원 봉정사, 부석사 답사**=부산불교교육원은 건축문화의해를 맞아 오전 8시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등지로 답사를 떠난다. (051)466-4080

2월10일 (수)

■**직지사 중암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김천 직지사 중암으로 참배법회를 떠난다. 관응 큰스님의 법문도 들을 예정이다. (02)279-1191

■**다보문화강좌 티벳불교와 문화**=오후 2시 불교문화센터 다보문화강좌에서 주민황박사(인도 델리대)가 '티벳불교와 문화일반'에 대해 강의한다. (02)703-0108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맞이에 불자들이 앞장서자.

설날 떡나누기 자비행

복지관등 독거노인 · 소년가장 · 재소자 위문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프로그램 준비에 분주하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맞이에 동참해 보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12일 설맞이 쌀떡 전달행사를 지역내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대상으로 전개한다. (02)852-0525

옥수종합사회복지관: 11일~12일 오전 10시~오후 5시 복지관 2층 로비와 옥수 1동 분소사무실에서 설떡나누기 행사를 실시한다. (02)2282-1100

중리종합복지관: 12일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설맞이 떡국보내기 행사를 전개한다. (0551)231-8017

서울불교청년회: 7일 대부도 자현사 등지청소년의 집을 방문, 설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02)730-9108

안양교도소불교종교위원회: 설날 아침 회장 현성스님과 설날합동차례를 지내고, 재소자들에게 떡국공양을 한다. (02)3216-4822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월정사 교구종회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주지 현해)는 8일 서별당에서 교구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구종회에서는 98년 결산, 99년 예산을 비롯 종무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봉선사 방생법회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밀운)는 27일 양양 낙산사 홍련암 일대서 수륙영가천도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태고종

종무직원법회 창립

총무원 종무직원법회가 창립된다.

종무직원들은 1월 15일 총무부실에서 직원회의를 열고 종무원의 신심함양과 종단관 확립을 위해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12시에 종무처 설법전에서 직원법회를 갖기로 했다. 첫 법회는 27일 운곡 총무원장을 법사로 초청해 봉행하기로 했다.

종정사서실장 지현스님



종정사서실장에 지현스님(남양주 도법사 주지 · 사진)이 1월 21일 임명됐다.

지현스님은 "미력한 사람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 어깨가 무겁다"며 "종정스님을 받들어 모시고 종단발전을 위해 신명을 바쳐 일하겠다"고 말했다.

지현스님은 63년 법륜사에서 인공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경기동부종무원 남양주분원장을 역임했다.

전국교임협 신년교례회

전국교임협의회는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한일관에서 2, 3대 회장 상견례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2백여명의 교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3대 박대각화 회장은 "전임회장단과 긴밀히 협조해 전국 5백여명의 교임들과의 결속력을 다지고, 숙원사업인 교임협의회 사무실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3백여 스님안거 입제식

총무원(원장 운덕)은 1월 27일 밤10시 구인사 삼보당에서 동계 승려안거 입제식을 봉행했다. 3백여명의 스님이 참여한 안거는 2달간 진행된다.

금강불교대학 15회 졸업식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은 6일 오전 11시 관문사 옥불전에서 제15회 졸업식을 갖는다. 총무원 교육부장 도원스님이 함께하는 이날 졸업식에서는 86명의 졸업생이 배출된다.

진각종

새해맞이 49일 불공 봉행



통리원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심인당은 3월8일까지 새해맞이 49일 불공을 봉행하고 있다.

종립교 심학교사 모집

통리원(원장 성초)은 심인중·고등학교와 진선여중·고등학교에서 일할 심학교사를 모집한다.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종교학(불교)을 이수한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02)913-0751

총지종

예비성직자 교육 실시

통리원(원장 총지화)은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강의실에서 시무(예비성직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에서 최하 7개월 이상의 시무생활을 한 예비 성직자 12명이 참여했다.

총화종

정오 경북종무원장 취임

경북종무원장 정오스님 취임법회가 1월 22일 경북 영양 태성사에서 있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향산장학회 장학생선발**=우리는 선우가 21세기를 이끌어 갈 젊은불자 양성을위해 향산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적극적인 불교활동을 해온 고등학생과 대학생. 8일까지 서류접수.
(02)2278-8672

△**발건강 무료 공개강좌**=F.R.S 발건강교육원은 6일 오후 2시 발반사건강요법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한다.
(080)765-4872

△**메주 판매**=금강경독송회는 포항 금강정사에서 옛날 방식으로 직접 제조한 메주를 판매한다. 소두 1말에 5만5천원이며 수익금은 청소년 수련도량 건금기금으로 사용된다.
(056)262-2231

♣ 강좌

△**기초교리**=광륵사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불자들을 위한 기초교리강좌를 개설했다. 3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3만원. (062)222-7801

△**〈장자〉**=우리문화사랑은 99년도 상반기 정기강좌 〈장자〉를 3일 개강한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동숭동 무애빌딩 강의실에서 성균관대 안병주 명예교수가 지도한다. (02)3675-5506

△**재즈댄스, 에어로빅, 요리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재즈댄스, 에어로빅, 취미요리반, 자격증대비조리반 등의 강좌를 개설했다. 주부들의 수강을 위해 시간제 탁아방도 운영한다. (02)852-0525

△**메이크업교실**=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을 위한 메이크업교실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연다. 자기표현, 프로 메이크업을 지도한다.
(0343)393-3677

△**케익과 쿠키만들기**=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1시30분 케익과 쿠키만들기 강좌를 실시한다. 수강료는 1개월에 5만원이다.
(02)2282-1100

△**반야심경 달마대사 그림지도**=한국불교예술문화원에서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서예 및 반야심경 달마대사 그림을 지도한다. (02)2242-0331

△**직장인 컴퓨터 교육**=목동청소년회관은 99년도 상반기 직장인을 위한 컴퓨터 맞춤교육을 실시한다. 아침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매주 월, 수, 금요일에 강의한다. (02)646-6815

△**한글사랑방**=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강좌를 개설했다.
(02)989-4215

♣ 모집

△**법안명상학교 신입생**=법사원불교대학 조치원분원 법안명상 사범학교가 법안명상과, 기공사범과, 불교학과, 만국역리학과 등 99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415)867-4000

△**덕유복지관 후원자**=덕유종합사회복지관은 일대일결연후원, 사랑의쌀 후원, 밑반찬 및 물품후원 등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합창단 무용단원**=통도사 부산포교원은 법소리합창단, 청년혼성중창단, 어린이합창단, 우바이무용단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051)816-2241

△**청소년무료급식 후원자**=공창사회복지관은 방학중 점심을 굶는 초중고생들을 위한 청소년무료급식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363-2068

△**독거노인 자원봉사자**=개금사회복지관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전화하기와 세탁서비스를 펼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893-5034

♣ 답사

△**오죽헌 · 경포대**=옛돌은 9일 오전 8시 강릉의 고가와 오대산 사찰탐방을 떠난다. 경포대, 선교장, 오죽헌 등을 둘러본다. (02)2266-1233

♣ 이전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2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48-18 수성빌딩 2층으로 이전했다. (02)732-4885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587-8997

△**불교신문사**는 1월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2번지로 사무실을 옮겼다. (02)733-1604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晟)스님 옮김
B6변형 278쪽/ 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주머니속 대장경 301 - 선 (禪)



허운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천사의 묘련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조와 염불을 하였으며 31세에는 천태산 용천암 융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액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고정진한 끝에,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십개소의 가람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재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삐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이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요긴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수록 내용

제1부 참선요지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장 선방 법문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제3장 참선경어
제4장 제석보다시중 (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제2부 선칠법문
부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

"우리절엔 신도가 늘어요"

사찰 특화 프로그램 포교활성화 큰 도움

천불사 큰스님 초청법회
송광사 4박5일 단기출가
대원사 염불선 주말수련
삼광사 한글학교 운영

경제난과 조계종 사태로 사찰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큰스님 초청법회, 주말수련회, 한글학교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은 스스로 "우리 절은 작지만 큰 절이다"고 소개한다. 스님은 하루 종무시간 대부분 큰스님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것으로 보낸다. 매월 음력 초닷새에 열리는 '큰스님 초청법회'에 법사스님을 섭외하기 위해서다. 94년 처음 시작한 법회에는 서암 석주스님 등 웬만한 큰스님들은 한번쯤 법문했고 수만명이 천불사를 찾아 법문을 들었다.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93년부터 '죽음을 준비합시다'라는 독특한 주제로 1박2일 염불선 주말수련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련회는 정토수행법, 선체조, 명상음악, 관정기도 등이 무료로 진행돼 직장 직능 신행단체 청년회 등으로부터 '수련회=대원사'로 통하고 있다.

특화된 프로그램의 시원은 송광사 '4박5일 단기출가'. 송광사는 이제 불자들만의 도량이 아니라 정진적 육체적 안온을 원하는 국민들의 안식처로 발돋움 했다. 이처럼 사찰들이 갈수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각종 연수및 수련회,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는 영산재시연, 서울 백련사(주지 월해)는 한문서당, 부산 혜운정사(조실 진제)는 시민선방,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한글학교,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선무도,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안)는 약수터,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는 불교대학 등을 실시해 신도와 지역민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사찰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뒤떨어진 포교와 사회사업 등 불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신심을 증장시키고 지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사찰이나 포교당의 경우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법 포교 인재양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원장 심산스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은 귀농희망자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스님들이 솔선수범하니 종무원과 신도들도 안 따라갈 수 없다.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씨름한다 한다는 것이 종무원들의 얘기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용수사 '보시레저타운'



◇지난 92년부터 불사를 시작한 양평 용수사는 현재 대웅전 설법전 요사채 등이 들어서고 있다. 원내는 주지 일영스님.

수행 · 요양 겸한 전천후 도량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경기도 양평에 최적의 시설을 갖춘 종합도량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불자들의 수련과 스님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창건되는 문수산 용수사(주지 일영) 보시레저타운이 바로 그곳.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1만여평 부지에 터를 잡은 용수사 보시레저타운은 대웅전, 설법전, 요사채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웅전(33평)은 막바지 단청불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하1층 지상2층 1백80평규모의 요사채는 2월중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평 5백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설법전과 강당을 갖춘 불교회관 공사는 골격을 갖춰 3층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불교회관 지하1층에는 스님들만을 위한 장수탑(납골탑)이 세워질 계획이다. 내년 1차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용수사 보시레저타운은 2천년부터 2·3차공사로 산신각 나한전 극락전 사설양로원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1만여평 부지에 대작불사
대웅전 · 납골탑 등 공사

만수산이 병풍처럼 휘감고 맑은 계곡물이 S자로 굽이치는 곳에 세워지는 보시레저타운. 노비구니스님인 일영스님(85)이 "여법한 도량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를 이루는 수행터전을 만들자"는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전에 마지막으로 회향하겠다는 불사다. 그런만큼 지난 92년부터 가파른 논밭과 산을 깎아내고 토목공사를 하는데만도 3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일영스님은 앵자산 천진암터에 영통사를 짓고 천진암을 복원하려다 변기영신부가 천진암을 천주교성지로 만들면서 여러 방해로 나온 스님. 스님은 "8·15해방 때 금강산 수미암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로 '빨갱이'로 몰아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은 것이 천주교와 군 그리고 관공서에 서운했다"며 "이제는 모든 과거일을 훌훌 벗어 버리고 후세불자들을 위해 새로운 터전에 대작불사를 하고 편안히 열반에 들겠다"고 밝혔다. (0338)71-0134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회암사지 · 칠장사 관광지로 개발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의 무대였던 양주 회암사지, 의적 임꺽정의 활동무대였던 안성 칠장사 일원 등이 관광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설이나 역사속 인물의 활동무대와 TV드라마 촬영장소 등을 관광코스화 할 계획이라고 1월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곳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지답사,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해 2~3곳의 관광지개발 후보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이 끝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결정한 뒤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내에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안성 칠장사, 양주 회암사지, 양주 감악산 일대,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배경인 안산시 본오동 일원 등 6곳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경남 양산 천불사서 통일신라 금동불 출토

경남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천불사(주지 도봉) 대웅전 정원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과 단지 등 유물 6점이 출토됐다.

높이 20㎝ 크기의 금동여래입상 1점과 불두 2점은 1월 8일경 대웅전 좌측 측대 침하방지를 위해 주변정원 성토작업을 하던 중 2m지하에 있던 단지와 함께 발견됐다.

천불사 출토 유물에 대해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부산 부처님오신날 종단화합 역점

결식아동 · 북 동포돕기 · 헌혈 등 행사 계획

부산지역 부처님오신날(5월22일) 봉축행사가 경제난과 조계종 사태를 극복하는 의미로 열린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1월 21일 사무실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연구기획위원회(위원장 심산스님) 회의를 갖고 전시회, 화합의 장, 북지, 청소년행사 등 5개 부문의 봉축행사를 확정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결식아동과 불우이웃 북녘동포를 위한 10원짜리 동전과 자비의 쌀 모으기, 영세민을 위한 영정사진 찍어주기, 헌혈 등 복지. 이밖에도 외국인 연등만들기 대회, 우리차 마시기 시음회, 환경등반대회, 축구대회, 연합합창제, 가두찬불가공연, 시낭송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봉축행사는 부처님오신날 보름전부터 시내 각 사찰과 부산역광장 시민회관 등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며 부산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부산불교신도회 불교자원봉사회 불국토 한마음선원 등 부산의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여한다.

부산시불교연합회 제유호 사무차장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조계종 사태로 어지러워진 불교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승가원 법당 점안식 승가원 횡성 종합복지타운 법당 점안식이 1월 28일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소쩍새마을 원장 보각스님, 아나율의 집 경운스님, 강북그룹홈 지명스님을 비롯 후원회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점안식에 이어 복지타운불사 원만회향 기원 천일기도 입제식이 있었다.

그늘진 이웃에 따뜻한 자비행

제천불교어머니회

소년가장 · 독거노인 등에
장학금 · 쌀 · 의료비 전달

소외된 이웃을 위해 노력봉사와 장학사업 등 아낌없는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제천 불교어머니 봉사회(회장 박정희) 30명의 회원들은 12일 관내 환경 미화요원 91명 전원에게 겨울 목도리(30단원 상당)를 전달한다.

봉사회는 95년이후 34회에 걸쳐 1백73개 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 8백72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특히 봉사회원들은 제천고 김모군에게 매 분기별로 20만원씩 3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혈병을 앓고 있는 덕산면 성암리 이모양(14)과 봉양읍 미당리 서모군(15)에게 각각 1백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 이밖에도 매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를 비롯해 영아원과 원주 소쩍새마을을 찾아 국수, 쌀, 연탄, 위로금을 전달하고 목욕, 세탁, 청소 등 노력봉사도 하고 있다.

제천 불교어머니 봉사회의 이러한 활동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수, 미역, 멸치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어려운 이웃들의 용기가 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불갑사 김해 포교당 개원

경남 포교거점 '모란선원'…진신사리탑 세워

불갑사(조실 수산)는 1월 23일 경남 김해에 경남포교당 모란선원(주지 영월)을 개원했다.

김해시 생림면 모란유치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란선원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과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웅전을 갖추고 있다.

모란선원은 5년전부터 김해지역 포교를 위해 운영해오던 공간을 공식적인 포교당으로 등록한 것으로 앞으로 김해지역은 물론 경남 일원의 포교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월스님은 "지역민들의 신행활동을 돕고 올바른 정진을 위한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자비사 부산소년원 위문 무기수 김희로 성품 전달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는 1일 부산소년원을 방문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재일교포 무기수 김희로씨가 고국의 소년원생들에게 보내온 5만엔의 회향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희로씨는 1월 11일 구마모토 형무소를 면회 온 삼중스님에게 "자신을 대신해 아이들에게 속옷을 사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중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부산소년원을 찾아 소년원생들에게 내의를 전달하는 한편 김희로씨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법회를 가졌다.

길상암 명진스님 100재 유언따라 양로원 추진

동광당 명진스님(前 해인사 주지) 100재가 8일 오전10시 해인사 길상암에서 봉행된다.

98년 11월 1일 세수 60세로 열반에 든 명진스님은 30여년을 해인사에서만 주석하면서 수행자다운 청빈한 삶을 살아, 조계종 분규로 침체된 교계에서 추모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명진스님 문도회(회장 덕운 · 조계종 선거관리위원장)는 스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 터닦기 작업을 해온 가야산 해인사 아랫마을에 위치한 2천여평 부지에 양로원을 짓기로 하고, 3백명 수용규모로 올 가을경 건축공사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님이 남긴 정재로 장학기금을 만들어 해인사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다비식 때 수습한 61과의 사리를 봉안할 부도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명진스님의 맏상좌인 덕운스님은 "은사스님은 자비보살행의 실천과 근검 그 자체가 생활이셨다"고 회고하고 "종단이 세속적 이해관계로 시끄럽다보니 스님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여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국어사전 佛紀서술 잘못됐다"

호원대 오종근교수 '불교의 기원은 석가모니 입멸한 해' 자료첨부 정정요청 수정출판 약속 받아내



한 돌자의 노력이 우리나라 모든 국어사전의 불기(佛紀)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바로잡았다. 오종근 보리방송모니터회 전북지부장(47·호원대교수·사진)이 그 주인공.

일은 아주 사소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해 10월말, 한 일간지 기사. '석가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불기(佛紀)로 서기 2000년은 2565년이 된다'는 것이었다. '2544년이 되는데 2565년이라니?' 바로 신문사에 전화를 했다. "국어사전을 참고했는데, 틀렸다니 이해가 안된다"는 답당기자의 답변이 그를 놀라게 했다.

즉시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사전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물음에 부딪혔을 때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제일로 삼아야 한다.

유명출판사에서 펴낸 6개의 국어사전 모두 한결같이 '100년을 1기로 셈한 불타의 연기(年紀), 기원 전 565년부터 시작함'이라고 엉뚱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국어사전의 텍스트가 되어야 할 불교사전에는 아예 항목조차 없었다. 올바른 불기의 서술을 찾기 위해 서울 대형서점을 십여차례 오갔다. 사전을 구입할 형편이 못돼 서점 한켠에 주저앉아 베껴썼다.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94년판) 만이 바르게 서술돼 있었다. "불교의 기원(紀元)으로부터 헤아리는 불교의 햇수, 불교의 기원은 석가모니가 타계한 연도…한국불교는 세계불교도우의회(WFB)의 결의에 따라 이 불기(1956년이 불멸 2500년)를 따르고 있다…."

오교수는 한글학회와 금성, 삼성 등 국어사전을 펴낸 출판사에 자료를 첨부해 "불기→불멸기원, 석가모니가 입멸한 해를 기원으로 하는 연기(年紀). B.C. 544년부터 시작함"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모든 사전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출판되는 국어사전에 수정하여 출판하겠습니다." 석달간에 걸친 '바로잡기'가 결실을 맺었다.

"30여년 전부터 세계공통의 불기를 써왔는데 이제껏 틀린 것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니 보람을 느낍니다." 작지만 큰일을 해낸 오교수는 "잘못 알려진 불교를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며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불교를 바로 서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명이 무문(無門)인 오교수는 전북불교회관 자원봉사팀장, 화엄불교대학 비상근 기획처장, 우리는 선우 전주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현대불교 신행수기 시상 제4회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시상식이 1월26일 한마음사랑방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국성스님, 종단협의회 사무차장 자월스님, 불교진흥원 최명순 사무국장 등 시상단체 대표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사장을 비롯 수상자 7명, 신수회, 심우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조계사 발전방향' 공청회

9일 범불교연대회의

조계종 분규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조계사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범불고연대회의(공동대표 도법 법등 원택 진허 박광서 임완숙 백남석)는 9일 오후 2시 조계사 제1문화교육회관에서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조계사 발전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계종포교사단 임동현사무국장이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조계사 운영방안'을 발제하고, 조계사청년회 이종찬회장이 '조계사 신행단체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통해 분열된 신행단체와 신도들의 화합 방안을 발표한다.

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은 '21세기 열린포교 문화공간으로서의 조계사'를 통해 한국불교 포교 1번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주제 발제에 이어 펼쳐질 토론회에는 재가연대 정웅정사무처장, 조계종봉축위 박상희간사, 자비의전화 신희권 사무국장, 일과깨달음도량 종명스님, 조계사 신도 등이 참석해 조계사 거듭나기를 위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농성' 동국대 교수회 간부 8명 징계위, 출두요청서 발부

동국대 차기 총장 선출과 관련, 교수회와 학교 당국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교수회(회장 유덕기)가 '이사회 송석구 총장 재임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1월14일부터 다시 농성에 들어가자 학교측이 교수회 간부 8명에게 징계위원회 출두요청서를 발부해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학교측 관계자는 "교수회가 학교를 음해하는 선전물을 부착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교수회는 징계위원회 출석사유가 교수회 업무와 관련된 만큼 교수회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징계위에 1차 출두시한(1월25일)을 2월10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교수회는 징계반대 서명운동과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측은 교수회의 출두연기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1월28일 현재 1일까지 출두할 것을 밝힌 2차 출두요청서를 교수회에 발부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관광사찰 외국인안내 불교영어 소식지 발간

적극 포교

국제포교사회 올 사업계획 확정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양장운)는 창립 2주년째인 올해 관광사찰 외국인 안내와 불교영어 소식지 발간 등 외국인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제포교사회는 1월 23일 경기도 산본 정혜사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은 △외국인법회 지도법사 파견 △관광사찰 외국인 안내 △영어불교테이프 제작, 보급 △영문판 계간 〈한국불교〉 발간 등이다.

외국인법회 지도법사 파견은 우선 네팔불자회를 지원키로 했다.

국제포교사회는 또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론교육 이수 후 국제포교사회의 자체 실수과정을 거친 뒤 품수토록 조계종 포교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문화재관리국 공공근로사업 실시

문화재관리국은 서울 경기 일원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능·원 사적지 정비를 위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2월부터 실시한다.

사적지 정비 공공근로 사업은 문화재관리국 13개 지구 관리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은 '99년 2월~5월, '99년 9월~12월의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는 10억 여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도심의 실업자 168명(연인원 32,256명)이 8개월간 일한다.

문화재관리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선시대 능·원 사적지 보존관리, 산림환경 개선, 시설물 정비 등 국민들에게 안락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중국 위안부초청 추진

나눔의집, 5일 찻집행사

중국에 생존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의 고국방문이 나눔의집 위안부할머니들에 의해 추진된다. 나눔의집은 97년 10월 중국 흑룡강성과 길림성에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 5명이 생존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중 문명금·지돌이 할머니의 귀국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의집은 이들 두 할머니의 초청기금 마련을 위해 5일~7일 안국동 살마시오소라에서 '3일간의 사랑나누기' 찻집행사를 연다.

혜진스님은 "두 할머니의 귀국을 추진하는데는 수속비, 체류비 등 약 1천2백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나눔의집 (0347)768-0064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조계종 전국신도회 재가동 채비

새 회장에 선진규씨 추대 중신회와 통합논의 나올듯

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사실상 해체상태에 있던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새 회장을 뽑으며 재가동 채비에 나섰다.

사단법인 조계종전국신도회는 1일 27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제24차 대의원총회를 열어 18대 회장에 선진규법사(65·봉화산수련원장)를 추대했다. 전체 186명의 대의원 가운데 137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전국신도회는 7인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수)가 추천한 선법사를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했다. 〈새 회장 인터뷰 4면〉

대의원총회에서는 또 2억9천여만원의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주요사업으로 △새로운 신도운동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대도시 순회 염불정토 결사대법회 봉행 △시·도 신도회 재정비 및 특수단체 조직화 △불교교양대학 및 포교당 설치 독려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회장 및 사무총장 등 임원 인선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또 △교단분쟁에 관여치 않는다 △불법 수호와 흥법에 주력 △진정한 수행인의 공경 등 6개항의 '새 불교운동 추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신도회가 새 회장을 뽑고 체제정비에 나섬으로써 다시 조계종단내에 중앙신도회(공동회장 직무대행 김한곤 홍옥진)와 함께 사실상 두 개의 신도회 체제가 형성됐다. 전국신도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 중앙신도회는 "신도들의 분열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종단 재편기를 맞아 신도회의 재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자연스럽게 통합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2년 전 윌주 당시 총무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결성된 중앙신도회는 새 총무원장 체제가 들어서며 총무원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신도회도 출범 2년여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고, 현재도 회장 공백의 회장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두 신도회의 통합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신도회 신임 선진규회장은 "통합을 염두에 두겠으나, 우선은 내부 정비에 역점을 두겠다. 무리한 통합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신도회도 지도부 공백상태여서 새 회장 선출 이후에나 통합 논의가 가능하다. 중앙신도회는 이달 말 대의원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뉴스 & 뉴스

평택에 경로의원 개원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1일 평택 남부노인복지회관 경로의원과 경로식당 문을 열고, 65세 이상의 관내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서비스에 들어갔다.

연꽃마을은 남부경로의원에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물리치료실, X-RAY실, 심전도실 등을 갖추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또 경로식당에서 하루 130여명의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연꽃마을은 평택 남부노인복지회관 외에도 지난해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인수, 운영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北 성도절 '출타행' 요구

북한은 성도절을 맞아 한국 불자들에게 북한과 연대해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애국애족의 출타행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불교도연맹 정성화 책임지도원은 1월 25일 평양방송에 출연, "올해 남북 불교인들에게 주어진 주요과제는 남조선의 자주화 실현과 민족대단결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우리(북한)와 연대해 조국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애국애족의 출타행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도필선 기자

조계종 간병봉사자 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3일부터 4월2일까지 간병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생아 및 산모관리, 암의 증세와 관리,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환자다루기, 중풍·치매환자 관리, 환자의 발 맛사지법, 환자와의 대화법, 염습법 등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02)723-5101

도필선 기자

무의탁노인 생일잔치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매월 무의탁노인을 위한 생신잔치를 연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매달 생일을 맞은 무의탁노인을 초청,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2시 복지관 식당에서 잔치를 벌인다. 생신잔치는 생일선물 전달식과 여흥으로 진행된다.

한편,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생일잔치에 먹거리와 선물, 성금 등을 지원해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82-1100 도필선 기자

구속자석방 단식농성 해제

12·23 법난규탄 및 구속자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농성단(대표 도견)이 1월28일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중앙승가대학 학인 10여명이 참여했던 농성단은 13일동안 12·23 조계종 사태 구속자석방대책위 사무실에서 단식을 해 왔으나 체력적 한계에 부딪혀 농성을 중단했다.

도필선 기자

아봐타 코스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달음과 평화를 얻으십시오.

아봐타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 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한 매우 강력하며 빠른 효과를 가져오는 코-스(프로그램)이다.

3부로 나누어진 아봐타 코-스의 목표는 자신의 신념체계를 탐구하도록 안내하며 스스로 바꾸기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봐타 코-스는** 자신의 개의식의 속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여는 것이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아봐타 코스에서 당신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아봐타 코스는 7일~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에게는 무료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지하철 양재역 5번출구~마을버스(구룡사행) 심호물산 하차

慧元 아봐타 센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혜빌딩 2층
전화: (02)579-9379 FAX: (02)572-5514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떡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시중의 단전호흡은 부처님 호흡법이 아니며 수련을 잘못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멍치 아프고, 옆구리 결리고, 혈압 오르며, 머리 무겁고, 위장 병 생기며 얼굴 노래지다 검어지며 병이 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기도되는 염불禪으로 불자답게 수행하십시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3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7시~8시)
- 불자기업 오스트세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15개월만 복용하면 20kg 이상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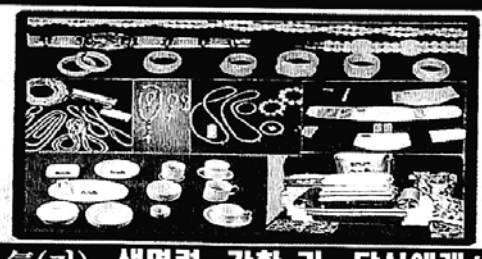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본사 생산제품 -
솔 선 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신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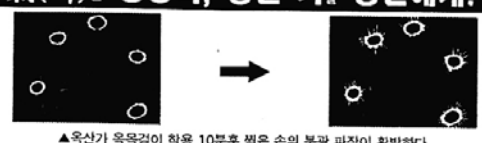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파장이 활발하다.
옥목 사용전 1.5μV 옥목사용후 3.0μV로 체내전압 상승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너무힘들 때는, 옥을 같이 사용해 보세요!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玉山家에서 기록만을 찍찜어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옥분108염주(10mm, ₩60,000)
- 목걸이 겸용 옥혼합제품
-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 무거운 것을 싫어하는 분에 적합
- 마음자리를 잘 볼 수 있고 탐진치의 貪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전옥은 만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02)777-0105 (우편판매可)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발없는 발로 손없는 손으로 ①

윤순복 〈경북 영주시 휴천3동〉

남편을 떠나려 할 때마다 천진한 세아이 눈망울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오대산 그 깊은 골짜기에서 한학을 가르치시며 가난함을 청정함이라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가을이다.

"저 산에도 그 생명줄이 다 있어." 아버지는 이 커다란 법을 아셨던 걸까. 난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가난하다. 산등성이의 돌투성이 밭을 일구며 알곰살의 어린 나는 '이 다음에 돈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먹고 예쁜 꽃고무신도 사 신을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인간은 저마다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알고 산다. 어려움에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날 괴롭게 할 때에도 그때마다 희망은 언제나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의 결혼. 결혼식날 아침 쌍둥이언니의 머리를 만져주며 한없이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던 미용사인 나. 폐백바구니를 직접 꾸리며 세상이 싫었던 나!

그렇게 시작한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고행이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놀고 먹는 남편이 술취한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매!

싫다는 사람에게 결혼 안하면 죽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으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의 행동은 차라리 배신이었다.

1년 뒤에 태어난 첫딸. 태어나 백일 밤낮을 꼬박 울던 아이. 아이를 낳고도 달라지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난 그저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자식은 애물이라고 했던가. 엄마 아빠를 떠나선 아무에게도 가려 하지 않는 딸을 보면서 또다른 시작을 생각했다. 그렇게 살다보니 어느덧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아이는 둘이 더 늘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생가가 있는 그곳에 시집가서 7년만에 남편 직장이 있는 고향 오대산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박봉의 남편, 어린 세 딸을 데리고 군사정권의 가시같은 흐름 속에서 살아가기란 무척 어려웠다. 미용기술이 있었지만 자격증이 없던 관계로 써먹을 수도 없었다. 자그마한 농촌이었기에 날품으로 근근히 살 수 있었다. 어린 자식들은 새참으로 나온 빵이나 우유를 기다리며 저녁이면 온통 흙투성이가 되어서는 못난 에미를 기다렸다. 엄마보다는 그 새참을 생각하면서.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고행이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마구 때리고…

봄이면 오대산 골짜기 골짜기로 나물을 뜯으러 다녔다. 남들보다 작은 체구의 마른 나는 언제나 '내가 더 많이 뜯어야 아이들 새우깡이라도 사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물을 많이 뜯는 나물보고 사람들은 칼로 베어오지 않나 하고 의심하곤 했었다. 국립공원 내였기에 자연훼손방지 차원에서 조를 짜서 가곤 했을 때였기 때문이다.

때때로 남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세 딸의 천진한 눈이, 엄마의 새참을 기다리는 까만 눈동자의 그 아이들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큰 애는 어려서부터 유독 잘 따지고 다툴곤 했다. 술취해 들어오는 밤마다 가족들을 모두 내몰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자는 남편덕분에 추운 겨울이나 모기가 극성인 여름에도 밖에서 세 아이와 새벽을 보낼 때가 부지기수였다. 그런 아빠가 딸애는 무척 미웠었나 보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날도 만취가 되어 들어온 남편은 연탄아궁이에 연탄집게를 올려놓으며 달구어지면 팔러 죽이겠다고 했다. 큰애만 남고 작은 애들과 난 숨다숨다 남편이 칼을 집던 그 순간에 죽지않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장롱 속으로 숨었다. 큰애인 아빠가 참 이뻐해주는 편이어서 그날도 "넌 죽이지 않을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이 잠들기를 바라며 보채지도 않는 아이들과 그 속에서 한참을 있다 보니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며시 나와 애들을 재우고 보니 큰딸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 새벽에 아이 이름을 부르며 동네를 헤매고 있는데 달빛에 하얀 내의를 입은 계집애 하나가 훌쩍거리며 맨발로 내게로 왔다. 죽기 싫어서 10분거리의 초등학교까지 갔다 왔다면서.

지금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내 과보임을 알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참회하는 마음 그지 없지만 당시엔 가슴을 칼로 저미는 듯 아련하기만 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또다른 돌재물림으로 정권이 바뀌고 큰 애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난 초등학교 운동장도 못가본 사람이다. 하지만 남편은 고등교육을 받은 이였다. 그런 그가 발들이 있건 없건 주위 사람들이 있건 없건 "병신같은 년, 못배웠으면 못배운 대로 있지 아는 척은" 이라며 함부로 말을 했다.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바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술취한 남편이 때려도 그가 잠이 들면 애들과 조용히 들어가 자고선 다음날 아침엔 잊어버렸던 것일까, 아니 그건 잊혀짐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였다. 어떤 부인들처럼 바가지 긁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는 일이었다.

유독 기대를 많이 했던 큰애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점점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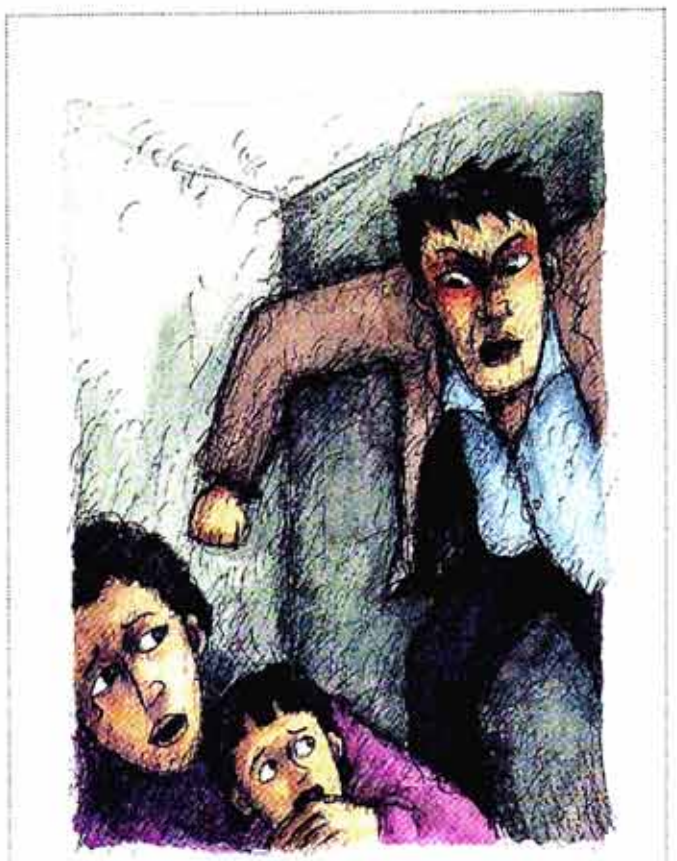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더 신경을 썼는데도 말이다. 처음 중학생 학부형이 된 나는 작고 마른 그 애가 큰 가방에 사전이며 도시락을 넣어 40분거리의 시내 중학교를 통학하는 것이 안타까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비타민을 사먹이곤 했었다.

어느날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가방을 받으러 집앞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같이 들어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선 "그년한테 해주는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신경써 봐" 라며 또다시 욕을 했다. 아끼는 자식, 나만의 딸이 아닐진대 그러는 그를 보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점점 큰딸은 아빠와의 사이에 두껍게 벽을 쌓아갔다고 나중에야 나에게 말해주었다. (계속)

HOME 홈TV인터넷(주) http://www.home.co.kr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1-6 상경빌딩 3층
전화 02)2295-6660/ 02)2295-6669



"불교 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TV인터넷의 사찰 전산화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설법 듣기 가능
- 신행상담/불법공부/신도와의 대화가능
- 뉴스,홈쇼핑,경제,문화등의 다방면의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칼라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웍 형성

TV인터넷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O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장의 염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세계최초!!! 위성인터넷 실시

- 홈 TV 인터넷이 불교계에서는 세계최초로 전국 사찰에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TV 인터넷은 위성 인터넷을 이용 최신의 불교정보를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서비스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 최고 3Mbps의 초고속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불교 정보화를 위해서 홈 TV인터넷이 제공합니다.
- 희망하시는 사찰이나 신도분들에게 위성수신 안테나를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해 드립니다.



⊙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 TV + 수신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수신기 가격 :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 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피아 직통 : 02)732-1520

TV인터넷 협력기관 현대불교신문사, 중앙일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솔빛미디어, (주)방송, 제노시스템, IBKorea, IBCanada, 서울은행, 한국속보신문사, Kweather, Webkiosk, 교학사, 우리교육사, 오토마트, 한국인터넷TV금융정보, 마루시스 유한C&T, 한국디지털포럼, 코리아인터넷, 유니버셜레코딩, 시티넷, 조이스타큐텝, 다우시스템, 고니아 정보통신, ICN인천방송, 열티스큐8넷, 월간유아, 테크월드, 마이크로비전, 에이디시스템, 월드크레프트, 체우스엠텍, 하나엔지니어링, 정일엔지니어링, 태흥정밀, Z-ram, 사주도사, 한솔디자인, 성동초등학교, 한국기독교인터넷방송, 인터넷 매직 프리자, FIX 프로덕션, Kitel, 서울대논술연구회, 뉴스플라워, 인터넷의료정보